

지암 스님(은진사 회주)
국가 초월한 보시행
글로벌 시대 우리의 의무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9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9호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들을 때는 들린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종교, '不信의 늪'에 빠지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2015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한국 종교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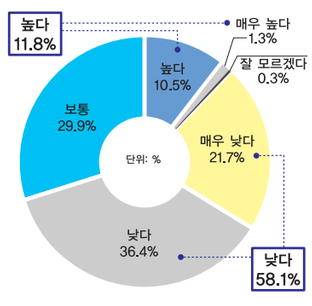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월 29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감소했다. 한국사회 기관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가장 신뢰한 곳은 의료계(21.9%)였고, 시민사회(21.5%), 금융기관(20.5%), 학계(17.8%)가 뒤를 이었다. 종교계의 신뢰도는 11.8%로 대기업(12.4%)보다도 낮았다. 이 같은 종교계의 신뢰도는 지난해 조사한 신뢰도 25.0%보다 13%가량 하락한 것이어서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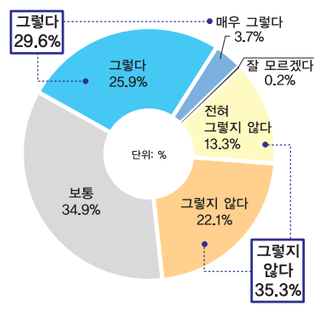
3대 종교별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39.8%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32.8%, 개신교는 10.2%였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부가 51.3%로 가장 높았고, 스님은 38.7%, 목사는 17%였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40.4%로 '감소했다'(19.4%)보다 많았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42.3%로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천주교는 36.3%, 불교는 26.7%였다.

〈표1〉 종교 전반 신뢰도



〈표2〉 성직자 전반 신뢰도



신뢰도 25%서 11.8% '추락'
종교 영향력 높은 기형구조
연령 · 소득 낮을수록 불신

"사회의 낮은 곳을 위해
종교 본연 의무 돌아봐야"

신뢰도에서 특이할만 한 점은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20대의 종교 신뢰도는 8.4%, 30대는 6%에 그쳤다. 저소득층은 8.7%만이 종교를 신뢰했고, 중산층은 10.1%, 상위층은 25%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또한 불교에 대해 인식에 대해 국민들은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한다(37.8%)'는 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재정투명화는 13.3%로 여전히 응답률이 낮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소위 제도권 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권 종교가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에 거부감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령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종교계에서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한국 종교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 종교는 중산층 이상의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전반적으로 종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그런 와중 가톨릭과 불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톨릭 주교회의 내에서는 정책을 정할 때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논의한다. 한국불교는 그런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국불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南北 교류, 종교계가 활성화 나선다

KCRP · 조종협, 11월 9~10일 금강산서 모임

남북 종교인 200명 모여
화합 · 통일 방안 논의 예정
종교별 남북 상봉 모임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운데 종교계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한국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회장 자승, 이하 KCRP)는 오는 11월 9~10일 금강산에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위원장 장재언, 이하 조종협)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를 개최한다.

남측에서는 KCRP 회원 종단 대표 150명이, 북측에서는 조종협 대표 50명이 참석한다. 200명의 남북한 종교인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1년 7대 종교 수장들만이 평양에 방문한 적은 있다.

이번 남북종교인 모임은 남북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며, 남북 대표 1인의 축하연설과 3~4인의 연설, 공동결의문 채택 등이 이뤄진다. 또한 구룡연, 삼일포 공동 등산과 종교 단체별 상봉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KCRP는 "이번 남북종교인모임이 성사되면 8.24 남북합의에 따른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향후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월 24~25일 중국 무석 영산범궁에서 제4차 세계불교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대만, 스리랑카, 미국 등 10개국 불교 지도자들은 '세계불교단체 유대 강화' 등을 비롯한 9개항을 공동 선언했다. 사진은 한국 대표단 스님들이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세계 불교도 교류 통해 유대 강화"

10월 24~25일 中무석서 4차 세계불교포럼 열려

"각 국의 불교 사상과 문화, 전통, 학술 등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자."

10월 24~25일 중국 무석 영산범궁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포럼에서 한국, 대만, 스리랑카, 미국 등 10개국 불교 지도자들은 '세계불교단체 유대 강화' 등을 비롯한 9개항을 공동 선언하며 폐막했다.

25일 진행된 폐막식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전 세계 다양한 문명과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스님들은 △각국 불교신자들의 교류 강화를 통한 이해 증진 △각종 언어의 불교서적 비교연구 및 불교사상 교류 △서로 간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역사적 경험 공유 △교육분야 협력을 통한 불교학자 파견 및 불교대학교 교류 △불법홍포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불교사상 세계 전파 △환경보호 및 다국적인 공익분야 활동 △불교청년 교류 지원을 통한 홍법인재 양성 △문화예술 · 평화유지 등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노력 △불교 및 현대과학 간의 융합 강화 등 9개항을 공동 발표했다.

한편 24일 개막식에서 대회 발언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기 모인 불제자들은 모두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각국에 불법이 전해진 동기와 역사 등에 따라 불교가 계승 · 발전된 것"이라며 "근원이 다른 지류가 본류에 합쳐지듯 각국의 수행전통과 역사의 차이를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국 400여 명의 스님들이 초청돼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9개 종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행 선사 가르침, 유럽서도 큰 공감대 형성"

獨 에플레 교수, 10월 23일 한마음학술제서 밝혀

"대행 선사의 불교적 가르침의 전파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서 종교가 그 의미를 잃게 된 문화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10월 23일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서 열린 '한마음학술제'에서 한스욕 에플레 베를린 의과대학 교수는 '대행선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에플레 교수는 이러한 세속화의 요인으로 △종교개혁을 통한 교회에 대한 비판 △계몽주의에 따른 이성과 개인에 대한 강조 △유대인 대학살서 드러난 인간성 패배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통한 무신론의 각인 △과학과 기술과학의 급격한 발전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어 에플레 교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초종교적이다. 큰 스님 가르침의 탁월한 명료함은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심오한 개인적 경험이라는 양분을 섭취함에서 비롯된다"며 "여기에 신

대행 선사 가르침 초종교적
모든 종교 본질적 핵심 담겨

'한마음공생과정실천' 효과
참가자 80%이상 만족 높아

의 질서에서 떨어져 나온 유럽인들을 위한 엄청난 희망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플레 교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전체로 통하는 문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며 "전체와의 연결속에서는 세계를 대상화해 바라보는 태도가 지양되며, 모든 종교의 본질적 핵심을 지향함으로서 유럽인들에게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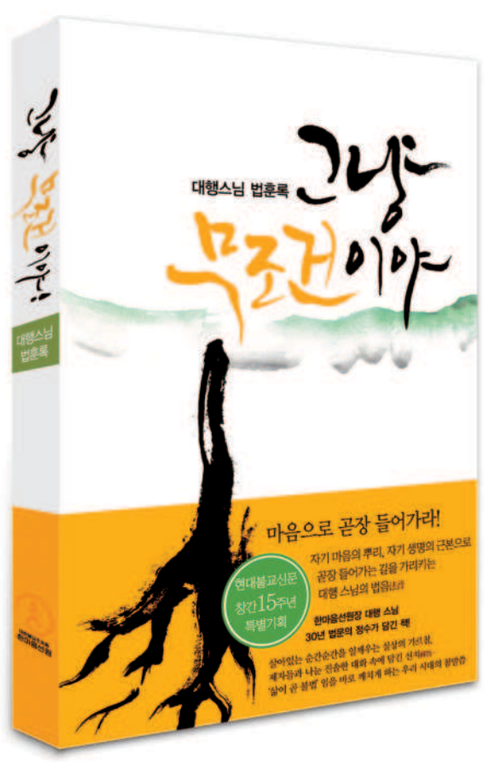
또한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와 이용권 박사(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발표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 동기는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문제 23.6%, 인간관계문제 13.6%, 경제문제 11.5%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도 45.8%가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50% 정도가 33.2%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는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둘로 보지 않기'로 확인됐다. 이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주요 내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경욱 교수는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제에서는 김영래 연구교수(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가 '대행선사의 주인공 수행관과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비교연구'를, 박만규 동덕여대 교수가 '육조단경 혜능 선법과 대행 선사상 연구'를, 청고 스님(한마음국제문화원)이 '80년대 한국 불교의 맥락에서 본 대행 선사의 예불문 한글번역 작업에 대한 고찰'을,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개인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중심으로)'를,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한마음의 존재론과 수행론,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한마음에 대한 고찰'을, 소광섭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명예교수가 '상대론적 시공간 언어와 대행 스님 법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www.hyunbulshop.com

조계종 · 선학원 연일 날선 공방

"선학원 종도 제재 풀자" vs "법인관리법 폐지부터"

조계종, 선학원 문제 대중공사 의제
선학원 內 종단 지지 분원장 모임

법인 등록을 둘러쌓고 조계종과 선학원이 연일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은 11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로 선학원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현 이사진을 제외하고 선학원 종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관리법부터 폐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0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특별 제안에 나서서 종단적 관심과 제재 해소 등을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의 선학원 이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등 스님은 "가처분 소송에 선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계종이 70%라고 한다. 나머지는 타종단과 재가자"라면서 "분원장 재임, 창건주 계승 때 조계종 승적 포기를 종용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다른 교단의 사찰을 등록받고 있다. 이대로 5~6년이 지나면 조계종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단 소속 사찰은 종단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1000명이 넘는 종단 수행자들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견임을 전제하고 제재 조치 해소를 제안했다. 법등 스님은 "현재 선학원 내 종도들은 죄가 없다. 상층부의 갈등으로 일선 사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선학원 종도에게 가해지고 있는 재제 조치를 선거권 · 피선거권 제외하고 풀어줬으면 한다. 다만 현 이사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선학원 문제를 차기 의제로 병합해 함께 다루기는 의견을 모았다.

선학원 내부에서도 현 이사진의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선학원 사찰 분원장 및 창건주 스님 32명은 10월 26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모임을 갖고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을 결성했다. 이들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학원이 탈종단화 해서는 안 된다' 등의 3대 원칙을 세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반면 선학원 이사회 측은 조계종이 제안한 특별교구화 등 협의안 제안을 거절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4월 법인법 제정 · 공포로 재단과 종단 간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것"이라며 "법인법 때문에 종단과 재단이 불화가 지속되는 것이기에 법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원장 스님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소송을 해놓고 분원서 회유하고 있다. (법등 스님) 본인은 회유 협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 등에게는 그 자체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경천사지 석탑 계승한 玉塔 '우뚝'

천태종 관문사 10월 30일 옥불대보탑 낙성법회

천태종이 13년 간 공을 들여 제작한 관문사 옥불대보탑의 낙성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옥불대보탑 주변에는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법화경〉을 돌에 새긴 석경불벽을 조성,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일신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0월 30일 관문사서 옥불대보탑 점안식에 이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관문사 10층 옥불대보탑은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본따 옥(玉)을 재료로 13년에 걸쳐 조성됐다. 탑은 높이 20.7m, 기단부 지름 12m의 8각 10층으로 이뤄졌다. 탑 내부에는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모셔 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가 봉안됐다. 탑의 주변에는 〈묘법연화경〉을 새긴 석경불벽(石經佛壁)을 조성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논문 '한국의 천태사상을 반영한 관문사 옥불보탑'에서



천태종 관문사에 들어선 옥불대보탑. 13년 간 불사를 진행해 10월 30일 낙성했다.

"관문사옥불대탑은 고려시대 경천사 탑의 양식을 모방한 것이지만, 그 탑에 반영된 천태사상을 다시 한 번 오늘에 환기시키고 있다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주일 기자

성역화 · 복지 등 중점과제 역점 추진

조계종, 27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총 530억원 규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내년부터 총본사 성역화 · 승려복지 · 중앙 교구 균형 발전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250억 236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83억 9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800만원(4.1%) 가량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8000만원(18.4%) 가량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중앙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18.7%로 증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는 올해 배정액과 비교했을 때 약 6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앙종회에서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에 의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김용구 기획팀장은 "사찰 결산액을 대비한 요율표를 적용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제대로 하자면 일선 사찰에 부담이 크기에 조정해서 18%가량이 증가했다. 조정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세출 예산에서는 총본산 성역화 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도드라진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올해에는 2억 5800만원이었던 예산이 27억 10만원으로 24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일

총본산 · 복지 예산 대폭 증가
세종시 종교용지 추가 확보
세입, 중앙분담금 18% 확대
종교교과서 · 세계화 사업 추진

반회계에서도 2억 원의 전출금이 배정돼 있다. 조계종은 현재 관련 성역화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매입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7년 첫 삽을 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74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97억 6300만원으로, 23억 원 가량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전출금도 5억 원이 배정됐다. 시설 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종단에서 꾸준히 진행 중인 신도시 종교 용지 확보 사업 때문이다. 내년에도 조계종은 세종시에 2000평 규모의 종교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특별회계도 기존 27억 800만원에서 36억 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만65세 이상의 무소득 · 무소임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승려복지제도는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총무부는 75억 74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10.4% 증가된 것이다. 눈길을 끄는 사업으로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앙교구 균형 발전은 총무원 중점과제 중 하나이다.

기획실은 전년 대비 32.9% 증액된 12억 97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는 종령기구로 출범한 사부대중위원회의 예산(1억 8000만원)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안된 미래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2400만원)에 따른 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초중고 종교교과서 제작 사업도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항상 동결에 가까웠던 원로회의 등 종정기관도 전년 대비 11.7% 증액된 3억 원으로 배정됐다. 내년 종정 진제 스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종정추대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9억 6000여 만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 박물관의 종단 소유 불교문화재 환수 추진을 위한 조사사업인 '성보문화재 국제환수' (900만원)를 비롯해 불교무용대전(1000만원), 연등회 보존 위원회 지원(4억 4420만원) 등이 진행된다.

사회부는 전년대비 600여 만원이 감액된 23억 8207만원이 배정됐다.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프랑스 방문과 중앙아시아 한국불교 소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시즌2' 를 위한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예산으로 1억9300여만원, 이주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 포교원과 교육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총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탈핵 · 노동 등 사회 문제, 불교가 나서자

조계종 8차 사부대중 대중공사 참가 대중 사회 실천 '한 목소리'

자승스님 "탈핵선언, 신년회견 발표"
시민사회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필요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국민과 대중들에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사회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중요한 불사이다."

'종단의 사회적 실천과 역할' 을 주제로 10월 28일 열린 제8차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실천의 당위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이를 통해 10개의 모둠은 생태 ·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실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탈핵운동과 대체에너지 도입 등 환경 부문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발표됐다. 1모둠은 "이웃 종교인 원불교에서는 창종 100주년을 맞아 햇빛 발전소 100개 설치를 사업으로 삼았다. 국고 지원도 이뤄지니 사찰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단에서도 에너지 사업단을 구성하고 인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10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탈핵선언을 이뤄내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6모둠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체 에너지 도입에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문제 해결도 시급한 사안이다. 종단에서 이번 기회에 탈핵 선언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스님 역시 "핵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위험천만한 사안이다. 대중공사 차원에서 탈핵선언을 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내용을 정리해 내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탈핵선언을 포함한 대중공사에 논의된 모든 사안은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해서 내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천 사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종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승가대학에서부터 사회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신도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실천의 중요성을 높이는 강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또한 고질적 문제인 사회 문제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도 제안 사항으로 나왔다.

한편,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중공사 회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 태화산=신성민 기자

조계종 종관위 개최 무산 일면 스님 추천 이사회로

일면 스님 등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 100차회의가 성원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혜)는 10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위원장 삼혜스님과 위원인 현민 · 환적 · 명준 · 지성 스님만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위원장 삼혜 스님은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멀리서 오셨는데 회의가 성원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음회기 일정을 잡아 성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뒤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동국대 이사 후임 선임은 이사회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2015년 8월 18일 개정된 학교법인 동국대 정관 24조 3항에 의하면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고 명시돼 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총본산 성역화 기금 마련 나선다

조계종, 11월 16일 모연의 밤… 종단적 모금 약정 이어질 듯

토지 매입이 최대 관건
2017년 10월 기공 목표

조계종이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를 탈바꿈시키는 성역화 사업 기금 마련에 나선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는 10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당위성을 알리고 사부대중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 행사에는 원로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총도감 지현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 재가단체 대표 등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 모연의 밤 행사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와 주요 내빈 인사말과 축사, 총도감 스님의 사업 소개 PT 등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청량사 어린이 밴드, 소리아 밴드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졌다. 총도감 지현 스님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오는 2017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영향 평가가 끝난 후부터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 매입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면 오는 2017년 10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노후된 조계사 신도회관을 1차적으로 허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큰 대작불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모연의 밤을 통해 총본산 성역화에 대한 범불교적 관심이 증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계사 일대의 혁신이 이뤄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체결해 역사문화 지구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에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8년 12월까지 10·27법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10·27법난기념관' 2개동을 건립한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불자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아케이드,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전통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일반 불자들의 성역화 불사 기금 모금 동참을 위해 ARS 전화와 계좌이체 모연도 함께 진행한다. ARS 전화는 1통에 5000원이며, 계좌 이체를 통해서는 자유롭게 기금을 희사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RS 전화: 060-700-1027
후원 계좌: 농협 301-0160-9713-71 (조계종유지재단)
국민 023501-04-221144 (대한불교조계종)



이광복 도편수의 지휘아래 7명의 대목과 스님,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대들보를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욕 원각사

美뉴욕에 한국 전통사찰 기틀 닦다

원각사 10월 25일 대웅전 상량식…전통공법 활용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는 10월 25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회주 정우 스님을 비롯해 주지 지광 스님, 상민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욕주 샐리스베리밀즈에 자리한 원각사는 미동부 최초 사찰로 미국 내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30만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원각사는 양산 통도사 해외포교당으로 1974년 숭산 스님이 창건한 이후 1976년 주지로 부임한 법안 스님이 원력을 세워 불사가 진행됐다. 그 후 2004년 정우 스님이 다시금 총액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원각사는 이번 대웅전 불사에 최고 수령 1천년에 달하는 희귀 목재들이 사용했다. 또 못을 하나도 쓰지 않는 한국불교 전통의 공법이 활용됐다. 원각사는 지난 2012년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높이 10m의 청동대불상을 건립 한데 이어 대웅전 왼편에 74평 규모의 무량수전, 대웅전 아래에 참선방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량된 대웅전은 중앙기둥이 없는 구조로 84평 규모다.

회주 정우 스님은 이날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이곳에 원각사를 일군 법안 스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불사를 이어왔다. 부처님의 전당을 일구게 된 것은 선근있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공덕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노덕현 기자

세계 15개국 茶 마스터 '한자리'

11월 5일~8일, 세계차품평대회 · 차박람회 개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5개국 차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마누자페리스 국제차위원장을 시작으로 호주티마스터협회 회장 새린존스턴까지 전 세계 최고의 티마스터들이 한국서 차문화와 산업에 대한 품평과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석자들을 보면 영국의 마누자 페이리스(국제차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리의 가브리엘라 롬바르디(전 세계 명품수제차 판매회사 티타뜰리에 대표), 영국의 제임스 폭슨(대표적인 명품수제차 기업 대표) 등 15명이다.

현재 한국서 가장 권위있는 차품평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차품평대회다. 이번 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보성 한국차문화공원특별품평실서 개최됐다. 이어 열리는 제3회 보성세계차품평대회는 11월 6일 보성한국차문화공원특별품평실서 전세계 15개국 20여 차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품평분야는 녹차, 홍차, 우롱차, 블랜딩, 흑차등 총 5개 분야 21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200여개의 세계적인 차를 품평한다.

세계차품평대회의 메인 주제는 바로 세계다식이다. 차 마시는 국가들에는 차와 어울리는 다양한 다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와가시, 프랑스의 마카롱, 대만의 펑리수, 우리나라 송화다식 등이 유명하다. 또한 이번 세계 티푸드 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 티푸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장소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다식 · 향도 등 주제로 진행
티푸드 전시 · 체험관도 운영

특별전시실이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티푸드에 대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계차품평대회의 두 번째 주제는 한국차계의 이슈인 향도다. 차와 향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해왔다. 차에 다례가 있듯이 향에도 향례가 있다. 각국 최고의 향도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각 나라의 독특한 향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도발표회는 11월 7일이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시실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한 세계차박람회답게 각국의 명차를 시음할 수 있는 특별시음관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제 1회로 개최되는 보성티블랜딩 공모전에 입상한 차들도 시음 가능하다. 세계차품평관과 보성티블랜딩공모전 시음관으로 운영될 세계명차시음관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시관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는 미래한국차문화와 산업을 이끌 대안을 제시하는 '추계학술대회'도 개최한다. 11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특설무대서 열린 이번추계학술대회에는 국내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공동대회장인 여연 스님(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의 차문화와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졌음에도 세계 차문화 산업의 변방이었다"며 "올해는 세계 15개국의 차 마케터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차인들이 주목하는 '티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증도가자 위조품" vs "확대해석 무리"

국과수 26일 조사결과 발표에, 문화재청 "과학적 조사 진행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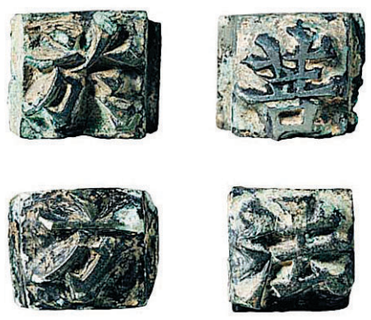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논란이 일고 있는 '증도가자(證道歌字)'에 대한 국과수 조사에서 위조 흔적이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10월 2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옛 금속활자 7개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속활자 1개를 조사한 결과 고인쇄박물관의 활자 7개에서 위조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10년부터 최고 금속활자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위 금속활자 8개에 대해 3D 금속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통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국과수는 "고인쇄박물관의 7개 금속활자 모두에서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 CT 및 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 전통적 방식의 주물 기법에 의해 제작된 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인쇄박물관의 증도가자는 박물관 측이 구입한 것으로 구입경로가 불분명해 그동안 학계의 진위 논란이 일어왔다. 현재 사립 다보성미술관이 101개, 국립중앙박물관이 1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7개를 소장하고 있다.


'증도가자' 활자 중 일부 모습.

이번 국과수 검증결과에 따라 남은 다보성박물관 소유 증도가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높아진 상태다.

논란 확산에 문화재청은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3개 분야 12명의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이 구성돼 증도가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북대 팀이 한 기초조사연구와 국과수 조사는 참고사항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식 연다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큰법당에서 육문 스님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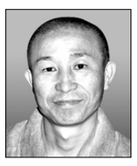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많은 대중스님들의 지지를 받고 회장으로 선출된 육문스님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취임식을 염원한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여법하나 조용하게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바램과 희망을 담아, 11대 전국비구니회는 원할히 소통하며 지혜롭게 실천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청정 승가의 전통을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초대의 말을 통해 "제11대 전국비구니회가 희망찬 출발을 시작한다"면서 "소통하며 함께 하고, 지혜롭게 실천하여, 아름답게 회향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실상사 후불탱화 봉안식

도법 남원 실상사 회주 스님은 10월 25일 실상사에서 약사전 후불탱화 봉안식을 거행했다.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1월 21~22일 해인사 대웅전에서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를 봉행한다.



봉은사 동지설판 실시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동지법회기금 마련을 위한 동지설판을 11월 1~22일 봉은사 일대에서 실시한다.



봉원사 주지 진산식

선암 서울 봉원사 주지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제42대 주지 진산식을 개최한다.



길상사 수능기도 천도재

덕운 서울 길상사 주지 스님은 11월 11일 길상사에서 수능기도 천도재를 진행한다.



성 인식개선 교육 개최

희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관장은 10월 28일 '성 인식 개선 및 건강한 성 문화 조성 교육'을 실시했다.

법보신문 '독립언론 10주년' 법회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서… 300여 명 참석



법보신문(대표 남배현)은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독립언론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중진 스님 등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남배현 법보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부 한부의 구독료를 법당을 밝히는 인등으로 받들고 있기에 법보신문은 정법을 수호하고 홍포하는 도량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겸양한 마음으로 정론의 길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보신문은 향후 네 가지 비전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남배현 대표가 법보신문이 설립한 모과나무 출판사 대표를, 김형규 편집국 편집부장이 법보신문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정심으로 민생치안에 이바지"

수원남부경찰서에 불자회 · 경승위 창립한 유진형 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의 24년 역사 동안 불자회나 경승위원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불자로서 평소 포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자회 창립이라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유진형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 및 경승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27일 창립법회를 열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불자회와 경승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1991년 개소한 이래 최초다.

"작년 12월 부임한 후부터 줄곧 생각해온 일입니다. 그러던 중 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과 아리담문화원 송탁 스님과 인연을 맺게 돼 수원남부경찰서 경승위원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승낙해주신 덕분에 경승위원회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10월 13일 수원남부경찰서 경승위원으로 송탁 스님, 세영 스님, 대현 스님, 보선 스님 등 5인이 공식 위촉됐다. 불자회는 3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된다. 유 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승위원 스님들의 원력이 닿아 수원지역 치안이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불자회



10월 27일 창립법회 봉행
불자회 30여 명으로 구성
경승위원 송탁 스님 등 5인

원들과 함께 경승위원 스님들 사찰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대학 재학 중 불교학생회 활동도 활발히 참여했다는 유 서장은 1983년 신륵사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하며 계를 받았다. 불자이신 어머니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절에 다니던 것이 인연이 됐다.

유진형 서장은 1982년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 1986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화성동부경찰서장, 강릉경찰서장, 구로경찰서장 등 역임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경기청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서울 구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할 때도 포교 활동에 앞장섰다. 부처님오신날에 관내에서 초파일법회를 주최하는가 하면, 연등도 직접 달았다. 유 서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종교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불자로서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싶다"고 서원했다.

유 서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다"며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민생치안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수원남부경찰서 내 강당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송탁 스님, 마가 스님 등 1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경승위원장 송탁 스님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승위원회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재가불자회가 침체된 시기에 스님들이 중심이 아닌 재가자들이 발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27일 10 · 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 봉행



1600년 한국 불교 역사 중 최대 탄압사건이라 불리는 '10 · 27법난'이 발생한지 35년이 지났다. 이에 조계종은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자 35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 · 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 피해자 대표 원행 스님, 사회부장 정문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비롯해 법난 피해스님들과 피해자 일동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난 피해자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 사회국장 각평 스님의 경과보고, 10 · 27법난 다큐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사 낭독이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대독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와 민족문화의 정기가 짓밟혔다. 근대시민정신의 완성과 민주주의 시대라 일컫는 현대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위법망구(爲法忘軀)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본지, 진각종 네팔 돕기 성금 3백만원 기탁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혜월 스님)는 10월 28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서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과 학인 일동이 네팔지진피해돕기 구호 기금에 써달라고 기탁한 3백만원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전달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각종은 지진피해 당시부터 종단차원서 네팔 현지 포교사와 함께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에 기탁 받은 성금은 현지 네팔 JGO센터에 전달해 피해복구 활동에 사용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사를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서춘건 관리부장은 "적은 액수 이지만 지진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배석한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도 "네팔은 지난번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많다"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집을 잃은 이들이 추



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지 걱정이다. 이번 성금을 그들을 위해 담요와 의류 등을 나눠주는데 쓸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성금을 후원해 주신 한국불교법사대학측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주일 기자**

홍법사, 대광명전 불사 회향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산 12주년을 맞아 대광명전 불사 회향을 의미하는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어 개산 12주년 기념법회 및 '통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10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된 삼존불 점안식은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됐으며 법회는 내빈 축사 및 동림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법어 순서로 진행됐다. 홍법사 야외법회장에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통일 토크콘서트, 호법 스님이 묻고 김근식이 답하다'란 제목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자리가 열렸다. **하성미 기자**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법회 열어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21일 중양절(음 9월 9일)을 맞아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개최했다. 원당암은 40여 년 전 前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하던 당시부터 중양절날 일체조상과 무명영가의 천도와 축원을 하는 법회를 열어왔다.

원각 스님은 "자신의 참 나인 본심을 밝혀, 윤회의 바깥경계에 끄달림이 없는 중도의 삶을 살길 바란다"며 "본성의 생활로 주인공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불국정토를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정재단, 24일 나란다축제 시상식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재단)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제14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7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7회 나란다축제에서 부문별 수상자와 제14회 은정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단체와 개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나란다축제 시상식에서는 군장병 부문 공동대상을 수상한 천동희 일병(육군종합군수학교)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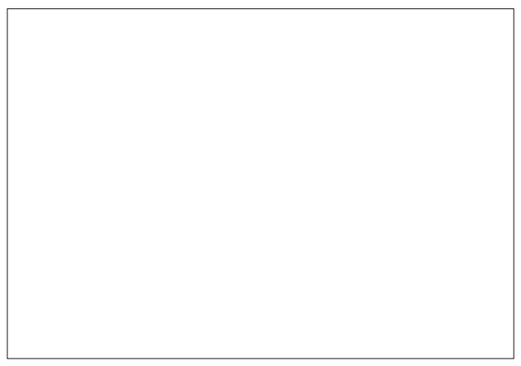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0월 24일 점등한 유리구조 미래탑(사진 오른쪽)과 과거탑(고려석탑).


차를 댈 수 없어 인부들이 수백년 전과 같이 직접 구조물을 나르고 있다.


탑 내부 불상에 일일히 입사하는 모습.


미래탑 내부에는 불상 455구가 봉안됐다.



미래탑에 불켜지니 세상에 평화가…

정목 스님, 성북구 정각사에 신개념 '미래탑' 점등

둥그런 만월이 빛나는 가을밤, 성북구 언덕길에 위치한 정각사에 아름다운 탑이 불을 밝혔다. 탑 형태의 유리 구조물 안에는 작은 불상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 탑의 이름은 '미래탑' 이다.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는 10월 24일 경내에서 '미래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십시일반 탑 건립에 참여한 2백여 불자들과 함께 개최한 점등식은 어쿠스틱 국악그룹 '재비' (단장 장태풍)의 창작곡 연주로 시작됐다.

먼저 점등식에서 탑의 기단부에 검은 상자 위에 우담바라 꽃과 같이 자리한 2028개의 광섬유가 가느다란 빛을 밝혔다. 음악에 맞춰 진속의 불이를 상징하는 양측면 유리벽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108개의 구멍이 뚫린 천정에서 다시 빛이 쏟아졌다.

미래탑의 유리벽 뒤로는 북한산 자락과 대나무 숲이 그대로 투과됐다. 미래탑 앞에는 고려시대 석탑이 위치해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점등된 '미래탑' 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새로운 조형기법을 이용한 현대적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2.4m의 유리격벽 중간 중간에 금속 판으로 층을 세우고, 그 위에 작은 불상을 봉안했다. 이 불상들의 수만 455구에 달한다. 꽃이 핀 불상, 새가 어깨에 앉은 불상, 금색과 은색 가사를 입은 불상까지 똑같은 불상은 하나도 없다. 또 가슴이 뚫린 부처님 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나무와 뒤의 불상 등을 보여주는 입체미가 있었다.

이 불상은 불자 공예가인 무형문화재 입사장 이경자 선생이 직접 하나 하나 망치로 두드리고 금과 은실로 문양을 장엄해 섬세함이 빛났다.

탑에 불이 들어오자 정목 스님은 낭랑한 목소리로 가을밤의 무르익음을 알리는 시를 읊었다. 바로 미래탑 불사에 감명을 받은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를 쓴 김재진 시인의 헌시 '허공의 붓다' 였다.

허공의 붓다

내가 이 별을 떠난 뒤
남아 있을 사람들에
허공의 붓다를 남겨놓네

내가 이 별을 떠난 뒤 이 별에 찾아올
어여쁜 손님들께
화엄의 세상 하나 남겨놓네

과거, 미래, 현재가
동시에 굴러가는 법의 바퀴 같으니
떠난 뒤 내가 찾아갈
광활한 은하계에 길 밝혀 줄
지혜의 탑 하나 세워놓네

점등식에 앞서서는 '미래탑' 의 불사과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됐다. 이 다큐는 '길위에서' 의 이창재 감독을 비롯한 3명의 영상전문가들이 불심으로 공동작업한 결과물이었다. 다큐 영상을 통해 참석한 불자들은 정목 스님이 불사를 결심하게 된 고뇌와 레미콘 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길에서 불사를 진행한 인부들의 노고를 그대로 느꼈다.

미래탑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현재의 공법이 아닌 마치 몇백년 전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시공법을 사용했다. 레미콘 차가 못 들어와 먼 옛날 몇십리 길을 돌을 지어 나르던 선조들의 모습처럼 시멘트를, 또 철골 구조물과 유리를 불자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 쏟아 부었다.

사실 정각사는 정목 스님의 은사인 광우 스님이 1958년에 세운 사찰로 매우 낡은 사찰이었다. 정목 스님은 2009년 은사 스님의 뒤를 이어 주지를 맡은 후 기존 가옥을 고쳐 정원을 만들고 현대식 요사채 등을 지으며 새로운 가람의 장을 열고 있다.

정목 스님은 "우리가 전통이라 보는 것도 당시에는 혁신을 통해 나온 것"이라며 "이 시대가 지난 후에도 후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염원한 불자들이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과거 · 현재 · 미래탑 한도량에
과거-고려탑, 동참불자-현재탑
미래탑 455 부처님 봉안
유리구조는 '진속불이' 상징
현대미술 새장 연 불교조형물

이런 새로운 불사는 불교 조형물을 넘어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을 비롯해 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찾아 탑을 보았다.

김순희 신도는 "스님께서 불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탑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흔한 일반적인 불사가 아닌 현대적인 불사를 전해 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미래탑 불사를 책임진 윤경식 한국건축회장은 유리를 활용한 새로운 의미의 탑을 만들게 된 이유를 "진신사리를 탑 안에 모시는 이유는 탑 자체가 '니르바나' 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회장은 "불상을 탑 안에 넣고, 외부와의 경계를 없애 불법이 빛의 형태로 시방세계에 퍼져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각사는 점등식에서 대중들에게 빨간 비단실로 산호보석을 꿴 목거리를 선물했다. 점등식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스님들이 직접 탑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대중들에게 목걸이를 걸어줬다. 보통 석탑 점등식에서는 오색실로 장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호불을 전해준다는 의미였다.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한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모두 입을 모아 "오늘 이자리 있는 여러분이 미래탑, 과거탑과 같이 현재탑" 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이 시대 불사를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3시간 여의 이날 행사는 아카펠라 더 솔리스트의 하모니 사홍서원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미래탑 점등식에 참여한 불자들의 가슴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불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래탑 불사는 자비나눔의 방편"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

"이제 유형적인 불사는 끝입니다. 이 지역이 모두 정각사라 생각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불사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탑 불사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정목 스님은 미래탑 불사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사에 나선다. 스님은 "정각사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미래탑은 전통적인 석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졌다. 이 불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기금모연에 함께 나섰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먼저 미래탑 하단의 광섬유 인등을 활용해 기도비로 '길 위의 학교' 를 10월 세워 진행 중이다. '길 위의 학교' 는 아이들이 매달 한번씩 1박 2일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자리다.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스님은 "해외의 많은 문화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이 미래탑을 보러 와, 한국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또 불교계가 진행하는 자비나눔에도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목 스님은 "정각사는 신도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절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그래도 항상 지역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울고 웃으며 수행담 나누니 '한마음'

한마음선원, 10월 24일 '마음공부실천마당' 개최

"중2 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순간 심장이 덜컹 했어요. 난 1등 엄마가 아니면서 아이에게 1등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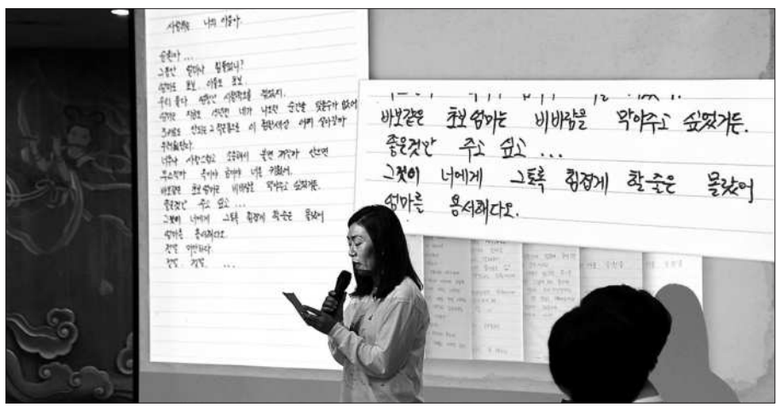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강민주 보살은 사춘기 아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 '편지'라는 방법을 택했다. 강 보살이 당시 쓴 편지를 읽자 스님들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누구나 겪었을 자녀와 갈등에서 더 이해해주지 못한 속상함과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혼자 마음수행하는 것은 쉽지만 타인에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스스로 터득한 마음공부실천법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장이 펼쳐졌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2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마음공부실천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23일 학술세미나에 이어 '2015한마음학술제' 이튿날 행사로 마련된 마음공부실천마당에는 부산 · 진주 · 중부경남 · 대구 · 청주 · 독일지원 불자들을 비롯해 7백여 명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첫 번째 장은 '하루살이 씨앗'을 주제로 부산지원이 열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고민에서 마음공부실천을 시작한 부산지원학생회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육바라밀에 따라 6가지 서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실천했다.

부산지원 이상민씨는 "첫째아이에게 큰 기대를 하다 보니 잔소리가 심해졌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없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며 "마음이 많이 아파 매일 108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 딸과 소통하려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아이 버릇도 고쳐져 함께 네일아트를 하러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다"며 웃어보였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2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마음공부실천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지원 강민주 보살은 사춘기 아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 매일 아침 편지를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2015한마음학술제 일환
전국지원서 7백여 명 참석
독일서 실천한 마음수행담도
사례 · 발표 · 연극 등 방법 '다채'
"마음수행법 배운 좋은 기회"


불자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수행담이 소개될 때마다 장내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진주지원은 상주 종무원들의 진솔한 실천 수행담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다. 절에서 함께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 갈등 등을 정겨운 사투리로 토로하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됐다. 진주지원 종무원들은 "일하다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은 잠깐 뿐이다. 금방 또 좋아져서 정이 더 돈독해진다"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법은 없다'는 대행 큰스님 법어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공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지원에서 온 사비네 슈타지어, 모리츠 에플레, 이승호씨는 불교에 입문한 계기와 더불어 독일에서 실천한 마음공부 수행담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하이델베르크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모리츠 에플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순례방문 때 대행 큰스님을 만난 일화를 털어놨다.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자 조그마한 모리츠 모습과 큰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리츠는 "큰스님 법문을 듣고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공부를 알게 하고 싶다'며 방법을 여쭈자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린다"고 회고했다.

이어 모리츠는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참 나를 찾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사비네 슈타지어는 "인구 80%가 기독교인 독일에서 불교를 믿으며 '이단'이란 자책감이 들 때도 있었다"며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 한마음선원 안에서 자라났다. 종교를 떠나 그저 진리를 찾는 사람(Wahrheitssucher)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비네는 "대행 큰스님을 만나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관법은 내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아울러 중부경남지원은 '관하는 남자'를 주제로 연극을 선보였다. 염라대왕,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실수로 저승으로 데려온 48세 남성, 비구니 스님 등을 주인공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관법의 비밀'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극 중 비구니 스님은 저승사자가 관하는 법을 묻자 "삶의 주인공은 '나'이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자신만 내세워선 안 되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마음으로 관(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밖에도 대구지원은 악기공연 등 평소 지원 내 청원당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한마음과학원 황수경 박사는 '한마음의 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청주지원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선과 악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라는 교훈의 연극을 펼쳐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수행실천담을 발표 · 연극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울산지원 이명희(여 · 48)씨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사소한 갈등 ·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며 "내가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 아이, 남편, 지인들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역공동체 포교, 종단·본사·사찰 삼박자 중요"

조계종 포교원, 27일 지역공동체 주제 연찬회

"사찰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존립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계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원에서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지속가능한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포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송묵)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5차 포교 종책 연찬회-지역공동체 포교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유형과 공동체를 통한 포교 방안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 방안을 교구 차원의 거시적 방안과 일선 사찰의 미시적 방안으로 나눠서 접근했다.

교구차원의 거시적 방안은 △불교 정서 확산을 통한 포교 △지역 브랜드 개발과 관광을 연계 △절기 행사의 사회화 △지역 리더 발굴 및 조직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일선 사찰의 미시적 방안으로는 △소규모 공동체 조직 활성화 △지역봉사 네트워크 참여 △지역문화단체 육성 및 지원 △영농법인 운영 및 참여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1차적 목표는 사찰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고 사찰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에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사찰의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신행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앙과 교구본사, 일선 사찰 역량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지역공동체를 통한 포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찰별로 지역공동체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종무기관 차원에서는 각 교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 포교 방안을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포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중앙신도회, 10월 24~25일 워크샵

네트워크 활성화 모색, 엄홍길 씨와 교류산행 및 삼사순례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0월 24~25일 조계종 산악회(회장 엄홍길)와 함께 1박 2일간 서울 화계사 및 북한산 일대에서 워크샵을 겸한 신도단체 교류산행 및 삼사순례를 진행했다.

먼저 첫째날인 24일에는 행사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의 입재식과 함께 단체별 공동사업 논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의 환영법문과 이기흥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중앙신도회 SNS조직 활동에 대한 브리핑과 2014년 신도법개정안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다.

입재식에 이어 단체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모색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샵에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한의사불자연합회, 서울메트로법우회 등 종단등록 신도단체 11개와 유관단체 2개 총 11개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등 약 70여명이 참가했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엄홍길 조계종산악회 회장과 함께 신도단체 교류산행이 진행됐다. 산행은 도선사에서 출발해 중흥사, 노적사 삼사순례가 이어졌다.

엄홍길 산악회장은 "앞으로 신도단체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교류산행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교원, 전국 경승 초청 세미나 개최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서… '경찰 맞춤 포교법' 전수

불법(不法)을 근절하고자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해 불법(佛法)을 홍포하는 경승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조계종 경승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경승 스님 1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 이어 붓다코칭, 교류의 밤, 자유토론 등 진행됐다.

특히 붓다코칭 시간에는 박철수씨가 강사로 나서 경찰관내서 법회 방법, 경찰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 현장 포교법을 배웠다.

포교원은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처님법에 의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승 스님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에 경찰불자 및 경승 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다문화가정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혜로운여성, 11월 5~26일 전문자원봉사자교육 실시

다문화시대 속에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박순)이 운영하는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구완자)은 11월 5~26일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제8회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서정애 동국대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의 '한국 다문화 사회 이해' △불교상담교육원 교육국장 도영 스님의 '무재칠시를 통한 관계 맺기' △이옥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의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의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로 살기' 등이다.

특히 3회차 진행되는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이옥빈씨의 한국생활에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사)지혜로운여성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장애인 위한 '디지털 문화포교'가 뜬다

맹인독경음반CD, 〈천수경〉 수화동영상 등 발매

시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문화포교'가 두드러지고 있다. 불교계는 독경음반 및 동영상 등 잇따라 제작을 발표하며 장애인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이사장 강태봉)는 '서울맹인독경음반'을 출시하고, 10월 22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서 발표회를 열었다.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이 이끄는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는 성주신 · 조왕신 등에 대한 제사인 안택(安宅) 의식을 녹음한 CD를 발매한 바 있다. '서울맹인독경음반'에는 분향주, 고향게, 축원, 천수대다라니, 배청, 청사성, 각집게 등 수록됐다.

맹인독경은 불교, 도교와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합쳐진 의식으로, 고려시대부터 서울지역 맹인독경인들에 의해 발전돼 왔다. 안택의식 · 치병의식 · 천도의식 등 개인과 가정의 화평,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경문을 읊는 민간신앙이다. 지난 4월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서울맹인독경'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조계종 광림사와 행복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독경의식 재현 및 축하 음악회로 꾸려졌다. 시각장애인 박동금, 채수옥, 이수남, 이은영씨는 전통복식을 갖추고 대다라니경, 고향게, 성주선경 등 염송했다.

아울러 이날 사회를 맡은 광림사 연화원 해성 스님은 강태봉 이사장에 〈점자묘법연화경 3권〉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파일도 함께 전달했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는 '서울맹인독경음반'을 출시하고, 10월 22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서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불교 경전 〈천수경〉을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을 제작 · 배포한다.

서울맹인독경, 불교 · 도교 등 계승
축원 및 천수대다라니 등 수록
점자경전도 '음성파일'과 함께
"장애인불자도 쉽게 경전 공부"
원심회, 〈천수경〉 수화동영상 제작
11월 15일 고불식 후 1천 장 무료배포

해성 스님은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경전 포교를 하면 장애인들이 불교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시대지만 그에 맞는 장애인 포교법은 많이 뒤처진 상황이다. 불자수화통역사 부족 등 여러 문제들에 불교계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불교 경전 〈천수경〉을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원심회는 찬불가, 반야심경, 예불문 등 수화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서울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11월 15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서 〈천수경〉 수화 동영상 제작 고불식을 봉행한다. 이번 동영상 제작을 위해 원심회는 조계사와 故구자선 조계사 신도회 고문의 후원을 받아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원심회는 "불교가 청각장애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는 종교관을 심어줌으로써 청각장애인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국의 모든 사찰 및 불교관련기관에 동영상을 배포함으로써 통일된 수화 포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김경환 원심회 부회장이 직접 수화통역에 나선 DVD동영상은 1천 장이 제작돼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CD는 원심회에 별도 요청 후 받아볼 수 있으며, 동영상은 원심회 홈페이지(www.wonsim.net) 자료실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혼모자 생활시설 '도담하우스' 공식 개원

10월 28일 개원식… 1백여 명 참석



깨달음과나눔은 10월 28일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을 지원코자 마련된 도담하우스가 공식 개원했다.

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10월 28일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남인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이건호 불교도총연합회장,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진 깨달음과나눔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감사패수여, 인사말씀, 축사, 현판 제막식 등이어졌다.

감사패수여는 깨달음과나눔 측에서 도담하우스 건립에 큰 공로를 세운 이영숙 이사, 정오순 봉사자 등 4인에게 전달했다.

이매옥 이사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갖게 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미혼모자들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졌다"며 "봉사의 공덕은 항상 돌아온다는 은사스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도담하우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이끌어 갈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도담하우스는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해 출산 및 교육 등 기본생활을 전담하는 불교계 복지시설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설치기준에 따라 총 172.56㎡ 면적에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조리실, 산후회복실, 교양교육실 등 필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원내용은 분만의료혜택, 상담 및 심리지도양육, 교양 및 문화 등 실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라오스 어린이 '상상도서관'서 꿈을 펼쳐라

지구촌공생회, 10월 15일 단쌍마을서 준공식 개최

라오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15일 라오스 단쌍마을서 '상상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회봉사단체 상상포럼이 후원하는 상상도서관 준공식에는 김동일 상상포럼 회장,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 원들을 비롯해 현지 마을 주민 등 3백여 명이 함께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시에 위치한 단쌍초등학교는 학생 2백 16명이 재학 중이다. 기존 도서관은 교무실과 공동으로 사용됐으며, 학생 수에 비해 규모가 협소해 도서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상상포럼이 도서관 건립기금 2천 50만원을 후원해 19평 규모 도서관이 새로이 탄생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앞으로 1년간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으로 도서관 관리자 채용, 기자재 및 도서 지원 등 진행될 예정"이라며 "단쌍초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독서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이날 준공식서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지부장 태유 스님은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 라오스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동일 상상포럼 회장은 "상상도서관이 아이들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조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들도 함께 이용함으로써 단쌍마을의 '문화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서원했다.

한편, 상상포럼은 대전충청지역 3~40대 CEO들로 조직된 사회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및 해외 소외 계층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쌍초교 상상도서관 지원을 시작으로 취약아동계층 교육문화 확대를 위한 상상도서관을 지속 후원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지구촌공생회는 10월 15일 라오스 단쌍마을서 '상상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송산복지관, 독거노인에 라면 100상자 전달

자영업자모임 '자수성가' 후원… "유기적 관계 맺을 것"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19일 독거노인 1백 가구에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계 손길은 따뜻하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은 10월 19일 독거노인 1백 가구에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는 의정부시 자영업자 모임 '자수성가'가 후원한 물품이다.

송산노인복지관 측은 "송산복지관이 운영 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 중 독거 노인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며 "추워지는 날씨 속 따뜻한 온정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복지관 측은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자수성가와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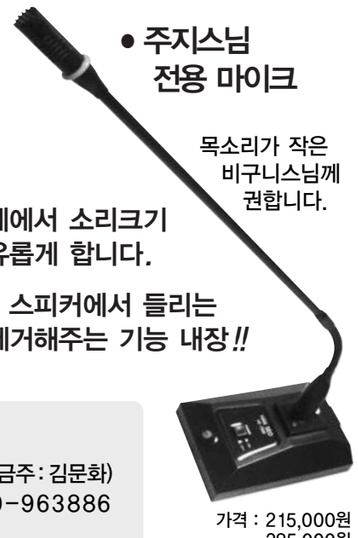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부석사 불상, '전래된 경위 불명' 인가

조계사 초청강연

김영인 중원대 초빙교수

김영인 중원대 교수는 10월 28일 조계사의 초청으로 극락전에서 '부석사 불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를 강연했다. 김 교수는 부석사불상 취등경로 등 연구 조사를 토대로 지난 8월 저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를 펴낸 바 있다. 김 교수는 "부석사 불상 문제가 한일 양국과 대마도가 공유해 온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부석사 불상이 어떻게 처음 대마도로 건너갔는지 경위를 밝히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김영인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애크런 로스쿨에서 연수했다. 국내 최초 여성 외무고시 1호 합격자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서 근무했으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과 주 튀니지 대사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중원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세계 문화 유산 약탈사〉〈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등이 있다.

복장물 · 화상 등 약탈증거 '명백'
한국불상 대마도에 130여 점 있어
불상 적법소유라는 日해명 촉구
소유권 역사 및 경위 입증해야

부석사 불상, 어떻게 귀환됐나

2013년 1월 대마도에서 일어난 부석사 불상 도난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됐을 때, 불상의 사진을 대하고 지극히 자비스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몸으로 수백 년 만에 홀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불상이 우리의 잊혀진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마을의 평범한 주민 32명이 관세음불의 연민과 자비에 의해 그들이 처한 당대 화란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간절히 빌며 봉안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고려불사이라는 예술적, 종교적 존재를 넘어 서민들의 삶의 편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서민들과 대마도의 유일한 관계를 전해주는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어떤 경위를 거쳐 다시 돌아왔을까요? 2012년 11월 초 경찰에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보급인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고려시대 동조관음보살좌상의 판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대구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도난 문화재임이 확실하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 17일, 일본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대마도에서 일어난 문화재 도난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한 문화재는 국내에서 제보된 도난 문화재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2013년 1월 23일 마산에 있는 한 냉동창고에서 불상 두 점을 압수했습니다. 화상(火傷)의 흔적이 있는 두 불상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고, 그 중 하나가 고즈나 간논지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이 바로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고려불상이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난 문화재인 만큼 즉각 반환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반환을 검토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바로 이때 국내 여론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된 불상 중 적어도 관세음보살좌상만큼은 반환 되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이 불상은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인터폴에 의뢰했던 한국 절도단의 대마도 불상 절취사건은 어느 틈엔가 일본의 한국 문화재 약탈사건으로 반전되며, 과거 수백 년 전부터 한국 문화재를 약탈했던 일본의 오랜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마도 작은 섬 안에 백 수십여 구의 한국 불상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일본인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불상이 화상으로 훼손되었고, 대마도로 건너간 경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마도 불상은 대마도의 '수상한 과거' 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혁혁한 해외진출의 원조가 되는 전설적인 왜구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논지 불상 도난사건이 야기한 중대한 당면 문제는 그간 한일 양국 간에 신경전을 벌여왔던 일본의 한국 문화재 약탈 규모를 크게 늘려 놓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나 임진왜란보다도 3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14세기 고려 말부터 자행된 일본의 조직적인 한국 문화재 약탈 전력이 만천하에 모습을 드러내며 드디어 양국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난과 약탈에 관한 국제법

수백 년 전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문화재가 절도범들에 의해 원소유국으로 되돌아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귀한 사건입니다. 도난과 약탈(입증이 되었다면)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얽힌 이 불상의 처리를 위해서 오늘날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의 규정이나 국제관행은 찾기 힘든 형편입니다.

1970년 성립된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협약' 은 1970년 이후에 도난과 불법에 의해 반입된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부석사 불상이 단순한 도난 문화재라면 한국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상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석사 불상이 약탈문화재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약탈된 문화재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천명된 '전시 약탈문화재 반환원칙' 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져 가면서 19세기 이후의 전쟁 기간 중 약탈된 문화재가 일정 부분 반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 약탈된 문화재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탈문화재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 터키,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은 과거 수백 년 전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위해 꾸준히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 같은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은 문화재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석사 불상은 우선 약탈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가 약탈을 입증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불법 문화재의 경우, 불법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국에 있으며, 피청구국은 불법이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행은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박물관협회(AAM)는 문화재의 윤리적 측면에 유의하여 불법 문화재의 협의가 일단 제기되면, 소장 박물관 측에서 먼저 그 문화재의 과거 출처 및 소유권 역사(provenance)와 입수 경위를 설명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관행은 유럽 국가들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수용되어 오늘날 문화재에 관한 한, 기증 책임은 박물관 측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간논지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고 가처분수용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 간논지 측에 약탈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하는 약탈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고, 일본은 이 불상을 500년 가까이 무사히 보존해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의 잣대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반추가 필수적입니다.

대마도서 약탈 증거를 찾다

충청남도 서산시와 비슷한 170㎢ 면적의 대마도에는 오늘날 확인된 한국 불상이 130여 구 존재합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불상을 감안한다면 대마도 내에 있는 한국 불상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의 불상들인데, 완전한 형태가 하나도 없으며 몇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전부가 출처 불명이며 대마도에 건너간 경위로 모두 불명입니다. 즉, 불상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대마도에 가게 됐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이 대마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접점에 위치한 대마도에 고려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마도를 막연히 한국과 일본의 중개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과 대마도는 어떠한 관계였기에 불탄 한국불상 130여구가 대마도 곳곳에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만이 언제 어디서 조성되어 봉안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의 조성 내력을 보여주는 문서가 불상의 복장물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고즈나 간논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부석사 불상의 복장물은 언제 발견됐을까요? 우선 불상이 대마도에 건너간 경위는 불명이지만, 대마노 간논지에 안치된 경위는 기록이 있습니다. 간논지의 벽에 '당사(當寺)의 유래' 라는 벽보에는 이절이 대영 6년(1526)에 창건되면서 이 관음상을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 복장물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1951년 5월, 당시 간논지 주지 안도 료순 스님이 먼지를 털려고 불상을 들어 올리던 중 불상 밑창의 나무판자가 열리며 복장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장물 속에는 불상의 조성 내력을 기록한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가로 45.5cm, 세로 56cm의 종이에 묵서(墨書)된 발원문이었습니다. 발원문에는 '남섬부주 고려국 서주 부석사 당주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는 결연문' 이라 적혀있습니다.

결연문은 우선 천력(天歷) 3년 2월, 불상을 고려국 서주 부석사에 봉안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1330년 2월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석사 불상은 그 조형상의 우수함과 풍부한 복장물 때문에 불교사, 미술사적으로 중요하지만, 학자들은 발원문에 의해 이 불상이 제작지와 제작연도가 밝혀진 불상이라는 점에서 고려불상의 준거로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에 남아있는 고려 후기 불상 1백여 점 중 복장물이 들어 있는 관음보살상으로는 한일을 통틀어 이 불상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은 1352년부터 왜구 침입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구에 의해 서산이 적어도 4~6회 약탈됐다는《고려사》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고려인 또는 조선인 제3자가 서산에서 불상을 입수하여 대마에 기증했을 수 있다는 가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억지 가정입니다. 기증보다는 교역을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큰 가능성과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1972년 대마도 문화재를 조사했던 일본인 학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로 간 경위가 '교역' 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불상을 약탈한 자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1978년 출판된《대마미술》의 〈조선의 불상〉 편에 나옵니다.《대마미술》은 '간 논지의 연혁' 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왜구의 한 집단이었다고 생각되는 고노씨가 창립한 간논지에 1330년 제작된 고려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구에 의한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본인 학자에 의한 이 글 역시 부석사 불상이 기증이나 교역이 아닌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 , 즉 약탈에 의해 이전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석사 불상의 손가락 끝과 가사자락 끝이 화상으로 문드러진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화상은 불상이 기증이나 교역이 아닌 전투 중의 약탈에 의해 이전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대마미술》에서도 '대마의 조선 금동불은 오전한 작품이 극히 적은데 불상의 전래에 평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았다는 사정이 상상된다' 고 적은 것으로 보아 일본인 학자도 스스로 약탈에 의해 부석사 불상이 이전됐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부석사 불상은 기증이나 무역에 의해 대마도에 건너갔다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서산에서 약탈됐음을 직접증거가 없다 해도 약탈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가사키현은 1973년 부석사 불상을 문화재로 지정한 후 최근까지도 '일본에 전래된 경위 미상' 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탈 가능성이 있는 불법 문화재를 충분한 조사 없이 현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약탈 문화재를 적극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는 형태입니다. 나가사키현과 일본 정부는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일본 측 기록을 조사해 진상 경위를 밝히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늘어나는 학계·사찰 연대, 재정 돌파구 될까?

대각사상硏 · 신흥사, 중앙승가대 · 선운사 등과 교류

최근 불교학계가 재정 · 인력적 한계 극복을 위한 연대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술단체간 연대를 넘어 사찰과의 연대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11월 4일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와 공동으로 신흥사 설법전서 '설악불교의 귀원정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대각사상연구원은 지난 4월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도 함께 공동세미나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는 서로 다른 문중임에도 활발한 사상 · 업적 비교 등이 이뤄졌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불교계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불교학회도 2014년 선운사와 월정사와 더불어 '석전, 한암 스님'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최근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이 11월 2일 중앙승가대에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연 1회 학술세미나와 특별강의 시행 등을 협의해 향후 학술단체들과 사찰과의 연대 활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학술단체간 연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2015년 한국불교학회와 밀교문화연구원이 공동워크숍을 열고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한국불교사연구소도 12월 12일 세계불교사연구소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학계의 공동개최가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영세한 불교학계의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학회 회비납부율 10%대
"문중 · 사찰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기금 모연 · 객관성 담보 장치 시급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대표적인 불교학회의 회비 납부율만 봐도 심각하다. 납부율이 30%대이면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학회가 회비 납부율이 10% 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재정적 한계로 인해 연대활동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사찰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4월 25일 평창 월정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용성과 한암' 세미나.

고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인원 동원도 문제다. 학술 행사를 하면 회원 수가 많은 학술단체의 경우 학자들이 그나마 참석하지만, 회원 수가 적은 학술단체는 채 10명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학회 세미나 참석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세미나 공동개최는 참석인원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연대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 등과의 연대활동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맞춤식 논문을 쓴느 경우가 많다. 학자든 학회든 자율성이 생명이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사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구조란 것이다.

최 교수는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다. 학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기금 모연을 비롯해 일반 불자들의 학술단체 지원과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밝은사람들, 11월 21일 제14회 학술연찬회 개최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11월 21일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를 주제로 제14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연찬회는 초기, 인도 · 티벳 대승, 중국대승 · 선, 서양철학 · 신학, 심리학 등 다섯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비' 또는 '지혜와 자비'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밝은사람들은 지난해 제13회 학술연찬회에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지혜'를 논의했고, 금번 '자비'는 이 지혜의 실천행에 대한 확장된 논의다.

구체적으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붓다가 가르친 자비' △차상엽 금강대 교수의 '인도대승 및 티베트불교-고통의 구제로서의 자비' △상도선원 미산 스님의 '중국대승 및 선불교-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이정기 서울신학대 교수의 '서양철학 및 신학-현대사회에서 사랑 공동체의 의미'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심리학-자비는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가?' 등이 발표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흔히 지혜와 자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듯이, 지혜는 자비를 통해 실천되어야 그 빛을 더욱 발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마음은 되레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자비의 발현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불교 수행전통과 호흡' 세미나

불교학연구회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서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 L301호에서 '불교의 수행전통과 호흡'을 주제로 2015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초기불교부터 응용불교까지의 호흡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깊게 다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의 '초기불교의 수행과 호흡' △김치온 진각대 교수의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의 입식출관' △이기운 동국대 교수의 '천태지관법문에서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증' △김재성 서울대 교수의 '테라와다불교의 호흡수행에 대하여' △김영덕 위덕대 교수의 '진언과 호흡'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안성두 서울대 교수,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김은희 동국대 교수, 허일범 진각대 교수, 정성준 동국대 교수 등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승격

'고려 십육나한도'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로 승격 지정예고 했다.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혜공왕 2)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불상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지권인을 취하고 있는 비로자나불 형식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를 9세기 중엽으로 보았으나, 석남사지 불상으로 인해 8세기 중엽에 '지권인을 하고 장엄이 없는 여래형(如來形)의 비로자나불'이 성립됐음이 알려졌다.

이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두와 불신의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 수준이 높아 조형적으로 우수하다. 이미 불상의 가운데 받침돌 안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蠟石舍利壺, 곱돌로 만든 항아리)가 1986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된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는 시자(侍者, 시중드는 사람)의 시봉(侍奉, 높은 사람을 모시고 받듦)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올해 지원자 발표

논문부문 박용주, 번역부문 김명우 등 3인…11월 11일 시상


박용주


김명우


구미숙


유리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실시하는 제12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박사논문 부문에는 박용주 부산대 강사의 '중론-24장 18게에 대한 명제논리적 분석'이, 번역 부문에는 세친스님의 〈유식이십론〉을 공동번역 하는 김명우 동아대 강사와 구미숙 강사, 부산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유리 씨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박용주 강사의 '중론' 논문에 대해 "중론의 사상적 문제를 현대철학적 의미로 풀어내고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존 국내 중론연구를 총정리하고 해외연구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번역부문에 대해서는 "바수반두의 유십이십론은 유식학의 토대가 되는 중요 텍스트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번역되지 못했다"며 "국내 최초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제 주석을 함께 번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우 씨 등 3인은 범어 유식이십론과 이에 해당하는 티베트어, 규기스님의 유식이십론술기 등을 공동으로 번역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특히 "단독 번역이 아니고 공동번역이라는 점에서 번역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박사 논문 분야 5명, 번역 분야 10명이 지원했다. 제12회 불교소장학자 지원 사업 수여식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도난 '성보' 숨긴 사립박물관장 집행유예

도난당한 문화재 수 백 점을 몰래 보관하고 거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립박물관장 권 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10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은사 '영산회상도'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가 물건을 사들였을 2012년 당시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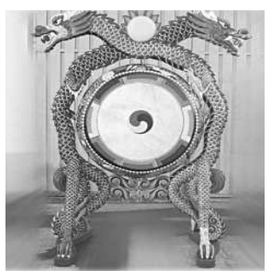
조계종은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 취득 및 장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로 보아 지금 양형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은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경찰 신고 및 백서 발간 등을 통해 도난품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 취득 혐의가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동산문화재로 분류되는 문화재 수 백점을 타인 명의로 마련한 경기 성남시 소재 지하창고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권 씨가 은닉한 문화재는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좌상 등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성보 17점과 무덤 지석 379점 등으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군산 불교 이끌 불교회관 문 열다

흥천사 10월 25일 반야불교회관 개관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주지 법희)가 반야불교회관을 개관했다.

흥천사는 10월 25일 순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 군산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 문동신 군산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불교회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시민들이 즐겨찾는 월명공원 입구에 자리잡은 반야불교회관은 대지 924㎡의 부지에 지상3층 건평 693㎡ 규모로 건립됐다.

이날 법회에서 현묵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사원을 건립하고 자비심 갖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 했다"며 "깊은 통찰력을 길러 반야지혜를 닦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법희 스님은 "앞으로 불교회관을 불자들 뿐만아니라 군산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건립취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천왕문 상량 법회



내소사와 함께 부안의 대표적 사찰인 개암사(주지 재안)에 천왕문이 들어서게 된다.

개암사는 10월 25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왕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불이교 앞에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형식으로 건립되는 천왕문은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11월 중으로 높이 약 4m의 사천왕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그동안 대웅보전 단청 불사등 개암사의 대소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께 감사드린다" 며 "부안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암사는 지난 10월 18일 산신대재와 제2회 우금문화제를 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 옴천사, 제1회 선각불교문화재



선각종 총본산 강진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1회 선각불교문화재' 를 봉행했다.

올해로 창종 15주년을 기념한 이날 행사에는 정암 스님, 자공 스님(선각종 승정원장), 벽해 스님(중앙포교원장), 원정 스님(중앙종회의장)을 비롯해 이준범 강진군 문화관광과장 등 5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옴천사에서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고, 많은 분들이 문화의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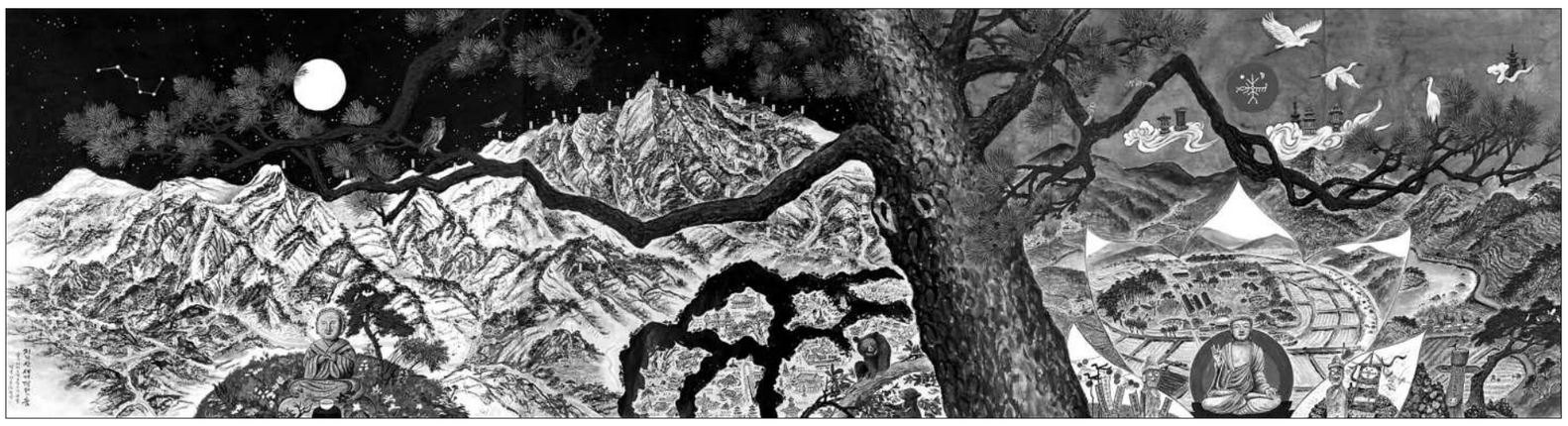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종합복지관 지역주민잔치 개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10월 26일 광산구 우산동 구민공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한가족 한마당 나눔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송광복지관이 아시아밝음공동체, 주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도제스님,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문태환 광주시의회부의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나눔 문화행사가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실상사 약사전 보물 제41호 철조여래좌상에 새로이 봉안된 후불탱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 . 이호신 화백이 그렸다.

실상사 약사여래, '지리산' 을 품다

실상사, 10월 25일 약사전 후불탱화 봉안법회

지역 · 문화 · 민중의 삶 담아낸
지리산 전도를 후불탱화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 그려

"탱화는 시대와 인간상 반영
약사여래 12대원 이뤄낼 것"

신라시대 고찰인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 약사전에 봉안된 보물 제41호 철조여래좌상에 지리산을 품은 후불탱화가 봉안됐다.

실상사는 10월 25일 약사전에서 철조여래좌상 후불탱화 봉안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봉안된 약사전 후불탱화는 기존의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탱화와는 다르다. 지리산의 사계와 문화를 그림을 통해 풀어냈기 때문이다.

생활 산수화로 유명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그린 후불탱화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 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한지에 혼합채색했으며, 가로 690cm, 세로 184cm인 대작이다.

'지리산 전도' 를 표방한 후불탱화는 남원 와운리의 '지리산 천년송' 이 화면 중심에 있고 좌우로 나눠져서 지리산의 풍광이 펼쳐진다. 또한 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 생태가 조화롭게 배치돼 있으며, 농사를 짓는 사람과 자동차, 애완동물 등 생활상도 그려졌다.

전체적으로 진경산수화기법으로 그려진 후불탱화는 산세만 농묵으로 처리돼 있고, 주제는 먹선으로만 표현했으며, 사계절의 생태가 전부 보여지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작품 조성에 대해 이 화백은 "이번에 조성한 탱화는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앉은 불상의 뜻을 역사적으로 기리고, 오늘의 현실을 살피며, 미래를 향한 부처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면서 "21세기 불교회화로서 종교를 넘어서 만인에게 공감을 주는 새 시대정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법회에서 실상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응묵 스님은 이번 탱화가 우리 시대 불국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조실 월주 스님은 격려 법어를 통해 "탱화로 장엄된 약사여래는 모든 중생이 무명심을 타파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약사유리광 불국세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을 세운 분"이라면서 "오늘 후불탱화 봉안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불보살임을 깨우치는 일대사가 이뤄지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주지 응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탱화들 역시 지난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약사여래 후불탱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 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부처님, 보살님, 천신들, 호법성중의 모습" 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불탱화를 봉안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탱화에 담긴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의왕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약사여래 12대원에 담긴 대자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부대중의 원력이 되고 삶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통일 · 생명평화 기원하고 추수 기쁨 맛보고

전남 · 전북 불교계 벼베기 행사 잇달아

화엄사 통일쌀 추수 행사 개최
생명평화실천단, 생명평화 벼베기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은 10월 24일 '생명 · 평화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다.

화엄사(주지 영관)는 쌀값 안정과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작한 6만 6천 제곱미터 쌀을 10월 23일 수확했다.

화엄사와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가 지난 2007년 발족한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화엄사 소유 토지에서 총무국장 효광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구례군 농민회, 장애인복지관 법현스님 등 100여 명이 동참해 벼베기를 진행했다.

이날 수확한 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전해질 예정이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 소유의 20,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경작해 왔다. 2007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상당의 통일쌀을 농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논에서 '생명 · 평화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벼베기에 동참한 청소년 22명과 지도교사들은 지난 6월 직접 심은 약 400평의 논에서 직접 벼를 수확하는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다.

벼베기 행사에 직접 참가한 박세빈(전주제일고 1학년) 학생은 "내가 직접 심은 모가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벼가 된 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색다르고, 감동 받았다"며 "가뭄으로 벼농사가 잘 안 됐을까봐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자라서 벼가 된 걸 보니 그 동안 열심히 키워주신 농부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확한 벼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붓다로살자 전북모임 등의 후원을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발굴 공모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운영하는 로터스갤러리가 지역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

로터스갤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4회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공모' 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만화, 디자인, 공예, 의상, 건축 등 시각예술분야 10여 명으로, 광주?전남지역 거주 35세 이하의 신인작가는 참가 할 수 있다.

로터스 갤러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 작가들이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신인작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품을 전시하며, 소정의 전시지원비와 공간, 인쇄물, 사인물,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100원으로 어려운 이웃에 희망 전해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부, 10월 23일 희망불씨 콘서트

1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생명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0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2006년부터 시작한 희망불씨 콘서트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콘서트에서는 부산불자들에게 희망저금통을 배부하고 난치병 환우를 위한 모금 활동 및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활동 홍보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자인 스님(길상사), 부본부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혜우 스님(약수사), 정관 스님(원오사), 주석 스님(대운사)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콘서트 1부 ‘희망의 메시지’는 10년 동안 기부에 동참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해동고 파라미타에게 생명나눔 표창장이, 홍보이사 혜산 스님, 이사 신성애에게 부산광역시 시장상이 수여됐다. 해동고 파라미타와 개인택시불자회는 생명나눔기금을 본부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에 동참했다.

2부에서는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월호 스님은 “생명나눔활동 동참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에서는 유전성 혈우병을 앓고 있는 5세 정태승 환아의 사연이 소개돼 좌중

10돌 맞은 난치병 환우 돕기

100원의 작은 정성 모아 기부

1000여 부산불자 한마음으로 축하

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불자들은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편마비 및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병원 치료비 뿐 아니라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다.

콘서트는 이어 수월 스님의 무대를 시작으로 MBC 강변가요제에서 데뷔한 불자가수 김혜정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혜정 씨는 자폐아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장애



‘제10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현장에서 모금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

우들과 환아들을 위한 기부 활동과 모금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 연주자들의 모임 ‘음악대륙 가이아’의 화려한 공연으로 무대는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참가자 김희정(56)씨는 “오늘 콘서트는 눈과 귀가 즐거울 뿐 아니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며 “환우들을 위해 노력하는 생명나눔의 활동을 더 많은 불자들이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본부장 원범 스님은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 모든 것은 작고 적음에서 시작한다. 100원에 담긴 희망메시지가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의 치유는 물론 자살예방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장기기증 결연, 헌혈증 지원, 자살예방 및 난치병 환우 돕기 등을 통해 생명존중 및 복지 사회를 위해 활동해왔다. 매월 두 명의 환우를 선정하고 치료비를 전달한다. 2015년에도 총 7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하성미 기자

“만유가 부처, 화엄세상 ‘사경’ 하며 지혜 구하길”

〈화엄경 사경〉 편찬한 대강백 무비스님

한국 최초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집필 중인 무비 스님이 〈화엄경 사경〉을 편찬했다. 10월 27일 범어사 염화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비 스님은 사경본을 편찬 한 것은 화엄경 강설과 함께 사경 수행으로 더욱 깊이 있게 불자들이 공부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무비 스님은 2014년 4월 〈세주묘엄품〉을 시작으로 현재 화엄경 총 81권 중 30권까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발행했다.

이번 사경집은 〈대불강설화엄경 강설〉 발행에 맞추어 모두 81권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발행된 사경집은 1~10권으로 〈세주묘엄품〉에서 〈화장세계품〉 까지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사경집은 처음 사경을 접하는 이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각 한자에 음과 뜻을 달고 한문 문장에는 한글로 풀어 설명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왔다.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는 법공양으로 사경집을 오랫동안 제작했습니다.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사경을 하는 즉시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0권 구성, 초심자 배려

각 한자 음달고 한자로 풀어서

“사경은 참선과 같은 효과”

무비 스님은 “사경은 집중력 뿐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알아 인격의 변화까지 얻을 수 있는 참다운 공부법”이라고 강조했다.

“사경참선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불교에는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사경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경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돕고 지혜를 불러 일으킵니다.”

한편, 1943년 영덕에서 출생한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하여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10여 년 선원생활을 하고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150여 스님과 250여 재가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신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 〈법화경 강의〉, 〈임제록 강설〉 등 40여 권의 책을 냈으며 현재 80권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집필 중이다.

하성미 기자


대강백 무비 스님은 〈대불강설화엄경 강설〉 발행에 맞추어 사경집 81권을 만들 계획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스님은 화엄경의 보살도 실천과 사경 수행을 강조했다.

2015부산불교합창제 11월 11일 개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조옥자)는 11월 11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2015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합창제에는 범어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홍법사 불광 · 깐따모레 연합합창단,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영주암 · 금강암 연합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남성 아카펠라 ‘클럽 부띠스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지역 뿐 아니라 충북 불교연합합창단,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합창단 등도 대거 참가한다.


2014년 합창제 모습

조옥자 회장은 “아름다운 해조음의 향연 속에서 을미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설계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으로 합창제를 열고자 한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재가중심 법림대구선원 10월 24일 개원

재가자 중심 법림대구선원(선원장 이제열)이 10월 24일 대구 남구에서 개원했다. 법회에는 임병헌 남구청장과 지역기관단체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희국 국회의원,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장, 임문우 대구경북대불련회장 등도 참석해 법림대구선원 개원을 축하했다.

이제열 선원장은 “재가신행조직 법림은 재가중심, 수행중심, 정법구현, 자비실천으로 대구지역에서 불교포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수행결사체 법림은 지난 1991년 이제열 법사에 의해 창립돼 그동안 신행혁신, 정법교육 등 재가운동을 추진해왔다. 2014년 전국 법림 임원회의를 통해 대구선원 개원을 추진해왔다.

법림은 향후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선원을 건립하고 재가 신행문화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경전연구원 설립과 새로운 재가 포교전략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053)628-0108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중악은빛 산사음악회 열어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4일 경내에서 창건 1206주년 개산대재와 중악은빛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대재에는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대구가톨릭대 정호규 교수(신부) 등 2000여 대중이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하나가 우주요, 우주가 곧 하나’라는 깨달음의 정신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은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정숙 관음물산 대표는 장학금 및 교구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교구장 돈관스님에게 전달했다. 식후 작은음악회로 선화여고 관악부 댄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은 “은해사의 광명으로 눈부신 이 뜻 깊은 날에 함께 자리한 일체의 모든 불자들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이루길 바란다”며 “모든 인류가 자기의 본래 면목 주인공을 찾고 생각하면서 멋진 세상을 살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응공조계종, 상해 용주사와 교류 논의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0월 22일 중국 상해 용주사(주지 당가)에서 포교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월 20~24일 진행된 중국 성지순례 중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 의원 혜담 스님, 홍원 스님, 수덕 스님, 해산 스님 등 응공조계종 신도 30여명과 용주사 주지 당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서 응공조계종과 용주사는 신도 친선방문 및 교류 정례화를 약속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치악산 구룡사의 단풍은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특히 일주문 격인 원통문에서 사찰 경내로 들어가는 길은 가히 선경이라 불릴만큼 울긋불긋한 단풍이 만산홍엽의 풍광을 자랑한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구룡사 대웅전과 경내모습.



사찰입구에는 수백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주위를 온통 금빛으로 물들였다.

오색단풍과 山寺의 절묘한 조화… 마음까지 붉게 물든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

치악산 구룡사

치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손꼽힌다. 특히 일주문서 구룡사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곡의 단풍이 곱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1년 중 치악산 탐방객이 가장 많은 시기도 단풍철이다.

치악산 단풍은 우뚝우뚝 치솟은 침엽수림과 어우러져 자아내는 단풍빛이 신비하리만치 오묘한 것이 강점이다. 치악산 단풍은 구룡사 계곡과 태종대, 향로봉 및 비로봉 구간이 단풍명소로 꼽힌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아 산마다 그 어느 해보다 단풍 빛깔이 곱다. 단풍 길에서 느끼는 모처럼의 여유는 힐링 그 자체다.

치악산(1288m)은 예로부터 산이 깊고 험해 호랑이가 많았다. 산세가 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산이다. 오죽했으면 '치가 떨리고 악에 받쳐 치악산' 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법이다. 치악산 북쪽 정상인 비로봉으로 가는 길목에는 수려하고 울창한 숲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룡사 앞 구룡계곡이다.

10월 26일 치악산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전국서 단풍객들로 인산인해다. 단풍으로 유명한 치악산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구룡소와 세렴폭포를 안고 있는 구룡계곡 단풍길은 단연 최고의 가을선물이다.

실제 치악은 가을단풍이 무척 곱고 아름다워 붉을 적(赤)자를 써서 적악산(赤岳山)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꿩의 보은설화가 유명해지면서 꿩 치(雉)자의 치악산이라 바뀌 부르게 됐다.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꿩을 구해준 선비와 생명을 바쳐 은혜를 갚은 꿩의 보은설화는 지금도 치악산 상원사 벽화로 전해진다.

치악산 구룡계곡은 구룡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서부터 바로 시작된다. 단풍숲길 감상에 앞서 초입서 꼭 봐야 할 것이 금강소나무다. 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 바로 왼쪽에 강원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황장금표가 있다. 이 표는 조선시대에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벌목을 금지한 표식이다. 덕분에 치악산에는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질 좋은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지금도 무성하다. 약 900m에 걸쳐 수령이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숲터널 이룬다. 속이 붉고 단단한 금강소나무는 껍질이 붉다고 해서 적송, 아름다운 자태로 인해 미인송으로도 불렸다. 껍질이 호랑이 가죽 무늬를 닮은 금강송은 구룡교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구룡사 일주문 앞서 절정을 이룬다. 본격적인 단풍 감상은 일주문 부터이다.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 갈색 등 팔레트에 물감을 묻혀 나뭇잎에 칠해 놓은 듯 울긋불긋 참 곱다. 원통문이라 현판에 붙여진 목조의 일주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원통문이 사바세계와의 경계이듯 문을 들어서면 선경이 펼쳐진다.

예전에 폐교 자리를 지나 10여분 걷다보면 어느새 담장 위 구룡사의 가람이 위용을 자랑한다. 구룡사 앞에는 수백년동안 여여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선 커다란 은행나무가 관람객을 맞는다. 신비롭고 신령스럽다. 온 몸과 주변은 노란 은행잎이 지천에 깔려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5분여 그 풍광을 감상하고서 있으려니 연실 주변서 핸드폰 카메라로 그 가을을 주워 담으려 셔터를 눌러댄다. 세월이 변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묵묵히 서 있는 저 은행나무 만이 변화된 세상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자신을 찍었던 것이 필름 카메라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아니 핸드폰 카메라라는 것을.

치악산의 으뜸 봉우리인 비로봉에서 학곡리 쪽으로 6㎞ 떨어져 있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
구룡사엔 아홉 마리 용의 전설 전해져
절입구 조선시대 조성된 부도군 '눈길'
'구룡소' 는 치악산 최고의 단풍 명소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대웅전 자리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九龍寺)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칭인 구룡사(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치악산구룡사사적〉에 따르면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강희45년 글자가 새겨진 와당이 출토되어 숙종 32년(1706)에 구룡사가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 앞 좌우에는 서상원과 보광루, 적묵당, 심검당의 승사가 있으며 이밖에도 원통문, 국사단, 사천왕문, 범종각, 응진전 등이 있다.

절 입구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부도군이 있고, 또 구룡사의 전설을 말해주는 거북바위와 폭포아래에 용소가 있다. 구룡사에는 의상 대사와 아홉용에 얽힌 전설이 전해온다. 원래 대웅전 자리에는 연못이 있었다. 그곳에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 의상은 그 연못 자리가 좋아,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려고 용들과 도술시합을 했다. 용들이 먼저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뇌성벽력이 치고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 용들이 흐뭇해하며 주변을 살피니, 의상은 비로봉과 천지봉에 줄을 걸어 배를 매놓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다. 다음은 의상이 움직였다. 부적을 한 장 그려 연못에 넣었다. 그러자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용들이 뜨거워 날뛰었다. 그때 놀란 용 여덟 마리가 절 앞산을 여덟조각 내면서 동해로 도망치고, 한 마리는 눈이 멀어 계곡의 못에 머물렀다. 그래서 절 이름도 구룡사(九龍寺)라 했다.

세월이 흘러 절이 퇴락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졌으니 그 혈을 끊으라 했다. 그대로 했더니 절이 더 힘들어졌고 폐사가 되려 했다. 이번에는 한 도승이 나타나 훈수를 했다. 거북의 혈맥을 끊어서 절이 쇠락해졌으니 다시 그 혈맥을 이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절 이름을 구룡사(龜龍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치악산의 명물 단풍숲은 이 구룡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구룡사를 지나자마자 곧 나타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구룡소' 는 치악산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의상대사에 의해서 쫓겨난 용 중 한 마리가 미처 멀리 못 가고 근처 연못으로 급히 도망을 간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폭포는 작지만 그 앞의 소는 깊고 넓어 신비롭다.

이 구룡소는 치악산 8경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가을철이면 그 무엇에도 비할 데 없는 최고의 비경을 선사한다. 가을햇살을 받아 선홍색으로 빛나는 단풍잎은 마치 스스로 발광하는 생명체처럼 경이롭다. 이곳 오색단풍은 암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가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용소에 비쳐지는 가을의 서정이 단연 백미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아름다운 물감을 풀어놓은 것일까. 인간의 솜씨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절정의 풍경이다.

그 눈부신 가을 풍경에 반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구룡소를 지나 단풍으로 물든 계곡을 발 아래 굽어보며 낙엽길을 걷는 것도 운치 있다. 아쉬움을 털고 마저 걸음을 이어간다. 숲속 넓은 공터에 자리한 대곡야영장을 지나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면 그 끝에 세렴폭포가 수줍은 듯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세렴폭포는 2단으로 휘어져 떨어지는 환상적인 물줄기가 일품이다. 폭포 주변의 바위에 걸터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해도 좋다. 이곳은 구룡계곡의 끝이지만 본격적으로 치악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렴폭포 앞으로 난 철제다리를 건너면 된비알을 따라 정상인 비로봉까지 오를 수 있다. 10월에는 가만히 있기엔 좀이 쑤신다. 그냥 나서보자. 어느 산이든 붉게 물든 곳이면 어디든지 말이다.

원주 구룡사=김주일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미얀마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다산, 호남 佛·儒 교류 다리를 놓다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⑥ 다산 정약용 ㊦

1801년에 다산은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첫 유배지 장기에서 한양으로 압송, 모진 핍박에 시달렸지만 이렇다 할 협의를 찾지 못하자 다시 강진으로 이배(移配)된다. 이런 배려는 수렴청정하던 정순황후의 작은 배려 덕분이었다.

막상 강진에 도착해 보니 다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하고 어려웠던 듯하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그의 〈상예사전서(喪禮四箋序)〉에 자세한데 이는 "그곳 백성들은 유배 온 사람 보기를 마치 큰 해독처럼 여겨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조차 마주하기를 꺼려했던 죄인, 다산에게 "한 노파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서 살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겨우 거처를 정했지만 다산의 처지는 "창문을 닫아걸고 밤낮으로 혼자 있게 되었다. 누구와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시의 그의 사정은 '객중서회(客中書懷)' 에 자세하다.

북풍에 흰 눈처럼 불어 날리어(北風吹我如飛雪)
남으로 강진 땅 주막집에 이르렀네(南抵康津賣飯家)
산이 바다를 가려주니 다행이고(幸有殘山遮海色)
대나무, 꽃으로 삼을 수 있어 좋구나
(好將叢竹作年華)
풍토병이 있는 땅이지만 오히려 겨울에는 줄어들고
(衣緣地　冬還減)
근심이 많은 밤, 술을 더욱더 마시네
(酒爲愁多夜更加)
나그네 수심을 그나마 녹이는 건(一事　能消客慮)
납일 전에 피는 붉게 동백꽃이라(山茶已吐臘前花)

다산은 바람에 날리는 흰 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는 존재, 그렇게 강진 땅에 이른 것이지만 자신의 뜻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인(大人)의 마음가짐은 소인배와 다른 법이다. 현실을 인식하고 풀어나가는 다산의 태도는 달랐던 셈이다. 바로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있고 우거진 대나무가 있었기에 좋다는 그의 배포는 본받을 만한 선비의 여유이며 결기이다.

습한 곳에 흔한 풍토병도 기세가 꺾이는 겨울이었기에 긴 밤을 망우주(忘憂酒)로 달랬던 그는 겨울이라 풍토병이 기승을 부리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 듯하다. 더구나 그의 수심을 녹여주는 납일 전에 피는 붉은 동백꽃이 있음에랴.

아무튼 지방관의 횡포가 도를 넘었던 시절, 황칠(黃漆)을 공납하던 백성들의 고초를 직접 목도한 그는 '황칠(黃漆)' 에는 고초에 시달리는 백성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냈다.

〈중략〉
공납으로 해마다 공장(工匠)에게 통보되는데
(貢苞年年輸匠作)
징수하는 아전의 농간을 막을 길이 없어
(胥吏徵求奸莫防)
토민들은 이 나무를 나쁜 나무라 지칭하여
(土人指樹爲惡木)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베어내네
(每夜村斧潛來　)
〈중략〉

황칠나무를 나쁜 나무라 부르는 백성의 뜻이나 밤마다 몰래 황칠나무를 베어 죽여야했던 백성의 고통은 문정의 혼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다산은 이용후생에 관심이 높았다. 그가 농기구 개량이나 농사법에도 깊이 연구했던 사실은 그의 〈탐진논가(耽津農歌)〉에서 "남쪽에선 아이들도 한 손에 짧은 가래라(南童隻手持短鍤)/ 논 갈고 멀리서 물대기 수월히 하네(容易治畦引灌遙)"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강진으로 유배된 후, 가장 먼저 예학의 연구에 매진했다. 이는 〈상례사전(喪禮四箋)〉과 〈상례외편(喪禮外編)〉의 편찬에서도 드러난다. 예학의 중요성은 '상례사전서(喪禮四箋序)' 에 "예란 천지의 정이니 하늘에 근본을 두고 땅을 본받아 예가 그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예는 천지의 정이므로 성인이 이것을(예) 꾸미고 다듬었을 따름이다(禮者 天地之情 本於天 ㅇ於地 而禮行於其間 禮者 天地之情 聖人特於是爲之節文焉已)"라고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진 유배시절 예학 등 학문 매진
대흥사 · 백련사 학승들과 교우 돈독
이암 혜장, 다산을 스승으로 모셔
불서에도 해박… 당시 巫風 비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송재소 선생은 다산이 유배 초기에 상예(喪禮)와 제례(祭禮)의 연구에 천착한 것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벗기 위해 예학에 관심을 두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따라서 다산은 유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신과 탁마에 열중하였으며 강학을 통해 몽학(蒙學)의 새로운 인연사를 펼쳤기에 그에게 강진 시절은 명성과 정치적 추락을 함께 경험한 시기이라 하겠다.

후일 자신의 의지를 담아 "생각이 맑아야하고(思宜澹), 외모는 장엄해야 하며(貌宜莊), 말을 적게 하며(言宜認),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動宜重)"라고 불렀던 사의재(四宜齋)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비의 도리를 잊으려는 다산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산은 무료함과 답답함을 달랠 수 있었던 힘은 저술과 몽학이었다.

사의재 시절, 다산은 황상과 황경 형제뿐 아니라 황지초, 이청, 김재정 등과 같은 평민과 중인의 자제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특히 황상은 다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종신(終身)토록 사제의 인연을 이어갔던 인물이다. 이들의 인연은 후손까지 이어졌으니 이는 1845년에 맺은 정황계(丁黃契)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유산은 황상에게 추사와 그의 형제들, 권돈인과 허련 등을 소개하여 그의 교유 폭을 넓히게 하였으니 이는 1849년경의 일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머물던 다산초당(사진 위)과 사제 관계를 맺은 이암 혜장과 만나 교류했던 강진 백련사(사진 아래). 다산은 유배 시절 자신의 학문 세계를 완성해 갔으며, 불교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그는 이들을 통해 초의의 높은 수행력뿐 아니라 차에 대한 안목을 들었을 터이다. 더구나 시에 밝았던 그였기에 초의가 시로서 경향에 알려진 내력 또한 알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가 지은 '초의행' 에는 40년 만에 만난 초의의 모습을 "기유(1849)년에 열수에서 돌아와 초의가 계신 대둔사 초암으로 찾아갔는데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깊어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고 과연 초의인가 하는 의심이 없어졌다(今年己酉 自洌水還訪 草衣於大芚之草庵 雪髮皺皮 乃無始來 未覩之人也 聽其言跡其行 果草衣無疑也)"라고 하였다.

이후 이들의 교유는 더욱 공고했으며 "추사 선생이 보낸 수묵 '죽로, 명선(　見秋史先生所贈水墨竹爐茗禪之畵)' 을 빌려다 보았다고 하니 이들은 처음 만난 것은 1809년 다산초당이었다. 당시 초의는 운흥사에서 대흥사로 거처를 옮긴 후, 다산초당으로 다산을 찾아 간 해이니 여기에서 처음 만난 셈이다. 이미 아암을 통해 다산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초의가 다산초당을 찾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초의와 다산을 연결한 아암 혜장은 어떻게 다산과 교유했던 것일까. 그 연유를 살펴보면 다산이 아암혜장(1772~1811)을 만난 것은 1805년 봄이었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빛이 되는 인연이었다. 당시 아암은 대흥사의 이름난 학승이었고 주역에 밝았으며 시에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시와 주역에 밝았으므로 이에 대한 자신감도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1805년경에 백련사에서 머물던 아암은 다산의 높은 학예의 경지를 흠모하고 교유하기를 갈망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산의 '아암장공탑명(兒菴藏公塔銘)' 에 "내가 강진으로 귀양 가 5년째 되는 해 봄에 아암이 백련사에 와서 지냈는데 몹시 나를 만나보고자 하였다(余謫康津 越五年春 兒菴來栖于白蓮社 渴欲見余)"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의 첫 대면은 극적이었다. 1805년경에 다산은 백련사를 찾아가 한 나절 가량이나 아암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산이 돌아간 후 자신과 담소하던 인물이 다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암은 종종걸음으로 다산을 ◎아가 "공은 정대부 선생이 아닙니까. 저는 밤낮으로 공을 뵙고자했는데 공께서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난 이들은 하루 밤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었다. 〈주역〉에 대해 누구보다 밝은 식견을 지녔다고 자부했던 아암의 승복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하루 밤 사이에 다산의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에 탄복한 아암은 "우물 안 개구리와 초파리는 실로 스스로 슬기로운 체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였다.

이후 다산과 아암은 서로에게 이로운 인연을 엮어나갔는데 이는 다산에게는 자신의 뜻을 피력할 제자들을 얻은 것이며 아암은 다산의 높은 학문의 향훈(香熏)을 누린 연유였다. 실제 다산의 사의재 시절에 든든한 후원자는 아암과 그의 문도들이었다. 고성암 보은산방에 거처를 마련하여 스승을 편하게 묵게 한 배려는 아암이 스승에게 보인 존경의 표현이었을 것이며, 자신이 만든 차를 보내 풍토병에 시달리는 다산의 심신을 위로했던 것은 다산에게는 행운이었다. 실로 다산이 차의 깊은 삼매를 이해한 것이나 차를 실용화하는 방책을 낼 수 있었던 동인(動因)은 바로 아암이었다. 아울러 다산과 전등계 제자들의 끈끈한 학연도 아암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아암과 다산이 만든 유불의 학연은 백련사와 대흥사에 학문의 심연을 깊게 판 일이었던 것이다.



다산초당에 다산 정약용이 새긴 글씨. '정석(丁石)' 이라 쓰여 있다. 특별한 뜻은 없으나 아마도 자신의 돌임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산은 불서(佛書)에도 해박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초의에게 보낸 글에서 "불서를 보니 여러 가지 화두는 사람에게 의심을 일어나게 만든다. 그 구경(究竟)의 법이란 모두 적멸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어찌 심신에 보탬이 있겠는가"라고 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산은 불가에서 화두의 궁극이 적멸로 들어갈 뿐 자신을 닦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뿐 아니라 신헌의 〈금당기주〉에 실려 있는 다산이 초의에게 준 증언에서 "법신이란 유가에서 대체라 하고 색신은 유가에서는 소체라고 한다. 도심을 불가에서는 진여라 하고 인심은 불가에서 무명이라 한다. 덕성을 높이는 것을 너희는 정이라 하고 도를 묻고 배우는 것을 너희는 혜라고 한다. 피차가 서로 합당하지만 (유가와 불가의 견해를)서로 섞어 쓰지는 못한다. 다만 불가에서 요즘 무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만하다(法身者 吾家所謂大體也 色身者 吾家所謂小體也 道心汝家所謂眞如也 人心汝家謂之無明 尊德性汝以爲定 道問學汝以謂慧 彼此相當 互不相用 但汝家近日巫風太張 是可惡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산은 불가의 교리에도 정연한 논리로 그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불가에서 만연된 무속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다산은 초의뿐 아니라 학문적 소양이 있는 승려들에게 학문의 방법이나 시학뿐 아니라 역사를 편찬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유불의 학문적 교유는 이처럼 은덕이 깊고 넓었다. 그가 해배되어 돌아간 후에도 해남, 강진 등에 포진된 그의 제자들에 의해 유불간의 교유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가 뿌린 인연의 씨앗은 넓은 그늘을 이룬 조선 후기 유불교유의 풍성했던 인맥을 형성하게 만든 실질적인 토대였던 셈이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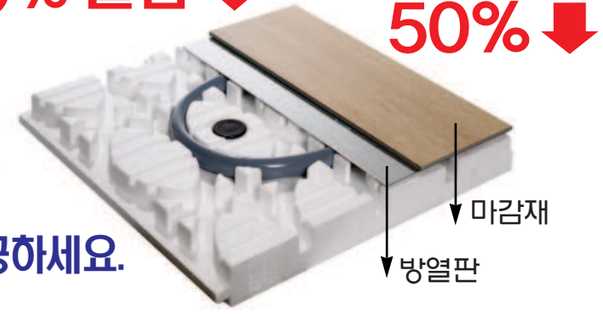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꼰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이리 저리뛰는 마음, 달랠 주문 갖고 계신지요?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㉔ 긴고아를 찬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수행원 겸 제자이던 손오공 잃은 현장법사, 앞길이 막막하다. 바로 이렇게 앞길 막막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지. 진실한 수행을 이어나가는 현장법사의 앞길이 이렇게 막힐 리가 있나. 관세음보살님 노파로 화현하여 나타나, 부처님이 주신 쇠고리를 전해주며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여기 죽은 제 아들이 입던 무명옷 한 벌과 금고리 두른 두건이 있습니다. 마침 인연이 닿았으니 스님께 드리리다. 제가 제자 따라가 설득하여 돌려보내 드릴 테니 이 모자 씌우고 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딱 붙들어 매는 진언(定心呪)이 있어요. 고리를 조이는 진언(緊箍呪)이라고도 하죠. 이 정심주 잘 외우고 계시다가 옷을 입히시고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거든 주문을 외우세요."

한편 성질내고 떠난 손오공 웬일인지 마음이 편치 않다. 한 번에 화과산 수렴동으로 가지 못하고 예전에 행패깨나 부렸던 동해 용궁에 들려 사정을 이야기하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마침 벽에 장량이 황석공에게 세 번 신발을 주어 바치던 그림 있어 손오공이 그림의 의미를 묻고 용왕이 그림을 설명하며 은근히 손오공을 달랜다.

이번에도 제천대성께서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당나라 성승을 도와 불경 가져오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국 요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화남으로 앞길을 망치지 마세요.

손오공도 생각이 있다. 고통 겪을 만큼 겪어 철도 조금 들었다.

올바른 길에 마음을 냈던 터이라 선근(善根)도 심겨졌다. 스스로를 잘 달래 마음을 돌린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 당나라 스님 모시고 가야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관세음보살 만나니 더욱 마음 뜨끔하여 변명을 하곤 부랴부랴 현장법사 찾아 돌아온다.

또 다시 여차저차하여 금고리 두른 두건과 옷한벌 발견하고 현장법사의 꼬드김에 옷입고 두건 쓴다.

애고고~ 손오공아~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현장법사 긴고주에 떼굴 떼굴 성나서 고리 모자 벗기려 하니 이미 골수에 뿌리를 내렸네.

현장법사 한 대 치려다 또다시 떼굴 떼굴 부처님과 보살님의 솜씨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되었구나. 다시는 스승님께 행패부리지 않고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이리하여 우리 마음 원숭이 손오공 불보살님의 힘에 의해 도망갈 길이 막혔으니 이걸 불퇴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을까?

현장법사, 든든한 제자이며 충실한 수행원이던 손오공을 잃었으니 정말 앞길이 막막하네요. 있다가 없으니 더더욱 아득한 심정일 겁니다. 원래 없던 것보다 더 심한 박탈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찌 어찌 마음이 바른 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금방 그 길에 익숙해져서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수없이 일 치르고, 헤매가면서 나가야 할 머나먼 수행의 길이 있겠지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문제지요. 어? 이렇게 말하고 보니 말이 되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 앞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 또 말하는 말하고 말이 되는 말은 뭔지…헷갈리네요. 그래서 헤매니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하~.

그런데 불보살님은 이런 정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듯 하네요. 관세음보살 출발할 때 부처님이 주신 쇠고리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지요. 그걸 전해주면 해결될 일…. 그런데 보살님께서 그걸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불경스런 일이 되겠지요?

초발심 후에도 수행에는 번뇌가 나와
현장 떠난 손오공은 이런 번뇌심 의미
관음보살 마음 다스리는 진언 전해

"마음 원숭이 그놈이 그리 쉽게 길들여지리라 생각할 수 없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 먹을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았지. 아마도 여차저차하여 그 녀석 다시 돌아올게다. 그런데 이참에 앞으로도 이런 일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자꾸나. 여기 쇠로 테를 넣은 두건이 있지. 그게 어울리는 옷도 한 벌 있고. 손오공 돌아오거든 이 모자 씌우고 옷을 입히거라.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것인데 말이야, 마음을 딱 붙들어 매는 주문이 있어. 요걸 잘 외워 두어라. 그리고 손오공 두건 씌우고 옷 입혔거든 한번 외워 보거라. 쇠테가 그 녀석 머리를 파고들며 조여 댈 테니 아파서 떼굴 떼굴 구르게 될 게다. 앞으로도 말 안 듣는 경우 써먹으면 되니 한번 호되게 맛을 보여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음흉하게 흐흐~ 웃으신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사기꾼에 음모가 냄새가 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한답니다. 좀 불경스럽지만, 너무 경건주의에 얽매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가끔 좀 불경스럽게 상상해보면서 웃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종교적인 경건성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새롭게 얻는 것도 참 많답니다.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앞에 좀 불경스럽게 이야기를 꾸미는 속에도 몇 가지 취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데는 좀 극단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정말 독한 처방을 써야 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살살 구슬러서 그 독한 처방을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것은 마음을 잘 달래서 친구처럼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놈의 마음이 정말 어깃장을 심하게 놓을 경우, 어찌해 볼 수가 없을 경우, 그런 때는 독한 처방이 필요하지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독한 처방 하나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달래다 달래다 안 되면 어떤 처방을 쓰시나요? 긴고주처럼 마음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주문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해 보심이 어떨까요?

아무튼 현장법사는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손오공을 구속할 쇠테두리와 정심주를 받습니다. 쇠고리는 적당히 모자의 테두리로 변신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그 쇠테두리를 조일 수 있는 정심주를 전해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긴고주라 한다던가요? 뜻을 풀면 정심주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주문이요, 긴고주는 테두리를 조이는 주문이네요. 머리에 쓴 테두리를 조여서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하는 주문이지요. 그리고 손오공은 우리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항복받아 방황을 그치게 하는 주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구요.

그렇게 해서 손오공을 길들일 준비는 되었습니다. 문제는 손오공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장법사 재주로는 손오공을 잡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손오공이 제 발로 돌아오네요. 보살님은 그렇게 제 발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계셨구요.

흠~. 그 천방지축 손오공이 어찌 제 발로 돌아올까요? 서유기 작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있지요. 올바른 길로 마음을 낸다는 것,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발심한 공덕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손오공만 해도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무려 500년을 오행산 밑에 깔려 지냈습니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괴라는 존재를 넘어서 참된 신선이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현장법사를 따라 나서게 한 동기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옳은 길을 향해 한번 일으킨 마음,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대로 사그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법문중에 들어와 일으킨 큰 서원, 어떤 때는 서원의 존재도 잊고 살기도 하고, 한없이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처되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부처 이루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좀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거룩하게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추임새를 넣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천둥벌거숭이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원숭이 손오공, 그대로 휙하고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발길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패부리며 여의봉 빼앗기도 했던 동해의 용궁에 슬며시 들려봅니다. 동해용왕, 손오공 다시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손오공이 불문에 들었고, 현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인도로 불경 가지러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 대접하며, 그런 분이 왜 인도로 가지 않고 여기로 들렸느냐 물을 수밖에요. 손오공이 여차저차해서, 성질이 나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벽에 걸린 그림이 손오공 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를 그린 그림이네요. 황석공이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지나가던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시킨 이야기죠. 세 번이나 그런 심부름을 반속해서 시켜도 장량은 전혀 안색도 변함없이 공손이 주어다 드렸다 하지요. 그 심성을 인정하여 황석공이 장량에게 천서(天書)를 전하였고, 그 천서를 배워 장량이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위업을 달성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왕은 이 이야기를 빌미로 손오공을 설득합니다. 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만 일을 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서버리면 당신은 끝내 요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발끈하는 마음에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선근이 심겨있던 손오공,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은근히 뉘우치고 있던 손오공, 여기서 마음을 돌립니다. 역시 당나라 스님 모시고 가야겠다!

여기서 우리 한번 손오공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요? 찬탄을 해야 하겠지요? 장하다 손오공!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 공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허물을 범하였거든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고. 네가 〈논어(論語)〉라도 읽었나 보구나!

이크! 〈논어〉가 나올 대목이 아닌가요? 뭐 어때요. 요즘 하늘 통신에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친분이 꽤 두텁단 소식도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하~ 다음 시간에 뵈어요.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시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 엇 이 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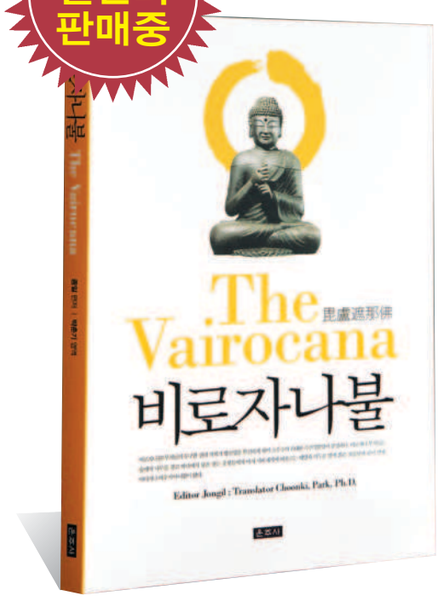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진리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4〉

붓다 경험주의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원리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범주에 적용하는 유 · 무 판단명제는 검증 불가능한 무의미한 질문이므로 탐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전한 경험 · 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 는 원리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유 · 무 판단명제들은 '경험적 실재에서 일탈한 왜곡된 사변적 견해들' 로서 '온전한 경험 · 실재의 경험' 가능성을 장애하므로, 이런 견해들에 몰두하면 할수록 개념적 독단과 환각의 덫에 걸려들어 해탈 · 열반의 삶에서 멀어진다. 따라서 붓다 경험주의의 두 번째 원리에 의해서도, 경험적 실재를 왜곡하는 실체론적 개념의 유 · 무 판단에 의거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실체론적 유 · 무 판단은 경험적 실재를 왜곡하는 개념적 환각이지만, 형이상학의 수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세계의 개념적 이해와 분석에서도 널리 채택된다. 무기설에 등장하는 형이상학적 명제의 조건이 되는 유 · 무 판단은 붓다 경험주의의 원리에 의해 거부된다. 그런데 경험세계와 연루된 유 · 무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 유 · 무 판단에 의거한 명제와 이론들은, 경험 가능한 것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붓다 경험주의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원리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경험 · 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 는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론적 유 · 무 판단은 '온전한 경험 · 실재의 경험' 에 접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험의 실재를 은폐 내지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경험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체론적 유 · 무 판단에 대해서, 붓다는 침묵이 아닌 언설로써 대처한다. 답변이나 설명의 거부방식(無記)이 아니라, 실재에 상응하는 언어에 의해 비판하고 치유한다. 연기 통찰에 의거한 '연기적 방식의 언어와 논리' 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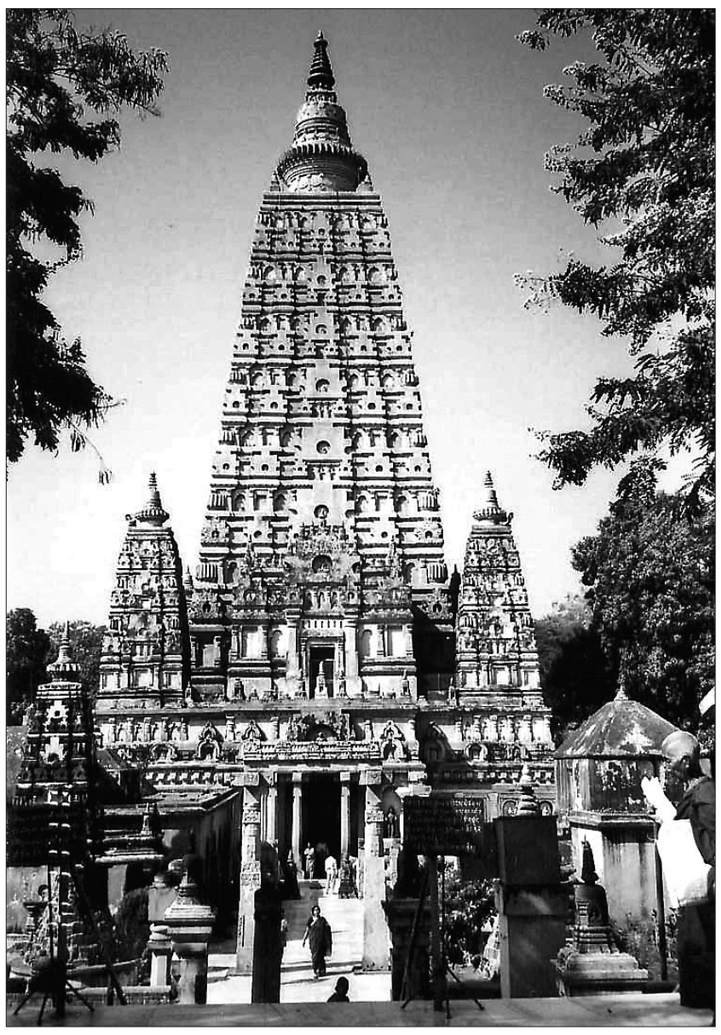
또한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 가능한 현상들의 '모든'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물리적 · 의학적 · 천문학적 · 생물학적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탐욕 · 분노 · 무지와 연관된 문제범주를 대상으로 삼는다. 경험세계의 과학적 탐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붓다가 경험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영역은 탐 · 진 · 치를 조건으로 성립한 문제들로 특화되어 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한 또 하나의 철학적 이유인 실존 실용주의의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실존 실용주의적 진리관과 탐진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 · 분노 · 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 라고 정의하였다. 탐 · 진 · 치를 조건으로 발생한 실존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힘, 그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의 자격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실존 실용주의이다. 붓다가 밝힌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설명거부의 이유들은, 탐 · 진 · 치의 실존오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을 진리의 이름으로 설하겠다는 실존 실용주의의 천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존 실용주의는 〈심사빠 숲 경〉과 〈깔라마경〉에서도 명확하게 표명된다. 붓다가 심사빠 숲에 머물 때 나뭇잎을 비유 삼아 설한 가르침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법들 가운데 오직 탐 · 진 · 치에 연루된

진리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법
"직접 검증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진리판별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부처님 성도 성지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 부처님에게 진리란, 고(苦)를 경험하게 하는 실존의 문제 상황에 적용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법이다.

실존의 근원적 결핍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것만을 선택하여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설한다는 붓다의 명시적 입장이다. 붓다에게 진리란, 고(苦dukkha, 삶의 근원적 불안)를 경험하게 하는 실존의 문제 상황에 적용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법이다. 달리 말해, 탐 · 진 · 치에서 발생하는 실존의 근원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이론은 붓다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런 지식이나 이론을 진리의 이름으로 탐구하지도 않았고 또 설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붓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주장과 이론의 진리치를 판별하는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관철된다. 삶에 적용했을 나타나는 탐 · 진 · 치의 증가 · 감소를 기준 삼아 어떤 가르침의 진리치를 판단하라는〈깔라마경〉의 가르침은 그 전형이다.

철학적 탐구력이 돋보이는 깔라마 인들이 붓다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설하는 진리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 게다가 각자 자신의 가르침은 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의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진리 판별의 기준이 없다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만 더해 간다. 붓다 당신은 무엇을 진리 판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에 대한 붓다의 응답에는 진리에 대한 경험주의 및 실존 실용주의의 태도가 종합되어 있다.

"(1) 그대들이 의문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깔라마인들이여, 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그러하다고 해서, 거듭 들어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 해서, 추론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인물이 말한 것이라 해서, 혹은 '이 분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말라.

(2) 깔라마인들이여, 스스로 생각하여 '이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 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또한 스스로 생각하여 '이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 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하라.

(3) 어떻게 생각하는가, 칼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분노, 무지)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겠는가, 해로움이 되겠는가? 〈깔라마인〉 해롭습니다, 존자시여. 〈붓다〉 그렇다. 그 사람은 탐욕(분노, 무지)에 빠져 그 탐욕(분노, 무지)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산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갖게 되고, 불륜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가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칼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분노, 무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겠는가, 해로움이 되겠는가? 〈깔라마인〉 이롭습니다, 존자시여. 〈붓다〉 그렇다. 그 사람은 탐욕(분노, 무지)에 빠지지 않고 탐욕(분노, 무지)에 압도되거나 정복되지 않아서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은 갖지 않으며, 불륜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인도한다. 그리하여 이로움과 행복이 오래가게 된다. 깔라마인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무지를 벗어나 올바로 깨어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가장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

불교에서는 부처를 의왕(醫王)이라고 부른다. 여러 부처의 명호 중에는 약사여래(藥師如來)라는 이름도 끼어 있다. 큰 사찰에 가게 되면 약사전(藥師殿)이라고 쓰여있는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건물에 모셔져 있는, 한 손에 약병을 들고 있는 분이 약사여래다.

하나 중생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이 곧 약사여래요, 의왕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병은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의 자세에 따라 병 또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병은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방심하고 있는 데서 병의 뿌리는 자신도 모르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정직하다. 모든 병 또한 정직하다. 마음 작용으로 인해 육체에 틈이 생겼을 때 병마(病魔)는 빠르게도 그 틈 사이로 끼어든다. 그럴 경우 육체는 병균의 침입을 알리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때로는 아픔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와 육체의 호소를 아예 무시하거나 생활에 쫓겨 외면해 버리고 만다.

기껏해야 육체의 호소를 엄살쯤으로 여기고 엉뚱하게도 몸살약이나 흔해 빠진 감기약 복용쯤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픔이 심할 경우에도 진통제 복용으로 건강을 보장받으려는 마음 편한 생각을 하지만 병은 정직하고 육체 또한 정직하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끼어 있기 마련이다. 약은 체내에 들어와서 한 가지 병을 고치고 두세 가지 병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약사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만은 쉽사리 약을 먹이지 않는다.

세상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30%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은 대부분이 50%는 가짜 처방에 가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돈만 아는 악질 의사도 끼어 있겠지만 무한한 인체의 신비와 유한한 의료학의 한계에 부딪쳐 의사가 아닌 의사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침술을 배우며 알게 된 일이지만 한의사가 열 개의 침을 놓을 경우 그 절반인 다섯 개는 치료와는 무관한 곳에 꽂혀 있게 마련이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침술 의사들은 400곳이 넘는 혈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정확하게 침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만병을 씨 뿌려 키우는 밭이 되기도 하고, 만병의 원인을 다스려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건강의 파수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아홉 개의 입이 있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눈은 보는 입이요, 항문과 생식기는 배설하는 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홉 개의 입의 유혹에

유혹 못 이겨 잘못된 습관으로 病 키워
병은 마음에서 비롯… 치료보다 예방을

못 이겨 건강에 나쁜지 알면서도, 습관이라는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비만은 온갖 병을 키우는 온실임이 분명한데도 입의 유혹에 끊임없이 결심과 포기를 거듭하면서 몸의 평수만 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담배와 술, 색을 밝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할 터이다.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한번 찾아든 병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는다. 약에 물려 잠시 피신했다가 동료까지 몰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신체 중 제일 건강했던 곳이 자신이 모르게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또한 건강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고, 둘째는 무리하게 서둘지 않으며, 셋째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다.

실천이 쉽지 않겠지만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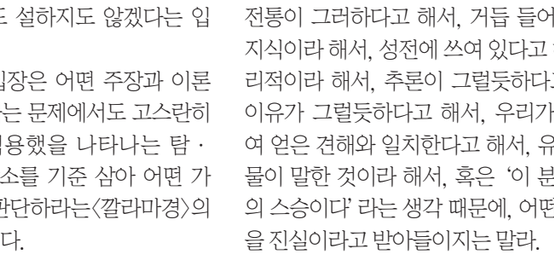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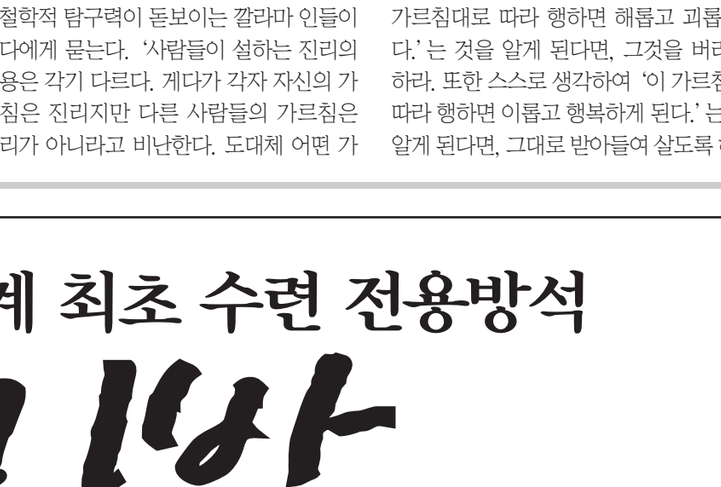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美박물관, 티베트 법당사원 '숭고함' 재현

뉴욕 루빈 박물관, 10월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 개설


뉴욕 첼시(Chelsea)에 있는 루빈(Rubin)박물관이 10월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개설했다.

미국 금융의 도시 뉴욕에서 티베트 불교미술을 감상하며 명상도 할 수 있는 상설관이 개설됐다.

미술 전문지 'Hyperallergic' 는 10월 23일 "뉴욕 첼시(Chelsea)에 있는 루빈(Rubin)박물관이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개설하고, 짧게나마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해 화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설관은 사원 법당을 옮겨 놓은 듯 빛의 농담을 조절해 숭고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빛의 농담으로 창조된 '어둠과 밝음' 은 사원 건축에서나 사용되는 원목과 현대적 건축자재인 투명한 대리석 판석의 간극을 절묘하게 이어주며, 관람객의 영성을 자극했다.

루빈박물관이 티베트 관련 전시를 처음 기획한 것은 2010년이다. 당시 스미스소니언연구소 부설 아서 섹클러(Arthur M. Sackler) 화랑이 뉴욕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 금융권 대출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전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1회로 끝났다.

"상설관 개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가능했다" 고 밝힌 에블린 켄터(Evelyn Kanter) 수석큐레이터는 "뉴욕 시민들이 티베트 불교를 알고자 한다는 판단에서 박물관이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해 지금의 상설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바람으로 '있는 그대로' 의 티베트 불교를 보여주자는 데 초점을 맞춰 전시실을 꾸몄다"고 말했다.

'Hyperallergic' 에 따르면, 루빈박물관의 티베트 불교 상설관은 여느 전시실과는 사뭇 다르다. 유물을 전시한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원 법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또한 유물 면면도 남다르다. 18세기 티베트 스님들이 지니고 다녔던 청색 실크 수건이며, 19세기 사원에서 사용했던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의식용 북까지 관람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유물들이 전시됐다.

법당 사원 그대로 옮긴 듯
티베트 관련 전시 '첫 시도'
유물 · 명상의자 등 전시
"불교 전시, 미국 전역서 계획"

"서양인에게 티베트 불교는 '분노와 자비' 라는 두 글자로 함축된다"고 주목한 에블린 켄터(Evelyn Kanter) 수석큐레이터는 "유물은 이 두 개의 코드에 맞춰 전시됐고, 그것을 보는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명상 의자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상설관이 단지 유물을 보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상설관 초입에 들어선 관람객은 먼저 버터 램프의 희미한 빛을 보게 된다. 성속(聖俗)의 문지방인 셈이다. 그리고 관람객은 붉은 색과 금색의 티베트 불교 특유의 탕카를 보며 자신의 영성을 일깨운다. 이때쯤이면 불상과 불단의 장엄물과 조우한다. 불단 앞으로 3개의 명상 의자를 놓은 것은 순간 일어날 숭고미를 추스르며, 짧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도에서다.

한편 루빈박물관은 상설관 옆으로 네팔 무스탱(Mustang) 지역에 있는 외진 절벽 사면을 담은

거장 야로슬라프(Jaroslav P.)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그 맞은편으로는 존 모나코(John Monaco) 작가의 작품 '오리엔탈의 빛' 을 설치했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컬럼비아대 명예 교수가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명' 에 매년 선정되고 있다"고 전제한 'Hyperallergic' 는 며 "이는 미국에서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루빈박물관이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기획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했고 그 역할에 기대를 거는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Hyperallergic' 는 "로스앤젤레스 시립미술관(LACMA), 아시아미술박물관(Asian Art Museum), 노턴사이먼박물관(Norton Simon Museum), 태평양아시아박물관(Pacific Asian Museum), 바우어스박물관(Bowers Museum), 게티센터 박물관(Getty Center Museum) 등에서도 불교 관련 기획적인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내 유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불교 관련 기획전을 전개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불교 열풍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마크 주커버그, 불상 앞에서 '기도'

중국 다옌 탑 방문… 10월 27일 페이스북에 사진 게재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다옌 탑(Wild Goose Pagoda) 불상 앞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10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사진출처=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계정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불상 앞에서 기도 중인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다옌 탑(Wild Goose Pagoda) 불상 앞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10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프로모션 홍보차 아시아 지역을 방문 중이다.

주커버그는 "다옌 탑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내 가족, 세계인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다"며 "불자인 내 아내 프리실라 챈(Priscilla Chan)이 나에게 참배를 제안했다. 불교는 매우 경이로운 종교이자 철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커버그는 "나는 불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며,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자인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경영철학에 불교 사상을 담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불교전문지 'Rion's Roar' 는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불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페이스북은 미얀마 종교 갈등을 제어하기 위해 불교적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의 50년 간 군사독재정권이 종결되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후, 최근 10년 간 미얀마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크게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반이슬람 세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슬람을 탄압하는 내용을 수차례 게재해 왔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보기 원치 않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게시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신의 뉴스피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팝업창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 '폭력적인 내용이다' 등 삭제 원인을 덧붙여야 한다.

이에 페이스북은 미얀마를 위해 '사회 조화를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등 삭제 원인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종교 갈등이 극심한 미얀마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게재함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밖에도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 '평화를 말해요' 등 의미를 담은 스티커들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Rion's Roar' 는 지난 3월 4일 "페이스북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이용되는 페이스북에 일괄적으로 추가 기능을 가동했다"며 "이는 불교계율 중 관용과 자비를 반영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자원봉사자들 손에서 '티베트 사원' 탄생

美 플로리다 팜비치서… 15년 전 서원 실천
팜 비치 포스트, "큰 변화 가져올 것"

미국 플로리다 남동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티베트 사원을 짓고 있다.

'Palm Beach Post' 는 10월 25일 "팜비치 북쪽에 있는 주피터(Jupiter) 농장에서 일군의 자원봉사자들이 티베트 사원, '팔덴 쉐랍 페마 링(Palden Sherab Pema Ling)' 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엄한 지혜의 연화지' 라는 뜻인 '팔덴 쉐랍 페마 링(Palden Sherab Pema Ling)' 은 지난 2010년 열반한 팔덴 쉐랍 스님 법명에서 빌려왔다. 팔덴 쉐랍 스님은 뉴욕에서 티베트 불교 포교에 앞장서 왔다.

'Palm Beach Post' 에 따르면, 팔덴 쉐랍 페마 링은 2000년대 초 팜비치를 방문한 팔덴 쉐랍 스님이 이곳에 사원 건축을 서원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스님은 "이곳은 사원을 열어야 할 곳"이라며, 매년 팜비치를 찾아 대중 법회를 봉행하며 선근을 심었다.

사원 부지는 팔덴 쉐랍 스님 열반 4년 후인 2014년에 마련됐다. 스님의 법문을 매년 들으며 발심했던 인근 농장주 3명의 도움과 스님의 포교 근거지였던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불교센터의 재원이 더해져 4만여 평방미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주피터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팀 타비스(Tim Tavis) 박사는 "3명의 농장주가 각각 자신의 땅 일부를 희사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아서 사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열반하신 팔덴 쉐랍 스님의 노력이 쌓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던 팀 타비스 박사는 12년 전 미국을 여행하던 중 이곳에서 팔덴 쉐랍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발심했고, 4년 전 은퇴 후 지금까지 팜비치에서 머물며 PBC를 돕고 있다.

팀 타비스에 따르면 농장을 개축해 진행하고 있는 사원 건축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노동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와 건설 장비 운영은 건설 노동자들이 맡고 있지만,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며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맡고 있다.

의사인 크리스 로스맨(Chris Rothman) 씨는 "소모품을 관리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이곳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alm Beach Post' 는 "PBC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도움이 더해져 사원이 들어설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존 크리스티안(John Christiansen) 농장주의 말을 인용하고, "주피터 농장에 세워질 팔덴 쉐랍 페마 링(Palden Sherab Pema Ling)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팜비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크리스티안 농장주는 팔덴 쉐랍 스님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 땅 8,000여 평방미터를 희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불자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 활동 중단

전국적 유명세 치루며 학업, 일신 등 지장


일본 '불자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
출처 oita-press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불자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Num-Num Girls)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나무나무 걸즈는 일본 큐슈지역에 위치한 불교 정토진종립 '나카즈시 히가시큐슈류타니 고등학교' 여학생들 1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불교 가르침을 노래로 널리 포교하겠다는 취지로 데뷔했다. 지난 8월에는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사찰을 오가며 공연을 펼치는 등 큰 인기를 떨쳤다.

일본 언론 'Japan Today' 는 10월 28일 "불교계 아이돌그룹 나무나무걸즈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유는 너무 높아진 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후 점점 유명해지자 활동량이 많아져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불교계아이돌' 이라는 타이틀에 타종교인들의 인신공격성 비난이 속출하며 유명세를 치루기도 했다.

'Japan Today' 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의미가 퇴색될까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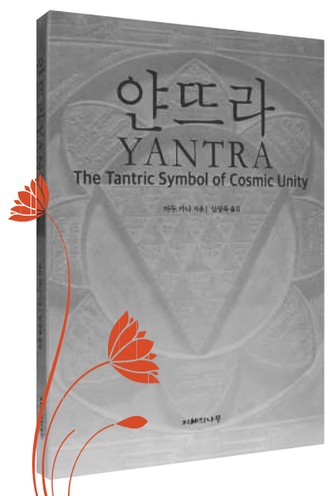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움자로 된 교통카드 꽂이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탐진치의 어리석음, 몸짓으로 털어낸다

파사무용단 2015신작 '붓다이야기 첫 번째' 선보여

'붓다, 일곱걸음의 꽃'을 통해 2년 연속 전석매진을 이뤄내며 현대무용의 새 장을 열었던 '파사무용단'이 2015년 신작 '붓다이야기 첫번째-버려야할 것들…'을 11월 5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막한다.

한국사회는 살인, 자살, 묻지마 폭행 등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파사무용단의 황미숙 안무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탐욕(貪,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에(瞋, 노여움), 우치(癡, 어리석음)의 3독에서 찾았다. 파사무용단의 이번 작품에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불교의 3독을 몸의 언어로 풀어낸다.



11월 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서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안, 예술로 제시
수익금 소외계층 · 장애우 위해 사용



파사무용단은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원인을 '삼독'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수행을 몸으로 표현한다.

황미숙 안무가는 "이러한 3독을 버림으로써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의 내가 아닌 진짜 '나'를 찾는 것"이라며 "나의 내면세계를 바라보고 존재의 자아를 찾길 소원하며 이번 작품을 안무했다"고 말했다.

파사무용단은 난해하게 여겨지는 현대무용의 벽을 낮춰 미술, 음악, 문학 등 폭넓은 장르와의 교류하며 대중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교무용임에도 부처님을 종교적 지도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비중있게 다뤘으며 특정 종교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매 작품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어우러짐을 새로운 시각으로 안무하는 '파사무용단'에서 3독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냈을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파사무용단의 '붓다이야기' 수익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및 장애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파사무용단은 10월 8일 쇼케이스 및 후원의 밤 형식의 제작발표회에서도 성금이 파사무용단의 공연 제작에 후원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및 장애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사무용단은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 참여형 작품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3년째 후원의 밤을 개최해 이를 통해 모인 성금의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 파사무용단은 매년 불교, 환경, 청소년을 주제로 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에 2015년 국내 무용계 최초로 조계종이 인증하는 '불교문화단체등록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붓다이야기'는 불교신자 20%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02)2272-215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별을 향한 기도, 불교로 해석하다

양선희 작가, 11월 4~10일 '합격진문전'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긴 우물물을 하얀 사발에 담아 장독대에 놓고 북극성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불교가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북극성은 금륜불정치성광여래가 되고 사찰의 대웅전,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등에 굳게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 전수교육조교 양선희 작가는 바로 이러한 칠성신앙을 그림과 상징으로 형상화한 '합격진문전'을 11월 4~10일 종로 인사동 이즈갤러리에서 연다.

양선희 작가는 천문(天文)을 형상화한 '전서체'에 주목했다. 전서체는 부적에 쓰이는 문자로 옛 부적에는 초기 한자와 문양이 함께 어우러졌다. 양선희 작가는 불화전수조교로서 극락세계에 피어나는 여러 가지 꽃과 상징을 불탑 형식으로 그렸다. 특히 삼베에 그림을 그리는데, 천연안료까지 써서 색채와 질감을 고려했다.

양선희 작가는 "붓다의 법을 깨우치는 한 계단이 되기를 소망해본다"고 말한다. 양선희 작가의 합격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을 수많은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하다.



양선희 作 '자리가 없어 죄송해요'

노덕현 기자

신작찬불가 공모 대상 '삼보송'

조계종, 심사결과 발표… 수상작 음원 제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한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대상에 '삼보송'이 선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는 10월 23일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불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를 창작 · 보급하기 위해 열린 2015 신작찬불가 공모전은 총 19곡의 응모작이 접수돼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김건우 씨의 '삼보송'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김동욱 씨의 '약사여래부처님'이, 우수상은 유수웅 씨의 '부처님 세상'과 강주현 씨의 '관음찬양게'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지현 씨의 '부처님을 만나는 방법', 노곤윤 씨의 '석가모니불', 류권하 씨의 '저녁산사'가 이름을 올렸다.

2015 신작찬불가 공모전의 대상작 '삼보송'은 세 개의 성부가 각자의 소리를 내나 한 화음 안에 있듯이 삼보가 세 가지 면을 가졌지만 본래 하나임을 표현하고자 만든 곡으로 심사위원회에는 "구성력과 불교적인 대중선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동욱 씨의 '약사여래부처님'은 "국악적 장단을 바탕으로 한 친숙한 리듬의 곡으로 전통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조화롭게 표현된 곡"으로 평가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불교 음악 대중화 발돋움, 음성공양 본의미 되새겨"

조계종,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25일 케이아트홀서 개최
대상에 나유타불교합창단

한국 불교 음악 대중화를 위한 합창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돼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5일 더 케이아트홀(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합창제에서는 총 22개 합창단, 1500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합창제 대상에는 대구 나유타 불교합창단(단장 최정애)이, 최우수상은 제주 관음사 관음자비량 합창단(단장 장부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상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가릉빈가합창단(단장 차금숙)과 청주불교방송 부루나합창단(단장 연경희)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단장 손현숙), 불광사 바라밀합창단(단장 정경성) 등 6팀이 이름을 올렸다.

지휘자상은 권준대 대구 나유타 불교합창단 지휘자가, 반주자상은 강희원 전남목포 사암연합 에밀레합창단 반주자가 수상했다. 매회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전남목포 사암연합회 에밀레합창단 지도법사 겸 지휘자 효천 스님은 불교합창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앞으로 불교합창페스티벌이 불교 음악인들만의 축제가 이닌 신작 찬불가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중화를 위한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10월 25일 더 케이아트홀에서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합창제 대상을 수상한 나유타불교합창단의 공연 모습.

페스티벌 심사위원장 덕신 스님도 "올해 특히 더욱 높아진 합창단의 수준과 열기에 감동하였다"고 평가하며 "불교합창페스티벌이 음성공양 본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격년으로 개최되는 불교합창페스티벌은 2017년 제7회 대회가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주박물관, '당송전환기의 오월' 전

국립전주박물관은 12월 20일까지 기획특별전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을 개최한다. 전시는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과 '오월 국부의 원천 월요(越窯)', '불국토(佛國土) 오월', '오월과 후백제(後百濟)'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주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호구 운암사탑(虎丘 雲岩寺塔) 및 서광탑(瑞光塔)에서 발견된 불교미술품을 중심으로 오월 국부의 원천이 되었던 월요(越窯) 비색 청자(秘色靑瓷),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副葬品) 등 130여점이 선보인다.

'동으로 만든 십일면관음보살입상(十一面觀音菩薩立像)'을 비롯해 '불상을 새긴 동경(銅鏡)', '녹나무로 만든 경상(經箱)' 등 중국 국보급 유물 4점을 포함해 소주박물관의 중요 소장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서광사탑 출토 '진주사리보당'은 복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월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진귀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과 후백제'도 11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거제 멸치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은 계절에 따라
멸치, 멍게, 굴, 대구,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문 즉시 택배로 신선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주문 환영
바자회 용 멸치, 특상품 취급

※ 가격은 수산물이라 시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1박스 1.5kg

● 종류 : 참멸치, 볶음용 멸치, 다신멸치
청어멸치는 2월경 부터 취급 (택배는 멸치 5박스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쫀득쫀득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경희수산(주) 대표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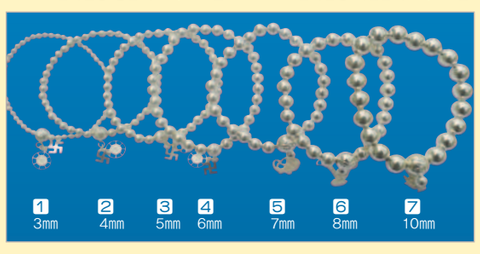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 금강체인팔찌 B형 115,000원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 금강저팔찌 115,000원


1 3mm 2 4mm 3 5mm 4 6mm 5 7mm 6 8mm 7 10mm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10㎜ 만자 팔찌 130,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BTN 드라마 '붓다'

본방 |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모든 것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가난하구나"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는 매일 성문 밖에서 백성들을 살핀다. 어느 날 수행자를 본 싯다르타는 그 자유로움에 또다시 고뇌에 빠진다.

마하파자파티는 싯다르타의 아이가 태어나 싯다르타가 아이를 보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브라만의 예언을 듣고 이를 막고자 했지만 싯다르타는 아이를 본 뒤 장애를 벗어 던진다는 '라훌'이라 이름한다.

이러는 사이 국외정세는 급변한다. 코살라국은 지난 전쟁의 패배를 갚을 복수전을 꿈꾸고 코살라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막기 위해 싯다르타는 마가다국으로 떠난다. 싯다르타가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을 설득해 동맹을 맺지만 그 사이 코살라국의 기습으로 카필라바스투는 피로 물든다. 이런 잔혹한 살생 현장을 보고 싯다르타는 다시금 고뇌에 빠진다.



수행자가 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 싯다르타. 이 소식을 들은 샤카국의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삶의 고통을 해결할 해답을 얻으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27회는 싯다르타가 카필라바스투의 참극을 목도하고 번뇌에 빠져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민초들의 죽음과 자신의 행복 앞에 견딜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싯다르타는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는다.

마침내 싯다르타는 성을 나서고 출가의 길을 걷는다. 싯다르타가 수행자의 길로 떠나자 샤카국은 큰 충격에 빠진다. 특히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 소문은 인도 전역에 퍼진다.

길 위에서 싯다르타는 스스로의 머리를 자른다. 숲에서 수행자의 의복을 입고 사냥을 하는 사냥꾼에게 금의를 건네주고 수행자의 옷을 바꿔입은 싯다르타는 강가에서 수행자를 만나 알라라칼라마구루를 찾아 나선다. 첫 탁발에 나선 싯다르타는 겸허히 자신을 낮춘다. 탁발과정에서 자신을 태자로 알아보는 이들을 만난 싯다르타는 이제 자신은 수행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구루는 단지 청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본다네…. 자네는 지혜에 목말라있네, 이렇게 심한 갈증은 아직 본바 없네.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네"

싯다르타가 이틀만에 알라라칼라마구루의 제자가 된 뒤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베다 등을 외우며 인고의 세월을 거쳐 제자가 된 이들이었다. 이에 알라라칼라마 구루는 이렇게 말한다.

"참지식은 바닷물에 녹아든 소금과 같아야 한다. 그때 소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내가 이 물그릇에 모래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래 알갱이들은 욕망 분노 자존심 탐욕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이 네가지를 극복할 때 청정한 물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싯다르타는 나무 아래서 계속 정진한다. 배고픔과 병고의 고통,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싯다르타는 계속 번민한다.

"구루, 마음이 자꾸 아픕니다. 저는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없을까요?"

"저기 물에 던진 돌은 물 위에 잠시 튀어 오르지만 곧 물에 가라앉는다네. 저 구름도 생각과 같다네. 다양한 생각으로 떠다니지만 하늘은 그대로라네. 명상을 하면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들어오고 나오는 호흡에 집중하면 완전히 빈 상태가 올것이네. 그 상태에서는 구름조차 없는 저런 하늘 처럼 된다네."

싯다르타는 계속해서 명상에 빠진다. 다른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는 높아만 갔다.

"탁발 나갈 시간이 되면 명상에 빠진 저를 깨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싯다르타는 계속해서 명상에 들어간다. 이틀간의 밤낮의 깊은 명상 후 싯다르타는 깨어난다. 싯다르타는 시간이 새의 깃털과 같이 가벼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에 알라마카라마 구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단계까지 나는 70년이 걸렸는데 너는 단지 2달만이 걸렸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이렇게 말한다.

"명상에 든 순간에는 가벼웠지만 나오는 순간 다시금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고통과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해져 다시 괴로웠습니다. 이 고통을 없앨 길을 알려주십시오."

알라마카라마 구루는 내가 줄 것은 더 이상 없다며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고 수행집단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길을 떠나고자하고 구루는 이를 축원한다.

"저기 세기의 인물이 가고 있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일세"

싯다르타는 마가다국의 우타카르마부타를 찾아 나서고 이 과정에서 마가다국의 희생제를 보게 된다. 싯다르타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막고, 이는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의 귀에 까지 들어간다.

빔비사라왕은 싯다르타를 찾아 나서고 만난 자리에서 싯다르타는 빔비사라 왕에게 이 같이 말한다.

"수많은 왕국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소멸은 삶의 궁극적 진리요. 종교의 이름으로 죄를 지으려 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요."

빔비사라 왕은 수도자가 싯다르타임을 알아보고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참회한다. 빔비사라왕은 그날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를 중단한다. 빔비사라는 싯다르타에게 함께 가길 원하지만 싯다르타는 많은 인간과 동물들이 그 깨달음을 원한다며 거절한다. 이후 마가다국에서 고행자를 만난다. 이들은 옷을 버리고 음식을 버린 이들이었다. 싯다르타는 고행자들에게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를 질문한다.

"자유를 위한 고난, 먼 곳의 천국에 가려는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고통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왜 나만 가야 하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까."

고행자들은 오히려 싯다르타에게 "우리들의 안내자가 되어 달라"고 축원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알라라칼라마를 만난 싯다르타가 제자가 되길 원하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탁발 중에 만나도 수행하는 싯다르타


잘못을 깨달은 빔비사라왕이 나중에 가르침을 주길 청하다.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위대한 깨달음의 길이 시작되다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드라마 붓다의 시청자들도 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청년 싯다르타가 고뇌 어린 삶의 체험과 민초들의 험난한 인생을 목도하고 어느 한 사람이나, 신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근본고통이라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드라마붓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일반인들은 신기로울 것이고 불교인들은 재미있다 못해 자못 흥분해서 떨리는 마음이기까지 하다.

재가자들을 제외한 출가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나와서 산다. 가정을 떠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라고 한다. 그런데 비구(니:bikkhu,bikkhhuni)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 '집 있는 곳에서 집을 나와 집 없는 곳으로 떠난 이' 라는 말이 있다. '얻어먹는 이(乞士)' 라는 말도 있다.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아침마다 탁발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 있다. '윤회(samsara)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라는 말도 있다. '윤회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므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결국에는 윤회를 떠나고 윤회를 끝내는 이' 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것이 비구라는 말이 가진 가장 뜻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출가하는 것이 '가출' 이 아니라 윤회를 끝내는 모범을 보여서 다른 이들도 윤회를 벗어나게 한다는 뜻에서 '위대한 포기', '위대한 출가' 라고 하기도 한다. 출가 전 그의 인품에 반해 친구가 되기로 약속한 빔비사라왕은 드라마붓다에서 독백하며 눈물을 흘린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하다." 그런 것이다. 출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다만, 치열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출가하고서도 권력과 명예를 위해 노력하거나 재산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가까워지려는 이들은 오히려 출가하지 않고 공덕을 쌓는 재가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하는 이는 위대한 척 걸음을 걷지만 그(그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모, 자식이나 부부 또는 애인인 경우에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기 일쑤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출가를 막고 위대한 국왕이 되게 하고픈 싯다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왕이나, 어머니 마하파지파티왕비 그보다 더 마음 아팠을 태자비 야소다라, 멋도 모르고 고아가 되어버린 라훌라 등의 마음의 움직임이 경전에도 나오고 드라마붓다에는 정말 실감나게 묘사된다.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여성이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세계종교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물론, 시자 아난다가 세 번이나 어기지 못할 질문을 부처님께 해대자 마지못한 듯 허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당시의 출가자들이 청년이나 독신만 이었던 것이 아니라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있었기에 당연히 혼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 남편이 출가해버려서 갑자기 홀로된 여인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생겨나고 그들의 생계와 안전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계발해서 붓다(아라한)이 되게 하고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숫따 니빠따의 '어느 장작이나 불을 붙는다' 는 말씀은 성의 차별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성인이 아니라 유소년소녀라면 그들의 부모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아들 싯다르타의 출가를 온갖 방법으로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던 아버지 숫도다나의 아픔은 거꾸로 천붕지통(天崩之痛)이었다. 게다가 친족들을 구하러 온 붓다가 자신을 대신해 왕위를 이어야 하는 다른 아들 난다뿐만 아니라 손자 라훌라마저도 출가하게 되자 그것을 기억한 숫도다나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아들에게 간청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에나 출가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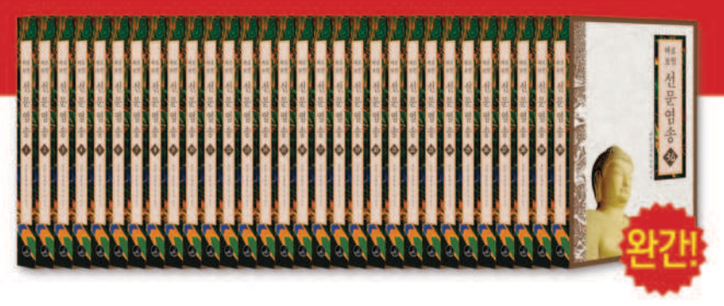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22~2015.10.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2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3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5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8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9	인생의약상자	마쓰노`田/김정환	담앤북스
10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있는 그대로’ 인 나 자신의 지금… 모든 여행 출발이자 종착역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늘 펼쳐지는 지금
알마스 지음
박인수 옮김
김영사 펴냄
1만 7800원

현대 심리학은 지난 100년간 자아를 연구해 왔다. 이드 · 에고 · 슈퍼에고뿐만이 아니라 잠재의식과 집단 무의식, 의식의 층들, 의식의 발달 과정, 자아와 두뇌활동의 관계, 개인과정과 초개인과정 같은 다양하고 세밀한 이론 체계를 통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밝히려 했다.

켄 윌버가 ‘가장 균형 잡힌 가르침’ 으로 극찬한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알마스(Almaas)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자신의 ‘에센스’ 를 깨우려 한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고 통합하여 마침내 ‘개인 에센스’ 에 도달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 로 여기던 삶의 이슈들이 ‘그대로’ 나의 본성에 도달하는 문으로 사용된다. ‘번뇌 즉 보리’ 의 현대적 실현인 셈이다.

알마스의 ‘총체관’ 은 어떠한 깨달음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고, 그중 어떠한 것에도 결정적으로 고착되지 않고서 그 모든 관점을 수용할 수 있거나 동시에 여러 개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실재에 관한 가능한 모든 참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등급을 매겨 평가하지 않는 관점이다.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도서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는 시대에, 알마스의 길은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 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삶의 방식을 펼쳐 보인다. 알마스의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는 심리학과 영성의 진정한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실재로 존재하기

남의 방식을 참고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마저 강요당하는 현대인들에게 알마스의 방식은 낯설고 평화롭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늘 함께 있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인 나 자신의 지금 그 상태가 이 모든 여행의 종착역이자 출발점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려면,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있는 그 자리를 자각하는 것이 반드시 자신으로 존재함을 뜻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 있는 그 자리의 자각은 참자기의 요소, 혹은 맛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맛이나 요소를 ‘진리’ 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든, 그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참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그 경험이 떨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반응 혹은 반영이거나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참본성에 이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에게 깊은 안도감을 가져다준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가벼운 위로만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읊조리던 수많은 말들과 문장들 사이에서 실체의 ‘의미’ 를 들여

‘참 나’ 로 살기위한 자유 찾기
저자 가르침 핵심 ‘개인 에센스’ 자각
18개의 챕터 통해 영적체계 소개

다보며 비로소 마음이 쉬게 되기 때문이다. 그저 나 자신으로 있는 단순함. 이를 통해 자연스레 사랑과 고마움이 샘솟는다. 수많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구하려고 애쓰던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 여기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사랑과 고마움을 인식하는 순간은 아주 소중하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더 개선하기 위해 명상, 기도, 염송을 하거나 영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발달시킨 개념이나 들어서 알고 있는 관념이 열렬히 따를 만큼 좋은 것이라서 이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뭔가를 추종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과 함께 안착하는 작업이다.”

영적인 수준서도 개인성이 깨어나는 시대

알마스의 가르침 중 가장 차별적인 내용은 ‘개인 에센스’ 의 자각이다. 오랫동안 종교나 영성 분야에서는 개인성을 초월하여 전체와 하나 되거나, 현세적 삶을 떠나 영적인 단계(천국 · 열반 등)로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도 ‘둘이 아님(不二)’ 을 표방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를 중요시했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작은 ‘나’ 인 에고를 벗어나 더 큰 나, 전체로서의 나, 심지어 ‘나 없음(無我)’ 에 이르고자 애썼다.

“내적인 여정, 영적인 수행은 모두 궁극적으로 여기에 도달한다.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말이다. 어떤 초능력을 개발하고 차원이동을 하거나 유별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적 수행을 하려 한다면, 당신은 진실한 영적 작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아직 실재(reality)가 무엇인지, 실제로 존재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알마스는 되묻는다. “만일 개별성이 없다면, 무엇을 통해, 누가 성장하고 완성되는가?” 현대에 이르러 개체의식을 에고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개인성을 무시하고 억누르게 되었다. 그러나 개체의식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들 개개인은 삶의 경험과 이해를 거쳐 성숙하고 발달한다. 이미 주어진 각자의 삶을 통해 개인성을 완성해가는 것이 전체성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이며, 자신이 에고가 아니라 본래 전체적인 에센스의 현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보살’ 의 길이나 십우도의 입전수수(入廛垂手) 등으로 전해져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성을 온전히 꽃피우면서 참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가 표방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시대적 요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바야흐로 오랫동안 잊혔던 영적인 신비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따뜻함을 겸비한 스승, 알마스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를 다룬 일련의 저서를 통해 1990년대부터 심리학과 영성, 에니어그램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알마스는 1944년 쿠웨이트 태생으로, 18세에 미국으로 건너와 UC 버클리에서 물리학과 심리학을 전공했다. 학창시절 때부터 임사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체험을 거쳤던 그는, 물리학 박사과정 도중 삶의 진로를 마음의 탐구와 영적인 추구로 바꾸게 된다. 심리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한편,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 티베트 불교, 초기 불교, 플라톤주의, 구르지예프 ‘제4의 길’ 등 다양한 수행 체계를 섭렵하면서 동서양의 수행 전통과 이론들, 자신의 체험을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특히 티베트 불교 16대 까르마파의 전수식에서 알마스는 ‘에센스(essence)의 현존’ 과 함께 자신이 인류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이 에센스 경험을 계기로 그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바로 새로운 영적체계인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의 열림이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은 총 18개의 챕터를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알마스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의 정수를 차근차근 안내한다. 특정 종교나 명상법,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을 전혀 들먹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일시, 현존, 경험, 저항, 받아들임, 자각, 용기, 상호연결성, 증오, 무지, 앎과 모름, 존재와 비존재 등 심리학과 종교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어떤 체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주제들을 쉬운 말로 하나하나 짚어 가며 그 의미를 새롭게 밝혀준다. 불교나 기독교, 명상 등 종교적 수행을 해왔다면 그 체험의 깊이만큼, 심리학이나 철학 등 현대 학문을 공부했다면 그 고민의 넓이만큼,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색다른 따뜻함과 번뜩이는 통찰들이 가득하다.

지구인에게는 낯선 은하계의 깨달음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분야들의 통합과 통섭, 융합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등장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통합이론가로 인정되는 켄 윌버마저도 알마스의 가르침을 ‘가장 균형 잡힌 가르침’ 으로 칭송할 정도이다. 알마스는 오래된 모든 영적 전통들과 미국에서 앞다투어 발전한 현대 학문들을 융해시켜 하나로 녹여낸 다음, 그마저도 넘어 더 멀리까지 새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는 농담처럼 ‘이것은 아직 지구인들에게는 낯선 은하계의 깨달음’ 이라고 말한다. 켄 윌버의 지성에 감탄해본 사람이라면, 그 번뜩임에 따뜻함과 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무려 색다른 감동으로 뚝딱 빚어내는 알마스의 솜씨에 다시 놀랄 것이다.

나에게서 나에게로

우리는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을 시간과 돈의 효율성으로 저울질하는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변화를 종용하고, 한편으론 그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세계나 정신세계나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자신을 찾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와 가르침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발전시키고, 더 낫게 만들려고 한다. 심지어 작은 나(에고)를 없애고 더 큰 나, 마침내 ‘나 없음(無我)’ 에 이르자고 한다. 하지만 힘들다.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지금 존재하는 상태를 거부하는 폭력일뿐더러, 그 ‘찾고 바꾸려는 나’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일상서 흐트러진 마음 치유하는 연습

하지 않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마로니에북스 펴냄 | 1만 2천원



과도하게 넘치고, 빠르고,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본의 힐링 멘토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전하는 공감의 글을 묶었다. 저자는 일상의 이야기와 불도(佛道)를 도구 삼아 너무 많이 ‘해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하지 않음’ 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키는 방법을 전한다.

삶은 본래 조용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조용함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터전서 끊임없이 고군분투 해야 한다. 회사서 가정서 학교서 그리고 부모로써, 아이로써 우리들은 각자 꼬리표에 맞게 행동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른 존재이다. 그래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평온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마음은 본래 아주 작은 상처에도 흔들리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일상서 겪는 작은 번뇌가 쌓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작은 번뇌들이 쌓여 결국 큰 상처로 남는다. 이 같은 일상의 번뇌를 치유하기 위해 저자는 우선 우리를 괴롭히는 잡다한 생각의 정체를 108가지 번뇌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번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해야 하는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하지 않는 연습이다. 저자는 나의 번뇌들을 바로 맞닥트리지 않고 한발 물러서 뒤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분노 에너지로 인해 화가 나면 이 감정을 따옴표로 묶은 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힌다. **김주일 기자**

마음의 편안함 찾는 컬러링 북

붓다를 그리다

김재일 지음 | 책앤 출판사 펴냄 | 1만 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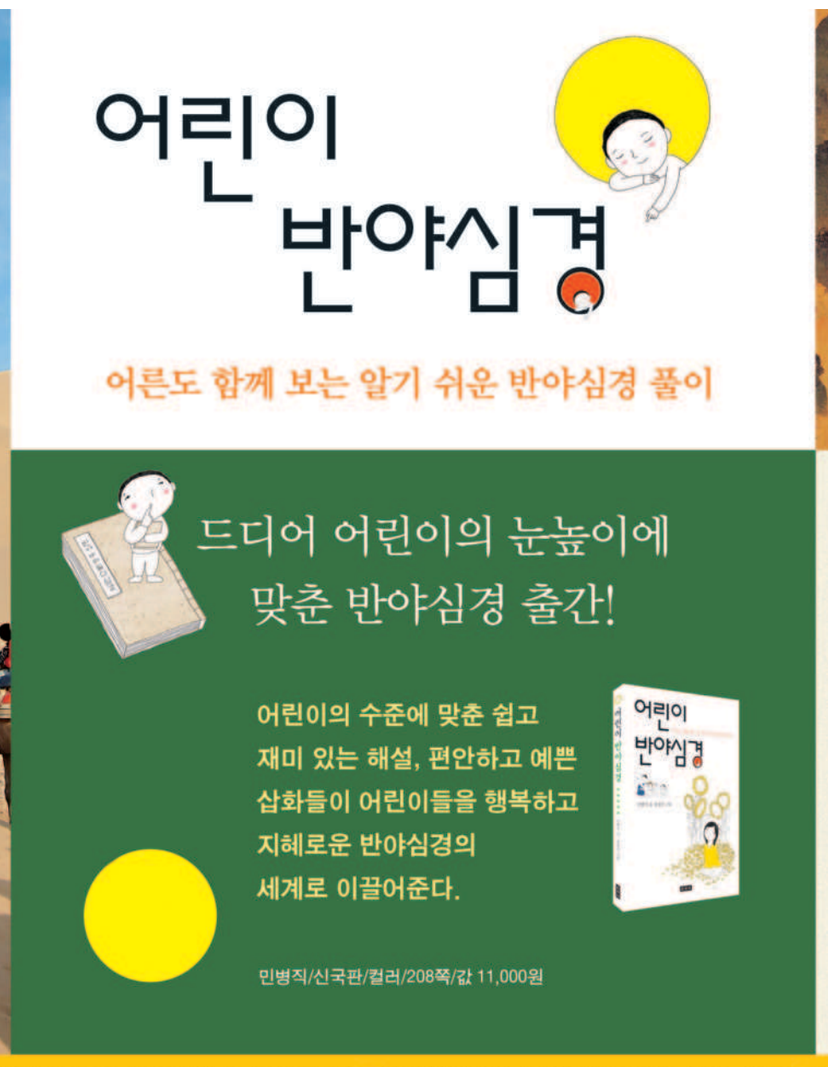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온 불교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접목해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작가가 이번에는 만화와 컬러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붓다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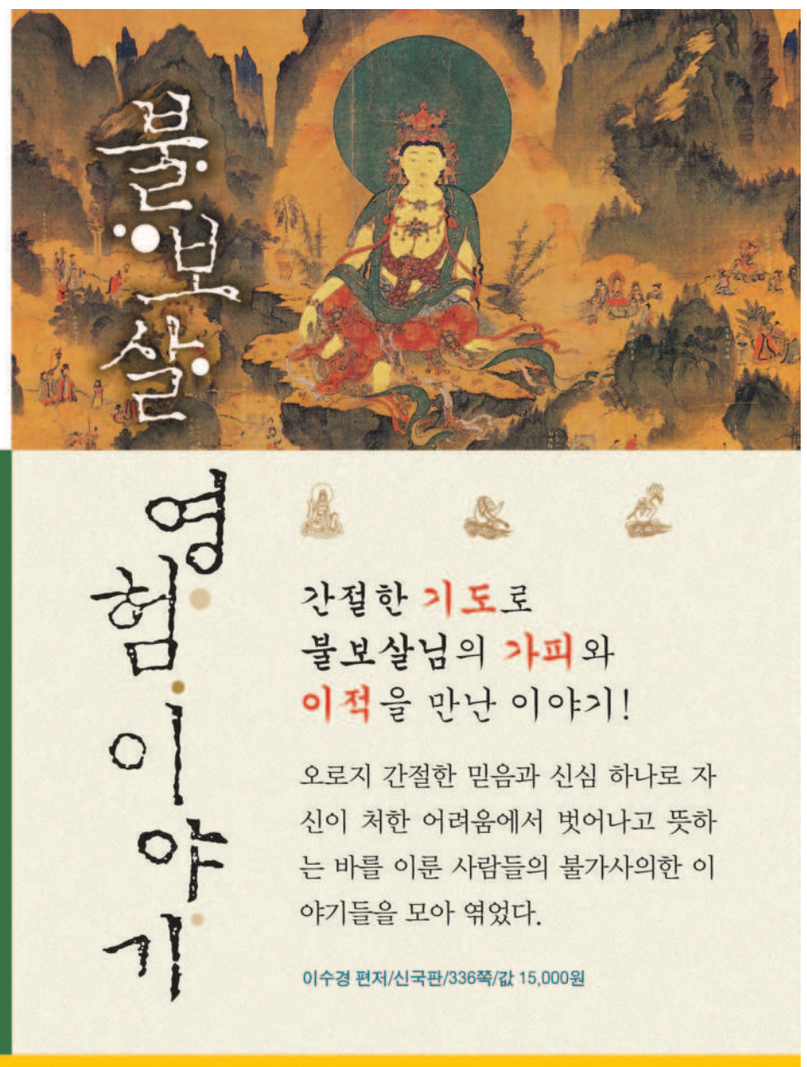
또한 부처님의 희로애락, 불안과 번민, 고통, 깨달음 등 중요한 장면을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해 부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자신을 성찰할 기회까지 열어 준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본성에 따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생을 살아내라’ 는 영혼의 속삭임이 있다. 이 속삭임을 듣는 것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따르고 그리며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이 책은 언어의 서술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전개를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직관적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희로애락, 번민, 고통, 깨달음, 해탈의 순간을 보다 생생한 느낌으로 만날 수 있다. 이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 스스로 수행자가 되어 한 컷 한 컷 온 힘을 다해 그려내는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독자의 요구를 모아 주제를 선정하고 밑그림을 완성했다. 그래서 밑그림에 표현된 부처님의 표정과 몸짓은 물론 배경으로 깔리는 소품 하나하나는 생생한 현장감과 강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에 능동적으로 다가가 불성에 동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인생은 모르는 마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

모르는 마음

선묵혜자 스님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5천원



"하루에 한 번 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랑과 행복, 자비가 내 마음 속에 가득 넘쳐나는 걸 알게 됩니다."

9년에 걸쳐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지난 10월 25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 회주 혜자 스님〈사진〉은 불교계 신행 문화를 바꿔 놓는데 큰 공을 세웠다. 사찰 순례에 동원된 버스만 총 1만1664대, 왕복 순례거리 817만㎞(지구를 204바퀴 돈 거리)등 각종 진기록도 수립했다. 사찰 순례가 많지 않았던 시절 선묵혜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는 흥행 돌풍을 일이키며 지역 사찰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책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 의아했지만 선묵혜자 스님은 틈틈이 산사(山寺)의 시인이 되어 시와 에세이를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모르는 마음〉도 선묵혜자 스님의 에세이집이다. 50여 년에 걸친 수행의 지혜가 녹아 있는 96편의 시와 에세이는 우리의 잠든 눈을 깨우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통찰로 가득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네 마음도 모른다. 모르는 마음끼리 서로서로 부딪치고 서로서로 아파한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른다. 인생은 모르는 마음으로 떠나는 더디고 안타까운 여행이다." 라는 잠언 속에 펼쳐지는 주옥같은 글들은 책장을 덮은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남긴다. 〈모르는 마음〉은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다면'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사람은' '모르는 마음'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과 자연을 소재로 삶에 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 온 화가 오순환이 그림을 그려 마치 책장을 넘기면 그림 엽서 한편 씩을 읽는 듯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50년 수행지혜 96편 시와 에세이로
삶, 죽음, 행복, 비움 등 다양한 주제
오순환 화백 그림 독서미각 돋워

선묵혜자 스님의 에세이에는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러면서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게 만드는 지혜가 번뜩인다. "산다는 것은, 비갠 산사를 걸으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새와 바람과 나무와 한 몸이 되어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홀로 책을 읽거나 창을 바라보며 그리운 이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미소를 짓는 일입니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대를 기억하던 사람이 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이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많은 사람이 이 참담한 고통에 무너지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생즉필멸(生卽必滅),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죽음조차도 훌훌 놓아버려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욕망에 대한 선묵혜자 스님의 법문에선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공감하게 만든다. "인간의 욕망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욕망과 행복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친숙해졌다.' 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전 〈회남자(淮南子)〉에서도 '대지의 곡식을 다 주고 강물을 다 준다 해도, 배를 채우는 것은 한 줌의 곡식이며 갈증을 달래주는 것은 한 사발의 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재물과 몸을 누일 집 한 채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편 청담 스님을 은사로 열네 살 때 동진 출가한 스님은 오십여 년 간 오직 수행에 정진하면서도, 대중 불사에도 앞장서서 실천하는 '국민스님' 으로 불린다. 특히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결성, 2006년부터 9년 동안 한국의 명사찰들을 회원들과 함께 순례했는데, 여기에 동참한 신도만도 무려 60여 만 명에 이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독과 불안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무리 속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없다

고카미 쇼지 지음 | 정은영 번역
북스넛 펴냄 | 1만 1200원



어느 나라에 살든, 나이가 젊든 연륜이 있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곡예길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사자에게 위대한 철학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믿음은 받아들이기 버거운 생각의 짐만 더 쌓이게 만든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고민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의 주제는 고독과 불안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와세다 대학 측은 고독과 불안을 주제로 인생 특강을 개설했는데, 이 책은 저자가 와세다 대학에서 6년 동안 강연한 바로 그 인생 특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부드럽고 상냥한 어조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왜 가짜 고독에 휘둘리는가, 자신의 가치가 묻히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어떻게 사람을 성장시키는가,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리 밖의 삶은 왜 더 빛나는가 등,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과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수상한 신앙' 이나 '점술' '실체가 모호한 국가론' '자식에 대한 집착' '사기에 가까운 돈벌이' 혹은 '길들여진 일꾼을 좋아하는 회사' 에 매달리기도 한다. 고독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에 들어가지만, 무리 속에서도 고독과 불안은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 책은 고독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을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고독하고 불안한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떨쳐내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고독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무리에 섞여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독과 불안이라면, 그것을 마음에서 없애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하지 않는 마음이 삶을 조바심치지 않게 하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힘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혼자는 불안하고 비참하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고독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기속 진행된 저자의 특강 묶어
성취감 높은사람 고독과 불안감 커

폭발적인 인기 속에 진행되었던 저자의 와세다 인생 특강은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어 일본에서 3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 만큼 일본 사회 역시 개인들의 고독과 불안이 하나의 대중 심리 현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안정된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개인적 성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은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의 말처럼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도 고독하고 불안한 것"이 다가올 사회의 심리적 특징이라면, 우리 역시 앞으로의 그런 삶에 당황하지 않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사유와 공생의 詩心으로 빚어낸 우리들 삶의 이야기

안직수의 대화

안직수 지음 | 한강 펴냄 | 1만원



안직수 기자〈사진〉는 꿈이 많은 인물이다. 그래서 참 바쁜 사람이다. 사단법인 I길벗 상임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자신의 고향인 수원서 도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그가 가장 먼저 꿈꾼 것은 시인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때부터 오랜시간 '시' 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탓에 문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1996년 월간 〈문학공간〉을 통해 등단한 뒤에도 시를 쓰지 못했다. 등단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그가 시인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다.

본격적인 그의 시 습작은 그의 말을 빌자면 2010년부터 였다고 한다. 불교언론계 선배의 짤막한 메일이 그의 잠들었던 시심을 흔들어 깨웠다. "힘들 때 시를 써보라"는 것이었다.

이후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시와 사람들' 에서 활동하며 한 달에 한두어 편 습작을 했다.

저자는 "마음에 파동이나 격랑이 일 때 글을 한 편 쓰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곤 한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저자는 덧붙인다. "시집의 제목을 대화라고 붙인 것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다. 우리 사회의 무너져 버린 가치관에 대해 함께 대화 하고 싶었다. 또한 삶의 행복의 근원인 가족에 대한 생각,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는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고 속내를 피력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주목되는 주제는 '삶이란 무엇이냐' 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화두 식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시인의 답은 간단 명료하다.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란다. 거기엔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의 공생 언어가 직조돼 있어 읽는 내내 감동을 자아낸다.

"별이 된다면/희미한 가로등 의지해/고갯길 오르는/가난의 덫에 걸린 저 아이 붉은 뺨에/입맞춤하고 싶다(중략)"

안 시인에게 있어 별은 희망이다. 안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 내가 당신의 별이 되자"고 말한다. 그러한 시인의 마음은 〈가난을 위한 기도〉〈봄날에는〉 등의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고은 시인은 안 시인의 작품에 대해 "삶의 그늘, 삶의 비탈에 유난히 집중된 눈길이 닿아 있는 작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 이 나라 익명의 서민 서사를 시집 속의 많은 작품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그런가 하면 가령 '등산' 같은 거두절미의 핵심을 기껏 4행쯤으로 부려 놓은 단호한 기법도 놀랍다"고 평했다.



"오르다가/힘겨워 짐 내려놓고/간식 꺼내 먹으면/그곳이 정상이다"(등산 전문). 이 시를 몇 번이고 음미해 보면 과연 그의 기지와 촌철살인 같은 시심에 대 시인의 평이 인사치레의 과찬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한다.

안시인의 시세계는 최광호 한국문화예술연대 이사장(시인)의 서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최 이사장은 "안 시인은 여러

'삶의 근원' '행복' '가족' 등 시 소재
간결하면서 정돈된 축약의 미 돋보여

시 편에서 다양한 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시집의 주제가 '대화' 인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우리 어머니/참 고우시다/삶이 더 고우시다' 와 같은 '어머니' 의 시에서는 간결하면서 정돈된 축약의 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안 시인의 시집 주제어 가운데 또다른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가족' 이다. 가족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애틋함을 갖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때로는 다투고 갈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안 시인은 가족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가족의 일상을 수채화처럼 그려내면서 그 의미를 독자와 공유한다. 고인이 된 아버지를 위해 감나무 홍시를 남기는 시인의 마음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다. 기름기 뺀 담백한 평이한 시어의 조합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시로 담아낸 안 시인의 작품들을 이 쓸쓸한 가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닐까 싶다. 왠지모를 허전한 텅빈 만두 속 같은 마음을 꽉 채워주니 말이다.

김주일 기자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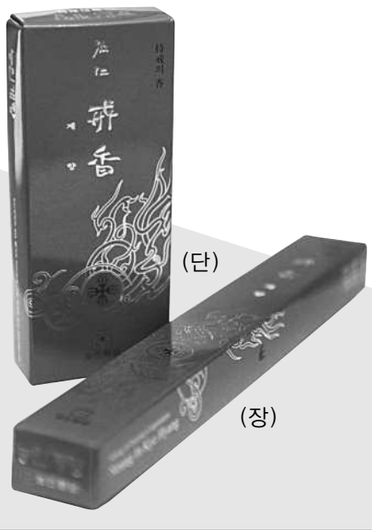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王부터 평민까지 불교 통해 안락얻다

15. 고려의 불교의례와 신앙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위로는 국왕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불교가 신앙되었다. 국가 차원의 불교의례뿐 아니라 다양한 법회와 재회, 결사, 사경 등이 전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규모 불사가 행해졌다. 불교신앙 또한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 현세의 고통을 구제하고 이익을 주는 관음보살, 윤회의 나쁜 과보에서 구원해 주는 지장보살 등 신앙의 대상이 다각화되었고 각종 결사와 지역 공동체 조직인 향도도 염불, 매향 등을 행하며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고려시대 불교의례 가운데 국가적 연례행사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국왕의 즉위기념 의례였던 보살계 수지와 관정도량 설행, 호국 기원의 성격을 가진 담선법회와 백고좌 인왕도량 등 왕실과 국가 차원의 의례와 법회가 행해졌다. 그리고 대개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대규모 반승행사가 동시에 펼쳐졌다. 국가적 의례는 봉은사와 같은 왕실 원찰에서도 열렸지만 궁궐 내 불당이나 정전에서도 설행되었다. 또한 제석, 용왕, 인왕과 같은 여러 신중에 대한 도량이 개설되고 법석이 마련되었으며, 기우제나 천재지변을 극복하기 위한 의례도 행해졌다. 각지의 사찰에서는 우란분재 등 각종 재회가 연중 이어졌고 불사의 낙성 및 경찬 행사에서도 법회가 거행되었다.

불교의례는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민심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세기 후반 성종 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고 유교 정치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는데, 당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는 "불교는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현재의 급한 시무입니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공덕신앙과 사회경제적 폐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불교는 고려시대 내내 신봉되었고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불교의례가 행해졌다.

특히 국난을 물리치기 위한 호국법회와 재회가 다수 확인되는데, 〈인왕경〉을 봉행하는 경행 행사가 연례적으로 치러졌고 호국적 성격을 띤 나한신앙이 유행하였으며 다라니를 외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소재도량과 밀교도량도 개설되었다. 13세기 대몽항쟁기에는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진병 의례가 자주 설행되었다.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함에 따라 봉은사와 법왕사, 현성사 등 개경 소재 주요 사찰들이 규모를 축소하여 강화도에 다시 세워졌고, 이들 사찰에서는 국가의례였던 연등회와 팔관회, 그리고 호국도량인 인왕도량,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문두루도량과 마리지천도량 등이 설행되었다. 이 시기에 화엄신중도량, 천병신중도량 같은 불국토를 보호하는 신중도량을 집중 개설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국력을 기울여 재조대장경을 조판하는 등 불교에 대한 신심에 기대어 전쟁 종식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1259년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기 직전인 1257년의 기록에서 "계책이 더 나올 것이 없고 오직 불우와 신사에서 기도할 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종교를 통해 그나마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모습.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국가 행사로 봉행됐다.

연등회 · 팔관회 국가 행사로 개최
왕실 권위 높이고 민심 안정 도모
몽골 침략땐 호국적 나한신앙 유행
우란분재 등 천도 의식도 활성화
결사, '염불·塔좁' 행복·왕생 기원

고려시대에도 불교의 종교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세에 대한 염원의 해소였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확실한 문제였고 불교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후 불교의 내세관과 정토를 향한 염원은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망자의 추도 의례인 상례 또한 승려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점차 불교식 의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일반민까지 모든 이들이 불교식 상례를 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화장의 경우 많은 목재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보통의 경우 이를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벌판에 시체를 놓아두는 풍장의 풍습이 행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승려는 물론이고 왕실과 귀족 관료들의 경우 화장과 같은 불교식 상례가 관행적으로 행해졌다. 한편 유교식 상제례나 삼년상의 사례도 있으며 매장이 이루어지는 등 불교와 유교식 의례가 혼용되는 모습도 보인다. 현존하는 고위층의 묘지명을 보면, 1105년 정목이 용흥사 덕해원에서 죽자 불교식 의례를 거행해 절의 서쪽에 화장하였고, 1077년 선종의 장인인 이정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세상을 뜨자 다비식을 행한 후 유해를 사찰에 안치하여 불사를 설행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매장하였다. 당시 화장을 한 후 절에 안치했다가 재매장하는 방식이 예라고 인식되기도 했다. 상례뿐 아니라 제례도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불사를 베풀고 재계를 행하며 망자의 명복을 빌고 차나 다과로 공양하였다. 불교식 천도재로는 사십구재, 우란분재, 수륙재 등이 설행되었는데, 보통 화장하고 3개월 정도 납골을 사찰에 봉안하였기에 백일재까지는 설행한 후 매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부터는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들이 불교식 상장례를 행하는데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고 조선 건국과 함께 화장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매장과 유교식 상장례가 일반화되어갔다.

천도재의 일종인 우란분재는 고려시대에 음력 7월 15일 백중에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우란분재는 〈우란분경〉에 의거해 망자의 영가를 추도하고 천도하는 의식이었다. 원래 우란분재는 하안거를 해제할 때 수행 및 공덕을 쌓은 승려를 공양하는 법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우란분경〉의 목련존자 이야기를 부각시켜 효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면서 성행하였다. 이후 조상의 명복을 빌고 지옥을 비롯한 삼악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천도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려에서는 늦어도 12세기부터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우란분재가 설행되었고, 왕실에서 일반민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행해졌다.

조선 세종대 실록기사에 나오는, "도성의 거리거리마다 깃발을 세우고 쟁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해 공양할 찬구를 늘어놓아 행했다. 사녀와 향사의 집에서도 이를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앞서 고려시대 우란분재의 설행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5세기 말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갖가지 꽃과 과일을 모아 놓고 우란분을 마련하였는데 도성의 비구니 사찰에서는 특히 성대히 행해졌고 부녀자들이 다투어 쌀과 곡식을 바치며 죽은 부모의 영혼을 제사 지냈고 간혹 승려들이 길거리에 탁자를 마련해 행사를 열었다"고 전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천도재로는 물과 육지의 중생과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수륙재를 꼽을 수 있다. 시아귀회에서 연원한 수륙재는 중국에서 9세기 말~10세기 초에 의식문을 갖춘 독립된 불교의례로 정비되었고 전래는 고려전기에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후기부터였다. 고려 말에는 왕실의 상장례에 수륙재가 포함되었고, 다른 불교재회와는 달리 조선전기까지 국가 차원의 의례로 행해졌다. 조선 태조에 의해 국행 수륙재가 설행되었으며 세종대 국가의례를 정비할 때도 왕실의 기신재가 수륙재로 통합되어 이후까지 존속하였으며 그로인해 〈경국대전〉에 수록된 유일한 불교의례가 되었다.

고려인들은 내세에 극락정토와 같은 불교의 유토피아로 가기를 원했고 최소한 6도 윤회 중에서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의 삼악도로 떨어지는 불행한 경우를 피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고려 전시기에 걸쳐 내세신앙으로서 아미타 정토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고, 고려후기부터는 삼악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희구하는 지장신앙이 성행하였다. 현존 고려불화 중 상당수가 아미타불화인 사실은 아미타 정토신앙이 고려사회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미타불화 중에는 현세의 관음보살과 내세를 위한 지장보살을 좌우로 거느린 그림이 있어 주목된다. 보통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하는데 망자의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장보살을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장신앙과 함께 현생의 업보를 판정하는 시왕에게 자비를 비는 시왕신왕도 고려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려시대 지장신앙의 특징은 망자를 천도하고 추복하는 행위였음에 비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지옥에서 고통 받는 직접 중생을 구제해 주는 영험 있는 보살로 각광을 받았다.

현세신앙으로는 현실의 고통을 덜고 행복과 안락을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전심전력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관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언제, 어디서나 몸을 자유롭게 바꾸어 나타나서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관음은 복덕을 나누어주는 자비와 보살행의 화신이었고 심지어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보살이었다. 고려불화에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따온 수월관음도가 많이 남아있고, 수많은 팔과 손을 가진 천수관음 또한 불교미술의 중요한 도상이었다. 관음신앙은 화엄종, 법상종, 선종, 밀교, 정토신앙 등과도 융합되었는데, 고려후기 화엄학 승려인 체원은 관음보살에게 발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에 주석을 붙였고 〈화엄경〉에서 관음신앙과 관련된 영험담을 모은 책도 펴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신앙공동체인 결사가 다수 조직되었는데, 잘 알려진 지눌의 수선사, 요세의 백련사 결사 외에도 만일염불, 매향을 위한 결사 및 향도 조직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만일염불결사 가운데 1123년에 지리산 수정사에서 열린 결사에서는 선 · 교종의 승려와 다양한 계층의 3천여 명이 참가하여 염불, 송경, 좌선 등 각자에 맞는 수행법을 실천하였다. 또한 나무 간자에 이름을 새기고 〈점찰업보경〉에 의해 간자를 던져 선악의 보응을 점치는 점찰신앙도 행해졌다. 향도는 지방사회의 지역공동체 조직으로, 981년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향도 20명이 마애 반가상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불상, 탑, 종, 불화 등의 조성과 중창불사, 염불및 재회, 윤경회와 경행, 상장례 등을 함께 행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향도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매향 의식으로서 이는 지역민들이 향나무를 묻는 의식을 함께 행하면서 공동체의 단결과 번영을 기원한 것이다. 매향은 〈미륵하생경〉에 의거하여 향을 묻는 발원자가 향의 연기를 매개로 미륵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의식이다. 침향을 갯벌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로 바닷가 지역에서 행해졌고 시기적으로는 고려 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무신집권과 대몽항쟁, 원간섭기 등 계속되는 내우외환으로 기존 향촌질서에 큰 변동이 발생했고 연해지 개간, 농장 확대 등으로 새로 촌락이 형성되면서 그에 맞는 향촌 공동체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연해 지역은 왜구 등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촌락의 결속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는데, 미륵의 도솔천 정토로 왕생하거나 미래의 용화세계를 꿈꾸는 매향의식은 이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탄)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문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松송 根근 油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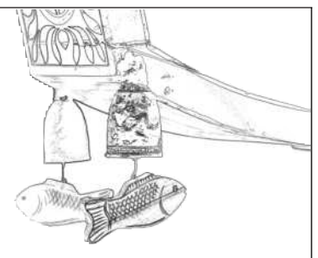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 / 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
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인 연 명 리
명리 속성반 모집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모집 중)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건강 태극권 개인지도
남양주시 화도읍
노후 건강 관리법
치매 중풍 예방법
20년 수련
031-591-9023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63세이하)
010-3499-372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
010-7311-5335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배우자를 찾습니다
경북 청송 산속에서 살고
있는 66세 처사입니다.
노년을 함께하실 60세
전후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6394-3390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60대 전후)
010-3755-4242

조용히 수행하며
노후를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8073-1155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울산)
011-875-63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타로 무료 수강생 모집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도심 포교원)
010-3618-606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치포핼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코스: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상동 / 비용: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임 대

- 위치 : 안동 풍산읍 서미리
- 법당 요사채 60평, 텃밭 1,600평
- 삼존불, 탱화 등
- 선착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무, 10년간 임대 시설비 없음

010-6602-553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6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 양도:10억원 ◎ 양도: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 찰 안 내

60년 전통의 경기인근 충북의 사설사암 비영리단체등록 수행도량

- 서울에서 1시간거리의 조용한 복숭아 과수원의 전원마을
- 종교용지~720평 (별도 국유지100평 점유사용)
- 대웅전~ 56평의 전통 3포양식의 닷집 단청 삼성각.종 각 5층 석탑.관세음 보살 석상 다보탑.석가탑.석등.포대화상. 요사채 2동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320 (다음 지도검색 에서 로드뷰 로 확인 하시길)
- 가액: 8억 5천 만원

010-6372-8968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2층 임법당, 대지 99㎡
- 1층 방2, 부엌, 창고, 욕실
- 2층 법당 삼존불
- 옥상 휴게실, 텃밭. 주차가능
- 지하철, 버스, 시장 가까운 곳
- 가액 : 1억 4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북삼읍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소불 60불
- 주차 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203-336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거창 수려한 경관 고찰터에 위치한 사찰
- 대지1000평, 전통법당40평 , 요사채100%, 황토40평
- 공양간30평,후원10평,대형창고, 삼성각, 365일물흐르는 용왕당, 사과 아로니아 200평
- 가액 : 8억 5천

010-6534-46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 자원 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2평(3층 중 2층)시설내부(최상)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억 3천5백 (대출 4천포함) 시설비, 비품 포함
-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전남곡성, 옥과IC 5㎞, 초중고,대학교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안산매봉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소나무속 암자, 노천약사석불,
- 血사리봉안, 선원, 별장가함
- 가액 : 3억5천(답사후절충가)

010-8224-1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대웅전 10평, 산신각2평, 용왕각1평반, 요사채15평. 11평
- 차실8평, 종교부지176평
- 가액 : 1억9천

010-3793-10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3분
- 대지 300평, 남향, 청기와, 빨간 벽돌집
- 내부 40평, 방3, 거실, 부엌, 화장실, 창고2개, 마당,반송3, 단풍, 라일락, 텃밭, 뒷뜰 넓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사 찰 안 내

- 위치: 문경시 동로면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 심야전기
- 텃밭 일부
- 가액 : 3억 7천

011-9731-1415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 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가평군 설악면
- 사찰 약 60평(2층) 대지 92평
- 1층 대중방, 공양간 2층 법당, 스님방
- 가액 : 2억 3천

010-9999-0352

사찰지(급) 안내

- 위치: 장흥,일영(서울10분)
- 임야 18,372평, 대지 437평, 평지 1500평(건물 8동)
- 정남향, 20m 좋은 냇가
- 신축 216평 (3층가능)
- 숙박허가, 힐링센터 가능
- 가액 : 15억 (융4억 포함)

010-3237-3618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한우산 (합천 삼가면시장 7분거리)
- 평수 : 1060평 (녹차밭 480평 포함)
- 가액 : 1억 3천
- 고려시대 절터로 지목, 답이나 평토작업하여 하나로 되어 있음

010-6239-316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영산 갓바위 자락
- 대지 225평, 답 298평, 도로인접
- 1층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26.47평 1층 슬라브 창고, 법당 21.22평 1층 시멘트 블럭조슬라브 12평 62평 방4개 응접실, 주방, 욕조, 화장실 0.8평
- 주불 지장보살, 탱화, 신중, 칠성, 산신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0-6534-1777

010-3511-6781

친환경 삼베타올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 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24분, 신중
- 방2개, 주방1개, 욕실 창고, 13평
- 가액 : 6,500만원(가격절충)
- 대출 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542-0982

사 찰 구 합 니 다

- 위치 : 경기, 천안 권
- 창건주 승계도 가능함
- 부동산 중매인 사절

010-4415-0788

포 교 원(급)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급)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5451-6056

토굴 및 임법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우암2동 (구 동사무소 150미터 앞)
- 평수: 총대지 40평 중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탱화, 영단) 슬라브 건물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정남향 위치, 텃밭도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없음(주인 직접 연락)

010-2055-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1,000평, 건평 1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7천만원

010-4519-0363

010-8181-061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군 고경면 파개리
- 인법당 33평 요사채 10평
- 대지 200평
- 경주, 포항 15분거리
- 가액 : 1억 6천만원 (스님 환영)

010-3528-8472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3〉 물질 수행

물질 사라져야 '무상' 찾아온다



4대의 12가지 속성

물질 수행을 하기 위해 4대 수행이라는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한다. 4대 수행은 물질을 보는 수행인 동시에 근접삼매를 얻을 수 있는 사마타 수행이다.

4대 수행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정을 먼저 닦고 난 뒤 하는 것과, 선정을 닦지 않고 하는 것이다. 아나빠나사띠로 선정을 먼저 경험하고 난 뒤에 하면 4대 수행이 별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4대 수행을 통해 처음으로 삼매를 닦는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선정을 얻고 난 뒤에 하는 것이나 선정 경험 없이 하는 경우나 4대 수행을 하는 방법은 같다.

나는 아나빠나사띠,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 까시나 수행을 한 후에 4대 수행을 했기 때문에 4대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나빠나사띠와 까시나 수행을 통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차례차례 했다. 까시나 수행을 통한 사선정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한 후에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서 4대 수행에 들어갔다. 몸의 32부분에서 4대를 식별하는 식으로 4대 수행을 했다.

처음에는 4대를 식별하는 훈련을 한다. 4대는 지(地, 땅), 수(水, 물), 화(火, 불), 풍(風, 바람)이다. 지, 수, 화, 풍이라고 하여 물질이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물질의 성질이나 속성,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성질이 모이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질량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보통 땅 하면 딱딱한 형태를 갖춘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4대로서의 땅은 본질적으로 땅의 속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땅의 속성을 가진 것은 어디 있든, 크든 작든 다 땅이다. 물, 불, 바람도 마찬가지다. 궁극 물질인 4대를 식별하려면 4대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4대 수행은 4대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땅의 속성으로는 6가지가 있으며, 이 속성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한 그룹이고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다른 한 그룹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거침과 매끄러움도 그렇다. 무거움과 가벼움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서로 짝이 되지 않는 속성들은 같이 있을 수 있다.

물은 흐름과 응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은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람은 밂과 지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 수, 화, 풍의 속성은 이렇게 모두 12가지다. 이 12가지 속성으로 모든 물질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기본 원소만 해도 1백여 가지가 되는 현대 자연과학에서의 물질 분류와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자연과학에서의 기본 원소는 아주 작긴 해도 모두 형태가 있다. 붓다가 이 기본 원소들을 본다면 아마 각 기본 원소가 더 이상 나뉠 수 없다는 기본 물질이 아니라 4대가 함께 들어 있는 복합물이라고 말할 것이다. 기본 원소가 더 작게 나뉠 수 있다는 뜻이다.

지, 수, 화, 풍의 속성 12가지로 모든 물질을 식별할 수 있다. 12가지가 있으면 물질이 있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4대의 12가지 속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땅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물에 응집 속성이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응집 상태로 있는 것은 왜 다 물일까? 나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이해했다. '응집하는 속성이 물의 속성이고 응집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다. 응집이 되려면 응집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응집을 시키는 것이 없으면 물질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밀가루가 물 없이는 밀가루 덩어리로 뭉칠 수 없듯이 어떤 물질도 물의 요소 없이는 뭉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응집시키는 '힘'을 붓다는 물로 봤다. 뭉쳐 있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는 물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흐르는 것도 물로 봤다. 물질이 있으면 흐름이나 응집이 항상 있다. 물질 속의 물의 요소에 의해 그렇게 된다.'

물질 수행–8가지 기본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관습 실재와 궁극 실재의 형태로 존재한다. 관습 실재란, 우리의 감각기관을 감지된 형태에 우리가 약속을 통해 어떤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누구나 손을 보고 손이라고 하고, 발을 보고 발이라 하는데 이것이 관습 실재다. 인간이 만든 개념도 관습 실재에 속한다.

이에 반해 궁극 실재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 실재는 최소 단위가 된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관습 실재인 손이 날씨가 추워지면 색깔이 변하고 크기가 변하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이는 존재해 있는 동안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궁극 실재가 영원하다는 뜻은 아니다. 궁극 실재도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궁극 실재에는 4가지가 있다.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이다. 물질 수행은 이 가운데 물질을 보는 수행이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정신 수행에서 본다. 열반은 위빠사나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경험할 수 있다.

물질에는 모두 28가지가 있으며 이는 다시 구체물질과 추상물질로 나뉜다. 물질 수행에서는 구체물질 18가지를 먼저 식별한다. 깔라빠에서 구체물질을 식별한다. 깔라빠는 물질이 존재하는 최소 형태라고 말했다.

깔라빠에는 세 종류가 있다. 물질 8가지가 모여서 된 것과 9가지가 모여서 된 것, 그리고 10가지가 모여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8가지 물질은 같이 모여 있다. 그 8가지 물질은 지, 수, 화,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다. 어떤 깔라빠가 있든지 이 8가지 물질은 있다. 깔라빠 속의 물질을 하나하나 식별한다. 깔라빠가 워낙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탓에 처음에는 식별하지 쉽지 않지만, 조금 훈련하면 깔라빠에서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 깔라빠에 땅 물질이 있는 것이다. 없으면 식별이 안 된다. 땅 물질 식별하기가 숙달되면 물 물질의 흐름과 응집을 감지한다. 4대 수행을 통해 4대의 12가지 속성을 빠르게 식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 어렵지 않다. 그런 다음 불 물질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식별하고, 바람 물질의 밂과 지탱을 식별한다. 19가지 구체물질이 있지만, 모든 물질은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색깔을 비롯한 14가지 물질은 4대에서 파생된 것이다.

4대 다음으로 색깔을 식별한다. 깔라빠에서 색깔을 식별한다. 눈에 있는 깔라빠에서부터 시작하여 귀, 코, 혀, 몸, 심장에 있는 깔라빠에서 색깔을 식별한다. 위치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내 경우, 처음에 깔라빠에서 색깔을 식별할 때 눈에서는 흰색, 귀에서는 검은색, 코에서는 녹색과 붉은색, 혀에서는 녹색, 몸에서는 노란색이 보였고, 심장에서는 흰색과 붉은색이 감지되었다. 나중에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감지되었다. 깔라빠에서 색깔을 보려고 하면 직감적으로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다. 지혜의 눈을 통해 바로 보인다.

선정 관계없이 4대 수행 가능
지 · 수 · 화 · 풍 식별 훈련부터
모든 존재는 관습 · 궁극 실재
궁극 실재 중 물질 수행 나타나

냄새 식별은 코에서 시작해 눈, 귀, 혀, 몸, 심장에서 모두 한다. 코에서 먼저 하는 것은 냄새 식별이 코에서 뚜렷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냄새를 식별할 때는 코에 있는 깔라빠에서 화장품 냄새가 났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냄새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화장품 냄새가 분명히 났다. 눈에서는 눈곱 냄새나 물 냄새 같은 것이 났고, 귀에서는 구린내, 혀에서는 역겨운 냄새, 몸에서는 약한 땀 냄새, 심장에서는 피 냄새가 났다.

맛도 눈, 귀, 코, 혀, 몸, 심장에서 식별했다. 눈은 약간 짭짤하거나 그냥 물맛이었다. 혀는 침 맛이었고, 몸은 짭짤한 맛이었다. 각 깔라빠에 맛이 있었다.

물질의 분열

물질은 4가지로부터 생긴다. 바로 업, 마음, 온도, 음식이다. 업에서 생긴 물질은 10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물질과 심장토대, 남성 물질, 여성 물질, 생명기능 물질에서 보면 된다. 앞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설명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온도의 분열에 의해서 생긴 물질이고,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음식으로부터 생긴 물질과 영양소의 분열로 생긴 물질이다.

물질 중에 분열하는 것이 있고 분열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분열하는 것은 깔라빠 내의 온도(불 물질)와 영양소이다. 온도가 분열하여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가 생긴다. 다시 그 속에 있는 온도가 분열하여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가 생긴다. 영양소의 분열은 좀 복잡하다.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는 소화 열의 도움을 받아 분열한다. (소화 열은 생명기능 물질로, 업에서 생긴 물질이다.) 분열되어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가 생긴다. 분열된 물질이 온몸에 퍼진다. 그에 비해 업, 마음,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의 영양소나 오래된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는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와 소화 열의 도움을 받아 분열하여 깔라빠가 생긴다.

분열하는 정도는 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는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하면 한두 번 분열하기도 하나, 선정의 힘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으면 분열을 많이 한다.

눈, 귀, 코, 혀, 몸의 5문에서 생긴 마음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의문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긴다.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8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볼 때는 마음이 활동할 때 의문에서 생긴 물질을 보면 된다. 온도나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보려면 업이나 마음, 온도, 음식으로 생긴 깔라빠 내의 온도나 음식의 분열로 생긴 물질을 보면 된다. 그 물질들을 볼 때 얼마나 분열하는지 본다. 그러면 물질에 따라 분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문에서 업,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식별한다. 그다음에 몸의 32부분에서 업,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식별한다. 32부분의 물질 식별이 끝나면 32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몸의 불의 요소 4부분과 바람의 요소 6부분을 식별한다. 그래서 몸은 모두 합하여 42상이 된다.

이렇게 하여 몸의 42상에서 물질을 식별했다. 이제 구체물질 식별에 이어 구체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인 10가지 추상물질을 식별한다. 먼저 허공의 요소라는 물질은 깔라빠를 식별할 때 이미 식별했다. 깔라빠가 덩어리져 있다가 공간을 식별하면서 개개의 깔라빠가 모습을 드러낼 때 본 공간이 추상물질이다. 그다음 추상물질 3가지는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이다. 수행 중에 몸의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가벼움이다. 가벼움은 땅의 속성이다. 가벼움이 있으면 땅 물질이 있는 것이다. 가벼움과 부드러움이 있으면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적합한 상태가 물질의 적합함이다.

나머지 추상물질은 생성, 상속, 쇠퇴, 무상함이다. 생성은 재생연결 때 물질이 처음 생기는 것을 말한다. 재생연결 때 생기는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 3가지다. 심장토대가 있는 깔라빠, 몸 감성물질이 있는 깔라빠, 성 물질이 있는 깔라빠다. 그래서 생성은 12연기 수행 때 관찰할 수 있다. 상속은 생성 뒤에 눈 감성물질 등이 생기는 것이다. 쇠퇴는 물질이 머무는 것을 말한다. 무상은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추상물질 10가지를 식별함으로써 모든 물질을 식별한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정사
• 주 지 : 일묘 (양형심)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로 3가 12-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전강 스님 ㊦

의문 경지 끝에서 '생명력' 처방받다



법(法), 193×95cm, 종이에 수묵, 2012.
사상이 높다는 것과 사상이 깊다는 것은 다르다. 스님의 법문은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다. 정신의 최고수는 소박하지만 결이 살아있다.

창작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와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그림 도구에 대한 자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술을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깊다. 작품을 하는 모든 재료는 창작자 자신이 몸과 생각을 씻고 관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 재료인 먹을 가는 벼루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선비들이 거론한 벼루에 대한 글들이다.

"먼지를 털고 벼루를 씻으며, 향을 사르고 차를 끓이고, 화병에 꽃을 꽂고 주련을 걷어 올리니, 일마다 몸소 하기에 힘들지가 않다"

"비록 글씨는 잘 쓰지 못하더라도 붓과 벼루만큼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 켜켜이 앉은 벼루는 주인의 얼굴에 묻은 때다… 얼굴을 씻듯 벼루를 닦는다."

"문인에게 있어 벼루는 미인에게 있어 거울과 같다. 일생 동안 곁에 두고서 가장 친히 지내는 물건인 까닭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벼루를 깨끗이 씻고 먹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판치생모' 화두 타파하며
전강 '대선사' 호칭 얻어
생명력 자체란 사실 깨달아
스님 모습 그리는 것 아닌
살아있는 에너지 마주해

나는 스님을 그리면서 이 벼루의 검은 먹물 속에서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스님의 하루는 법상에서 시작한다. 법문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 졌다. 주제는 따로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펼쳤다. 스님의 화두는 '판치생모'이다. 널빤지와 같은 이에서 털이 난다는 뜻이다, 스님은 이 화두를 타파했다. 그래서 대선사의 칭호를 얻었다.

본래 판치생모는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판치생모니라' 고 답했다는 말에서 비롯된다. 애매모호하다. 깨침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화두를 내린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인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제3자가 알 수 있는가? 마음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면 결국 이심전심이 아니라면, 깨달은 경지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아성으로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장치인 것은 아닌가? 깨달음은 어떻게 증명하는가의 문제였다.

나는 한때 이런 의문으로 번민한 적이 있다.



먹(墨), 193×95cm, 종이에 수묵, 2012.
생명은 깊은 원리이다. 주와 객은 부정과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모순과 역설이다.

내가 학교를 막 가려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내 머리를 툭 친다. 그 뿐이었다. 그리고 학교에 늦을까봐 서둘러 뛰어갔다. 쉬는 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불현 듯 어머니가 왜 내 머리를 쳤는지 생각이 났다. 아,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 자기 전에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라 했는데 깜박했구나. 그래서 머리를 쳤구나. 나는 화두에 대해 이렇게 이해했다.

어느 날 잘 아는 화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개인전을 준비하는데 그림에 대해 조언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작품에 대해 한참동안 느낌대로 설명을 했다. 작품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력의 힘이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서는 살아 있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마지막 한 수가 작품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수를 찾아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그 한수는 맺힘과 풀림의 순간에 있다. 그 방식은 그림마다 다르고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주장에 급급했고 나를 설득시키려 했다. 나는 작업실을 나오면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냐?" 했다. 이 말은 단순히 날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말은 그 말뜻을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다. 이처럼 화두도 내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된다.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뜻을 아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기실 깨달음이란 그것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깨달음은 과학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증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견해가 한 번 트인 사람은 눈치가 다르다. 영감으로 알 뿐이다. 나는 깨달음의 경지가 이럴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공부할 때의 분위기가 생각났다. 궁극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살아있는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퍼졌다.

가르침이란 그것을 주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받는 법이다. 에너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죽어있는 시체를 받았다면 어떻겠는가? 화두가 죽은 것 아닌가?

'판치생모' . 나는 이 화두를 들면서 송곳으로 뼈속을 후벼 파듯 궁구해 나갔다. 어떻게 이빨에 털이 날까? 의문이 생겼다. 의문을 키워 나갔다. 그 의문이 선정이 되도록 계속 확장 해 보았다. 그리고 자면서 까지 의문 속에서 잤다. 만약에 오매일여의 경지라면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의정에 들다 보면 깨달음의 인연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전강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스님은 내가 왜 찾아 왔으며 어떤 것을 갈구하는지 알았다. 그것을 알기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었다. 그 처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했다. 오늘 갈 때와 내일 갈 때가 다르듯 그 경지에 맞는 그대로의 처방을 내려 주었다. 그것은 분명 생명력이었다. 아! 이것이로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서려는 순간 또 다른 의문의 경지에 갇힌 듯 혼미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다. 그 길은 혼자 가야 할 길이다. 세계의 진실을 노래하는 예술가는 선험적으로 고독하다하는데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체득이란 이렇게 멀고도 먼 것인가?

나는 보통 오전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친다. 전강 스님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에너지가 맞선 채 들어온다. 진정한 고수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하고 재주가 다 보이면 이미 재주가 아니라 했다. 진실은 무질서와 열정 속에 뒤섞여 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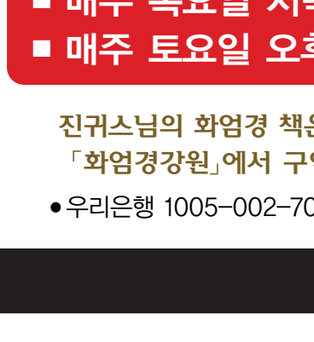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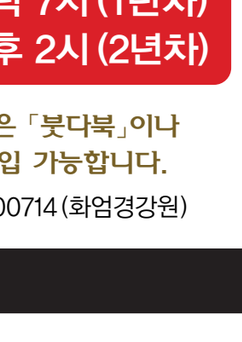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불자 세상보기

"南北평화체제, 정부 노력에 달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만들어낸 8 · 25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진행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1차례에 불과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대화가 이뤄질 때 북측이 남측에 주는 선물처럼 간헐적으로 찔끔찔끔 이뤄졌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빨라져 이산의 한을 품고 자연수명을 다하는 이산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일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천륜(天倫)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분단모순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합의의 단골메뉴로 합의이행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돼 왔다. 이번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도 상봉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8 · 25합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남북 당국회담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8 · 25합의는 당국회담을 제외하고 이행국면에 들어섰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지난 10월 15일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민간교류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8 · 25합의에 따라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국면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는 가설 아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추가 제재와 압박을 불러올 고강도 도발을 피하고,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충격을 주고 벼랑끝 전술을 펼치며 대화국면을 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대외관계를 확장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카드는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에 대비한 국면 전환용 후속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 · 25합의 이후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과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과속론'을 펴기 시작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 남북관계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밝힌 것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 없이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남북관계 대전환 요구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8 · 25합의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남과 북 모두 최근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 · 25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제재를 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관계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전략적 도발카드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발언대

지역공동체 포교 활성화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5차 포교 종책 연찬회-지역공동체 포교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전문가들의 지역공동체 포교 활성화 방안과 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공동체 포교 중요성 인식해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지역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지역포교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는 다양한 지역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의 많은 사찰들은 아직도 지역공동체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의 무관심, 지역포교역량 부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계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원에서 포교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지속가능한 불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구본사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더불어 사찰의 지역 포교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포교는 종단의 포교원, 교구본사, 해당 지역의 단위사찰이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하고 이끌어 줘야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나눔 · 배려의 종교 리더십 필요



김광수
㈜판세 부설 상생발전소장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경제와 결합할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향력이 시너지를 발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나눔과 배려가 돋보이는 종교기관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간과 재능 콘텐츠 공유를 각각의 방식으로 실행함으로서 지역공동체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교기관이 지역사회 또는 공유경제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이슈를 발굴함으로서 지역과 종교기관의 상생 모델이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다.

나눔과 배려, 관심을 통해 발견된 문제의식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공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융합 · 활용하는 대안 마련이 종교기관의 입장에서 절실함으로 다가가야 할 기본 자세라고 제안하고 싶다.

연기적 포교 모델 고민해야



최병호
농선도량 관음사 법사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다 많은 재화를 획득하라고 가르쳤다. 중생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은 건전한 도덕 생활을 유지하고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교 전략을 수립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도시 사찰과 농촌 사찰이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고 공유해야 농촌 포교가 성장할 수 있다. 농촌 불교 신앙공동체가 가진 농업 자원을 도시 사찰과 연계하는 유통채널 구축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찰음식 특화 전문점 오픈과 마케팅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찰음식과 연계하는 모델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 휴양림을 기초로 한 자연치유 명상센터 건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

불법(佛法)으로 어떠한 괴로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포교 전략이 지역 자원과 인력, 지역 공동체와 함께 또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기획된다면 연기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포교 전략이 탄생하리라 기대한다.

社說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한국 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종교 내부에서도 냉담 신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계의 신뢰도는 11.8%로 대기업(12.4%)보다도 낮았다. 수많은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기업보다 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종교계의 신뢰 수치는 지난해 조사한 신뢰도 25.0%보다 13%가량 하락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이다.

3대 종교별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39.8%로 가장 높았다. 성직자 신뢰도에서도 신부가 51.3%로 가장 높았다. 스님의 신뢰도는 38.7%로 그 격차가 상당했다.

역설적인 것은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 20대의 종교 신뢰도는 8.4%, 30대는 6%에 그쳤다. 저소득층은 8.7%만이 종교를 신뢰했고, 중산층은 10.1%, 상위층은 25%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제도권 종교가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에 거부감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한국 종교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종교 본연의 임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 종교는 '중산층 이상의 종교'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나가야 한다. 종권 다툼에 혈안되어 닭벼슬 같은 중벼슬에 집착해서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

불교는 대형 불사를 위해 신도들의 보시와 희사, 기도 수입을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찰 · 학회 연대 활성화 기대한다

최근 불교학계가 사찰과 상호 연계를 통해 재정 · 인력적 한계를 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각사상연구원은 11월 4일 속초 신흥사와 신흥사 설법전에서 '설악불교의 귀원정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은 올해 4월에도 월정사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받기도 했다.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대학원도 11월 2일 김포 중앙승가대 교무회의실에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들 교육기관은 학인 대상 입학금 면제 및 교수 임용 혜택을 비롯해 상호간 학술교류를 위해 연1회 학술세미나 및 특별 교류 강의 시행과 학술간행물 상호 제공 등을 진행한다.

학회 간 연대도 활발하다. 2012년 불교학계 대표단체인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워크숍을 함께 한데 이어 올해 한국불교학회와 밀교문화연구원의 공동워크숍 등으로 이어지는 등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 같은 학계의 연대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높다. 대표적 학회의 회비 납부율이 30%임을 감안하면 학회, 사찰, 문중 간의 연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불교계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학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소위 연대 과정에서 쓰여지는 맞춤식 논문들은 학술적 객관성 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찰과 문중들의 불교계 학회들과 연대한 것은 학회의 재정적 도움과 연구 지평을 높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담보되어야 할 부분은 학회가 갖는 정체성을 십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학 발전은 미래 인재양성과 불교 대중화의 기틀이다. 미래 불사의 차원에서의 사찰 · 문중과 학회의 연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칭기즈칸의 참모 야율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종용록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낱권 판매 불가)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국가 초월한 보시행 글로벌 시대 우리의 의무”…

지암 스님 (은진사 회주 ·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은 … 한국장애인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회장, 부산국제불교연합회 회장, 한국 · 태국 · 티벳 · 베트남하노이 · 국제불교 교류회장, 국제NGO자비의등불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캄보디아정부로부터 사마트라이 훈장 품수를 받았으며, 캄보디아 승왕 뎃붕 스님으로부터 한국 제1대 승왕으로 인준 받았다. 현재는 (사)Dream C.T 다문화공동체 이사, 대한불교법운종 은진사 회주,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다.

“벽암록(碧巖錄)에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모든 존재 역시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뜻이지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에 기반을 두어 자비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계가 이웃 종교보다 국제구호 운동에 뒤처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펴는 부산 은진사 회주 지암 스님(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은 1995년대부터 20년간 해외로 눈을 돌려 빈곤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선행 가운데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급수공덕(給水功德)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빈곤국에서는 빗물을 받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뭄 때는 오염된 웅덩이의 물을 마시다가 배탈이 나기도 하고 피부 질환이나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핸드펌프를 10여기 설치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죠. 사전 조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 뒤 20가지 수질 검사를 해 식수에 적합한지, 생활용수로 쓸 만한지 꼼꼼히 따집니다. 우물 개발 이후에도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생기면 더 깊이 파주거나 이용을 제한하죠. 그곳에서는 펌프가 고장 나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5년전부터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에 우물 및 정수기 시설 설치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지암 스님은 당시 현장 모습을 생생히 전한다. 스님은 ‘국제NGO 자비의 등불’ 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월 부터는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국제 구호단체인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를 설립했다. 이 단체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도 캄보디아와 미얀마이다. 극심한 부의 편중과 낮은 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수질 등 열악한 생활환경. 이를 보다 못한 한국의 여러 단체와 스님들이 이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더 많다는게 지암 스님의 생각이다.

“가난한 나라는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특히 자라야할 아이들의 상황은 더 가슴 아프지요. 아이들이 제대로 못 배운다는 것은 한 가정 한 국가의 미래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어디를 가든 지붕이 낡아 우기 때면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를 피할 길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현실은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식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었지요. 한 번은 캄보디아 씨엠립의 한 마을에 쌀 5톤과 의류를 지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뼈가 앙상한 아이들과 마주쳐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지만 다시 마음을 다져 원력을 세웠지요. 비록 내가 가난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손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부처님을 믿는 나라에서 굶주리는 아이, 시설이 낡아 배움을 중단해야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보시행에 눈을 뜨다

20년간 지역 학생 1천명에 장학 사업
지난해 중학교에 교복 8백 여 벌 보시
사회진출 후 감사인사 답지 큰 보람

해외 구호사업에 첫 발

캄보디아, 쌀 및 의류 전달과 학교수리
미얀마, 우물 및 정수기 시설 설치
빈민지역 학생들과 후원 자매결연 추진

그렇게 해서 씨엠립시 소재 돈우어 초등학교 오지마을 학교를 개보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펼치게 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교과서를 나눠주고 빈민촌을 방문해 쌀을 후원했다. 후원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종교국 행정 책임자를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스님들을 위해 컴퓨터도 지원했다.

그런데 지암 스님은 미얀마를 가는 순간, 오히려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곳 사정은 더 심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캄보디아는 그나마 낡은 시설이라도 갖춰져 있어 개보수를 했지만 미얀마는 아예 시설 자체가 없었다. 그냥 작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다.

“미얀마 달라섬 빈민가부터 찾았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실도 없는 나무 아래 바닥에 칠판을 놓고 가르치는 등 환경이 열악한 데다 그것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국가적으로도 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곳 미얀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암 스님은 지역민들에게 말했다. “인도차이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처님 탄생지인 인도와 인접한 미얀마는 부처님의 발자취와 유적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쇼카왕이 부처님 머리카락을 가져와서 탑을 조성한 인연으로 불국정토를 이룬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얀마 국민의 90%가 불교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국가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 국민들이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道) 높은 수행승도 많은 나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방선인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법과 대승불교인 한국의 간화선 수행법이 접목되어 많은 명안(明眼) 종사가 나오고, 한국 미얀마 두 나라가 더욱 우의가 돈독해져 불교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머리카락이 와서 불국정토가 되었듯이 오늘 수리한 학교가 작은 도움이지만 전 세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얀마를 부흥시키고 발전 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지암 스님이 보시행을 발심하게 된 계기는 25년전 성남의 한 절에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을때 당시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였다.

“당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회의를 느낄 때 였지요. 불사를 하다 사기를 당해 수억원이 넘는 돈을 날려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의 보시를 주제로 한 법문은 제 수행 생활의 목표를 다시금 잡아준 큰 계기가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을 의식하거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정신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지암 스님은 부산에 은진사를 창건하고 지역 초중고생의 장학 사업부터 시작했다. 우선 21명을 선정해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이런 스님의 보시 정신이 알려지자 신도들도 십시일반 동참하기 시작했다. 20여년간 지암 스님에게 장학금을 수혜받은 인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20년간 캄보디아 등서 구호 사업



올해 1월 꿀렌 초등학교에서 보수공사 및 학용품을 전달한 지암 스님(사진 앞줄 맨 왼쪽).



2014년 '자비의 등불' 회원들과 미얀마에 설치한 정수시설 앞에선 지암 스님이 즐거워하고 있다.


지암 스님은 학교보수 수리를 하는데도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나선다.


지암 스님이 캄보디아 칸달주 속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원만 해도 족히 1천여명이 넘는다. 장학금 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교복과 책가방이 없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에는 지역의 중학교에 교복 800여 벌을 기증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신도들과 함께 장학금 모금 활동을 하며 지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후원금도 많이 모였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적은 돈이라도 혼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정성을 담아 정말 후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 절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더군요. 참으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국내 장학 사업을 주로 하던 지암 스님은 우연히 캄보디아 성지 순례를 갔다가 목격한 초등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캄보디아 씨엠립주 소재 꿀렌 초등학교에서는 기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에 직접 팔을 걷어 부쳤다. 학교 지붕위를 올라가는 가하면 페인트를 묻힌 붓을 들고 직접 담장을 칠하기도 했다. 매년 두 차례씩 5천만원 상당의 학용품과 쌀, 의류도 지원한다. 힘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현지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내 흐뭇해지고 뿌듯해진다고 한다.

"정말 줄 것이 없는 격오지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봉사단 일행들에게 야자를 따와서 건네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함께 따라간 분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국제구호운동에 발심한 분이 많을 정도입니다. 나눌 것이 없는 그들도 무엇인가 만들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재미에 강행군을 하는데도 하나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이 것이 봉사의 참 묘미 같아요."

이어 지암 스님은 보시에 대한 평소 생각도 밝혔다. "육바라밀 가운데서도 보시(布施)가 첫째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도 널리 공양(供養)하고 공덕을 회향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승가에서는 세상과 떨어져 깨끗하게 살며 수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고, 불자들은 기도와 기복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관념에만 매달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의 불교는 개인 수행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는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체질화돼 있지요."

지암 스님은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두를 들고 흩어진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뭣고' 를 골똘히 생각하면 구방심(求放心), 즉 달아난 마음을 찾게 됩니다. 화두는 자기 전에도, 차 안에서도 항상 듭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에 간단(間斷)없이 정진(精進)하라' 는 만공 선사의 말씀대로 바쁜 중에도 수시로 참선하려고 노력 합니다. 그것이 수행자가 가져야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암 스님은 이제 다시 원력을 세웠다. 기금과 물품 후원을 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와 미얀마 학생들과 한국 신도들간에 자매 결연을 맺어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지 학생 한명에 대해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다. 아직 시작 단계라 많은 인원이 동참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알려 일시적 도움이 아닌 지속적 도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법회와 포교에도 힘쓸 생각이다.

"빈민국가에 많이 방문해야 여러 사정상 1년에 3~4차례 밖에 못갑니다. 하지만 자매결연 사업을 펼치면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 관심을 두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날때마다 만나는 불자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행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피력한 지암 스님은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자비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대화 못할 상대가 없고 껴안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 두 달 있으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주변에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지 한 번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법일기

미완의 문화포교 '템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라 하였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고 하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역사와 문화 역시 일찍이 눈 밝은 선각자가 있어서 지금에 이른 것이라면 지금 우리 역시 미래를 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한류 바람과 함께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했다.

관광(觀光)이란 단어에서 빛(光)이란 역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석굴암' 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며 이는 곧 한국불교가 일개 종교가 아닌 세계역사며 문화로 공인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4년 '법고경연대회' 를 개최한 이후 난타와 사물놀이의 원조격인 '불전사물' 과 사찰 의식용 도구와 각종 소품을 활용한 타악 퍼포먼스 '템스' 를 개발했다.

이는 현대적 음악극으로 각색한 사물놀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템스' 개발 후 이를 보급하는데 근 4년 간을 고군분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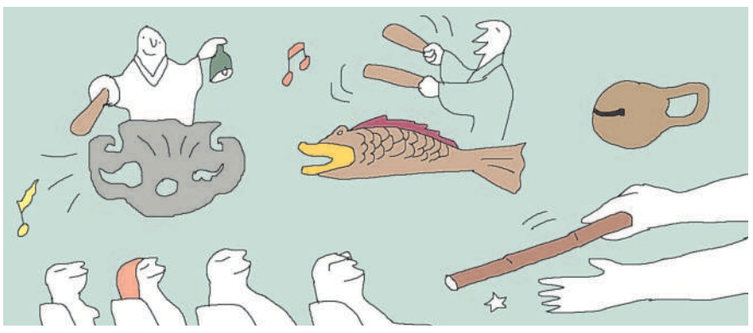
특히 법고를 현대적으로 제작해 디자인 특허를 냈다. 여기에 범종, 목어, 운판, 죽비, 목탁, 소종, 요령, 풍경 등 사찰소리의 근원인 모든 소품들을 총동원했다. 주요 내용은 6사 외도의 성품을 가진 일반인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면서 깨달아 가는 내용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연을 채 시작도 하기 전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설상가상, 공연을 하루 앞둔 마지막 리허설 도중에는 주연 배우가 부상을 입었다.

"스님, 어떻합니까. 수개월 연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무산되는 사건에 하늘마저 노래지는 느낌이 들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을 선보일 새 없이 하룻밤 사이 대본을 새로 써야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연에 쪽대본이라니….' 난감하기 짝에 없었다. 몇 년에서 몇 달을 연습하고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터에 참으로 참담한 지경이었다.

무대의 막이 오르고 공연을 관람한 이들은 환호를 보냈다. 특히 서울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부족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갖는 독특함과 그 가능성에 대해 과분한 갈채를 보내주었으며, 공연을 관람한 스님과 불자님들 중에서는 공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원금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었다.


그림 · 박구원

누군가의 말처럼 비싼 수업료 지불한 대가로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원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문화포교의 꿈은 온갖 상처만 남긴 채 미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 관광객에게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는 '난타' 가 단연 손꼽힌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1997년에 창단된 난타의 연간 관람객은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의 불교문화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도전해간다면 현재의 도전은 미래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템스' 는 미완의 문화포교라고 부르고 싶다. 언젠가는 '템스' 가 난타와 같은 위상을 지닐 날이 오지 않을까.

1700년, 우리의 역대 조사가 가꾸고 지켜온 대한민국 불교문화가 세계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당당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면 현재의 나이거나 또는 누군가는 미래 불교가 시중문화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대행 스님

각자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으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자기 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님을 '주님' 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모두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나도 가톨릭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옮기고 돌아서죠. 그러곤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가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삶이에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부부가 만났는데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지. 상점에도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서 있습디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네가 잘못해서, 앙앙거려서 재수가 없어서 안됐느니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말라, 이 소리죠. 모두가,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 탓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을 했는데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모두 생활에 관한 건이니까 자세히 듣고 그대로 행해 보신다면 아마 이익이 90%, 80% 될 겁니다. 인제 앞으로 점점 100%, 120%가 갈는지는 또 여러분한테 달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거, 진짜로 믿는다면 재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아까 말했듯이 대신 죽어 주지도 않고 대신 먹어 주지도 않고, 잠도 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도 없는 상대를 믿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니 글쎄,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나를 아프면 아픈 대로 리드해 나가고, 나를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물리가 터지게 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게 하고, 즐거우면 웃게 하고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나의 보디가드를 그렇게 못 믿어요, 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죽는 거든지 사는 거든지 다 보디가드가 돼서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것을 불가에서 말하면 '보신' 이라고 그러죠. '보현신!'

그래 이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처님 모셔 놓고 문수보살 모셔 놓고 보현보살 모셔 놨죠.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생각이, 바로 문수가 부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면 그게 법이 되거든요. 생각하면 법이 되고 생각을 받는 사람이 보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생각이 문수요, 법이요, 생각하면 법이니까 법신이요, 또 법신이 '이렇게 했으면…' 하면 벌써 보현이 재깍 받아서 움죽거리니까요. 그러니 한 몸에도 그런 게 있단 얘깁니다. 여러분도 문수 보현 다 끼고 다니시죠? 바른팔 왼팔 다들요. 생각을 했으면 움죽거리시죠? 그게 법신, 저 문수예요. 법신이요 바로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도 귀중한 몸뚱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한테 짓밟히고 넘겨 그 발길에 차이고 이렇게 살 거라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좀 그런 걸 알고 사세요.

그래 가지고는 허이구, 가만히 보면 법당에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그냥 '아휴,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여, 지장보살….' 뭐, 그냥 별놈의 이름을 다 찾죠. 그게 없는 이름이 아니죠. 다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주인공에다 맡기면 약사가 되거든요, 약사보살. 진짜 자기가 약사보살이 돼요.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답답할 때에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죠, 관세음보살이. 명이 짧아서 어쩌나 어쩌나 그러고 걱정될 때는 칠성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한테 맡기면 내 주인공으로 하여금 통신이 돼서 그 칠성부처가 책임을 맡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부처가 그 명을 다루죠.

그리고 또 좋은 데로 못 가서…. 그 누구나가 또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낀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냐 이러죠.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대접밖엔 못 받는다, 아무리 대접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뱀이라면 뱀의 대접밖엔 못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해서 이 공부에는 모든 걸 무효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새로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또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어떤 때는 그래요. "아, 나한테 좀 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좀 해 주시오." 이러죠. 그거 다 생각이 있죠, 나 나름대로. 그렇지마는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해 줄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더러 "관하시면, 그대가 그대의 주인공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또 되겠으니까. 나부터라도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팥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 말 한마디 해 줄 때 겁나요. 허, 내가 자신 없는 말은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알았다' 고 그냥 그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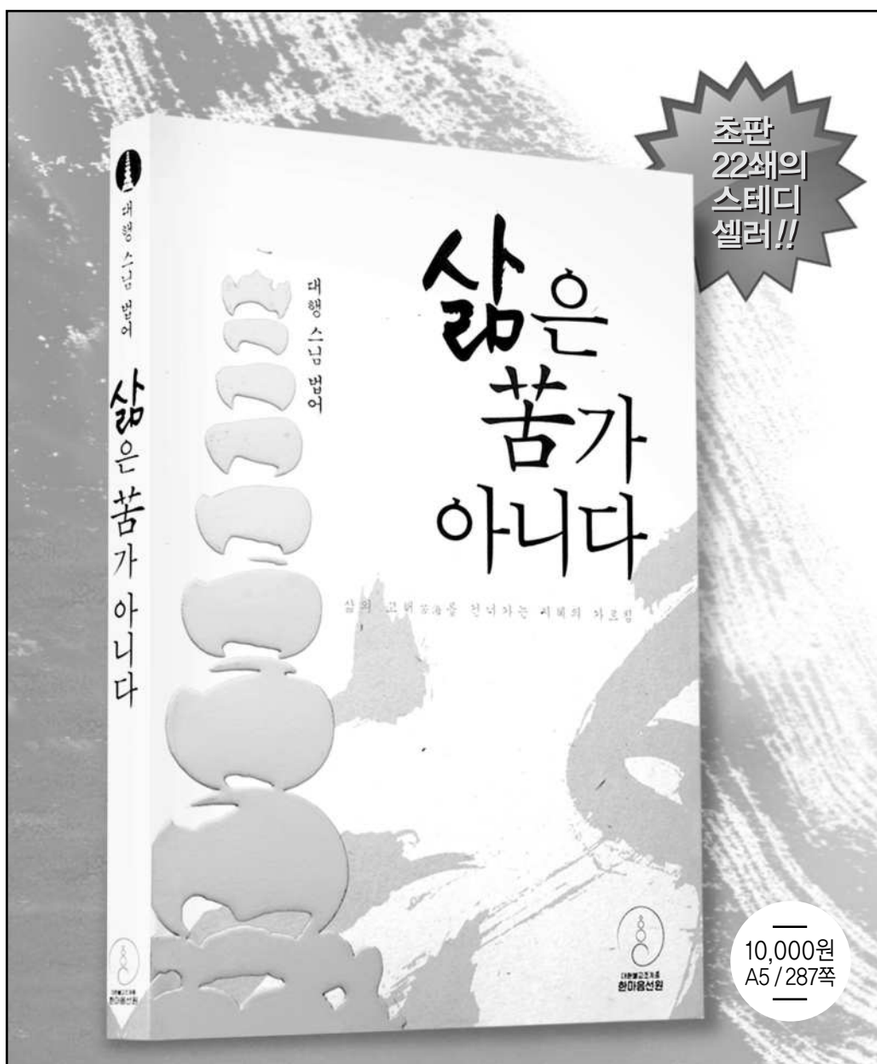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모르든 알든 모두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건데, 자기가 강도질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신기한 소리 좀 할까요? 보시면 보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그냥 탁!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탁! 버려 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없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질을 했다면 되돌아 와야 하죠? 되돌아오기 전에 입력이 입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되오기 전에 입력이 되니까.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묘법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받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좋은 말로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긴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살아서 겁겁한 대로 어떠한 문제를 그냥 제시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만 이러지 않게 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질문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질문할 게 없거든요. 일거수일투족 다 그 입력하는 데만 넣으면 그냥 되돌아 나오니까요. 그런데 믿지 못해서 입력이 되지 않죠.

질문자1(여) 제가 여기 작은아들이 있어 가지고요, 한국에서 잠시 다니러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불자라고 자칭하고 그래도 꽤나 절에 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제 마음공부도 한다고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저의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 집안이 전부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인제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은 한국에 있을 때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잠시 절에 조금 다녔었나 봐요.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긴 여자들이 더 좀 상위가 돼서 그런지 기독교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엔 그냥 이렇게 시간 있으면 나오고 또 데려다 주고 가고 하긴 하는데요, 매사가 조금씩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땐 조금 불편하거든요, 마음이요. 저보다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 더 불편한 것 같고 중간에서 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큰스님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다 몰라서 그래요. 이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말해 줘요. 며느리 될 사람이 신랑한테로 시집을 왔는데 기독교인이고 또 불교인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도가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 집으로다가 시집을 간다면 그냥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걱정할 게 뭐 있냐. 그 강당에 가서도 주인공이요 뭐, 여기 법당에 와서도 주인공인데 시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법당에 오지 말고 그 강당에 가서 그냥, 주인공, 주님은 네 가슴에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절대 찾지 말고 안으로 해야 그 모든 시집살이며 모든 가정이 불편 없이 살 수 있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내말이 좀 틀렸나요? 허허허.

그러니까요 며느리도 마음 편안하게 해 주세요. "얘야, 주처는 네 마음 깊은 속에 있다더라. 나도 주처를, 그 내 주처를 내가 믿고 있다. 내 가슴속의, 내 마음속의 주처를 믿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라." 이렇게요. 그리고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 불교를 다니든지 이 마음 통신처가 제일이죠. 기복으로 하는 거, 이 불교도 기복으로 믿는다면 그거 이렇게 말할 수밖엔 없죠. 부처님께서 "네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의 소굴과 같으니라." 또 예수가 말할 때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난 예수가 자기만 믿고 남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하죠. 왜 줄 아세요? "각자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와 같고 마구니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건데, 자기만 알고선 믿곤 그냥 남을 생각지도 않고 "나를 벗어나고, 나를 믿지 않고 벗어나서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고 마구니와 같으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실수했죠. 허허허.

질문자1(여) 그래요. 저희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것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외에는 딴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랬대요.

큰스님 그렇죠.

질문자1(여) 그래서 그게 참….

큰스님 사실인데요, 그게 사실인데 말 한마디 잘못에 50%의 정신계가 그냥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끔 돼 있으니 항상 자기는 그 따라지밖에 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따라지밖엔 될 수가 없죠.

질문자1(여) 예.

큰스님 그것이 몸뚱이에요. 몸뚱일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그저 말을 아무리 잘하고 이론적으로 잘한다 하고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질문자1(여) 그걸 몰라요.

큰스님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사세요.

질문자1(여) 저는 편안해요. 그런데 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큰스님 아니요. 아니요. 불쌍하게도 생각지 마세요. 그냥 탁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탁 버려 버리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질문자1(여) 예.

큰스님 그것이 서로가 구원하는 길이요, 구제하는 길이요, 자비성이요,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고 자비란 말입니다.

질문자1(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떼러 오셨다가 붙이고 가시는 격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질문자2(외국인 남) (영어로 질문)

큰스님 한마디, 한마디씩만 하시지, 왜 그렇게….

통역 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냐고, 그게 물어보고 싶답니다. 저분은 이슬람, 모슬람교에서 나온 분입니다.

큰스님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 하나로 돌아가는,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뜻을 우리가 참답게 기리기 위해서 인간이 들지 않고는 하나라는 도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공했느니라. 그 공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 속의 이 생명들도 같이 공해서 작용을 하고 갑니다. 어떤 부위에서 작용을 하는 걸 내가 작용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활 속에서 금방 어머니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한 것입니다.

질문자2(외국인 남) 창조자가 창조를 한 이유는 창조자를 숭배하고 창조자를 존경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큰스님 그러는 거야?

통역 예. (대중 웃음)

큰스님 이거 말이 통하면 좋겠는데. 창조자는 물도 되고 불도 되고 흙도 되고 바람도, 공기 그것도 됩니다. 네 가지가 다 창조자입니다.

질문자2(외국인 남)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저는 대행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리라고 믿습니다. 대행 스님을 믿습니다.

큰스님 대행 스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대행 스님이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얘깁니다.

질문자3(여) 예, 저 자신을 믿습니다.

큰스님 예, 예.

사회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에 마이크가….

질문자3(여)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하고 통일을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저에게 그 해결 방법을…. (대중 웃음)

큰스님 이 통일을 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보지마는, 우주 삼라만상에서 다 통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되는 것도 됩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말이지,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팽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질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쪽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리는 없으니까 저쪽을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얘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인제 우리 애들더러도 "어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죠.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 뜻이라면 우주간하고도 통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이 돼서 이만물하고도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소한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바쵸프면 고르바쵸프 뭐, 누구를 어떻게 잡는다 이러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법 줄기를 갖다가 거기로 대죠, 모자라는 거를 채우면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대중 웃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돈 사람으로 생각되게끔 되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해야 된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집니다. 모두 공해로 인해서 생긴다고도 하고, 아니 1/3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지금 원기 그 자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지금.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 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음, 이 자리밖에는 우주하고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밖에는…,

질문자3(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대중 웃음, 박수)

큰스님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지 못해서 용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딴 사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부르려니 입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회장님도 오셨네, 저기 뉴욕의. 하하하…. 아니, 그러니까요 금방 나는 이름을 불렀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또. 어저껜 금방 그 말을 '야, 자꾸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뭐가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금방 했는데도 그냥 또 까만 거예요. 그렇게 까매요. 그런데 뜻은 다 알고 있어요. 허허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들 하는 것은 새 발의 피다. 이것이 앞뒤의 모든 것을, 앞뒤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이건 보이지 않는 무의 법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모두?

대중 예. 이해가 갑니다.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6년 10월 27일 토론토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새로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